

영어 공부, 어떻게 한대?

안성호, 김진영, 이다영, 정승연 엮음

English, How Do You Study?

Edited by AHN S.-H. Gyemyong,
Kim Jin Young, Lee Da Young, Jeong Seung Yeon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학생들이 들려주는 진짜 영어공부법 이야기



“영어 공부, 어떻게 한대?”

안성호, 김진영, 이다영, 정승연 엮음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English, How Do You Study?

Edited by AHN S.-H. Gyemyong,
Kim Jin Young, Lee Da Young, Jeong Seung Yeon

Department of English Education,
Hanyang University





한양대학교 캐릭터 소개



하이리온

날 때부터 파란머리를 가지고 태어난 하이리온.
 캠퍼스 곳곳 어려움에 처한 학우들을 돕는
 의협심이 강한 청년 사자이다.
 하이리온의 이빨을 지니고 있으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오해(?) 때문에 이빨을 감추고 다닌다.
 캠퍼스 어느 곳에서든 인기 많은 인싸 하이리온 곁에는
 어느 순간 따라다니는 절친이 있다.

HYLion, born with blue hair, is a righteous lion
 who helps fellow students in trouble on campus.
 HYLion keeps his teeth hidden
 because some students misunderstand (?)
 that they can easily pass exams
 when carrying a HYLion tooth.
 The popular lion, loved everywhere on campus,
 finds a close friend in no time by his side.



하이나리

봄이 되면 캠퍼스에 나타났다가 사라졌던 하이나리.
 어느날 열심히 캠퍼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하이리온을 주의깊게 보게 된다.
 그 이후 하이리온의 인싸력에 용기와 힘을 얻어
 그를 따라다니기 시작한다.
 오후에 가득 내리쬐는 햇빛을 받는 것과
 음악을 들으며 흥얼거리기 좋아하는
 하이나리의 트레이드 마크는
 아침밤낮 쓰고다니는 선글라스!

Hynari, who used to come to the campus
 for a surprise visit every spring.
 One day, HYNari keeps an eye on HYLion,
 who is actively participating on campus.
 From then on, encouraged by his common touch,
 HYNari hangs around HYLion.
 HYNari enjoys afternoon sunshine,
 likes to hum along with music,
 and wears sunglasses as her trademark day and night.

자, 그럼 이제
영어 공부하러 떠나볼까요?

"Now, then,
shall we go to
study English?"





목차



한양대학교 캐릭터 소개

... 3



권두사

... 1



머릿말

... 9



한양대학교 선배들의 이야기

13학번 조용진

... 13

14학번 조영영

... 20

15학번 강창욱

... 28

15학번 김소연

... 31

15학번 김재영

... 44

15학번 신승연

... 50

15학번 안소정

... 60

15학번 장경현

... 68



목차

16학번 안재우	... 75
17학번 김광일	... 80
17학번 도혜원	... 89
17학번 송봄	... 96
17학번 정지은	... 103
18학번 유준혁	... 112
18학번 이준범	... 119
18학번 정유정	... 127



맺음말

... 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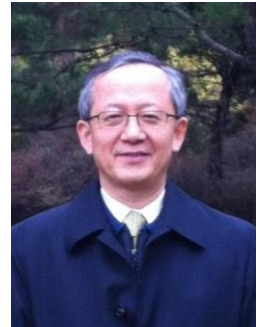
Foreword

권두사



안성호(계명) AHN S.-H. Gyemyong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 여러분, 이 책에서는 여러분과 꼭 같이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중등학교 과정을 거쳐 온 대학생들이 자신들이 영어를 공부하면서 터득한 ‘비법’을 알려줍니다. 이 책의 이야기들은 주로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혹은 고등학교 저학년에게도 도움이 될 겁니다. 궁금하지 않나요?

Dear students who want to learn English, in this book the students who just like you have run through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courses in Korea are telling you the secrets they learned while studying English. The stories in this book are mainly for those of you in the first and second years in middle school. However, they can be helpful to elementary school seniors or high school juniors. Aren't you curious about them?

그 이야기들을 들어 보면, 영어를 배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여러 방법 중에서 어느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맞을지 찾아보세요. 또 공통적으로 비슷하게 되풀이 되는 이야기나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뭘까요? 어떤 것들은 여러분들에게도 효과가 있겠죠? 찾아보세요.

Listening to the stories, you'll find that there are many ways to learn English. Find out which of those methods is best for you. There are also common and similar stories and methods. What

will they be? Some will be effective for you, too, right? Find them out.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쉬운 길이 정말 없다는 겁니다. Easy come, easy go 라는 영어 속담이 있어요. ‘쉽게 얻는 것은 쉽게 없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반대로 힘들게 얻는 것은 쉽게 없어지지 않죠. 그런데 바로 영어가 그런 거 같아요. 절대론 쉽게 얻어지지 않아요. 끈기 있게 달려들어야 하죠. 그러나 일단 얻게 되면 누구에게나 참 좋은 ‘보물’ 중 하나가 되지요. 여러분, 한 번 달려들지 않으시겠어요?

One obvious thing is that there is really no easy way. “Easy come, easy go” is an English saying. It means: If you get something easily, you will lose it easily, too. So we do not think highly of things that we get easily. On the contrary, if you get something in a hard way, you don't lose it easily either. Well, I think English is just like that. You can never get it easily. You have to go at it with patience. But once you get it, it will be one of the great treasures to any of you. Won't you try to go for it?

개개인의 ‘영어공부 이야기’를 나눠서 널리 읽히게 하자는 이 프로젝트는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6명의 학생 필자들이 소중한 원고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원고 모집에서 그리고 편집인으로 김진영, 이다영, 정승연 학생이 큰 수고를 해 주었습니다. 또 영어교육과의 한문섭, 김성연, 전유아(학과장), 이문우 교수님께서 지원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가 캐릭터 및 로고 사용을 허락해주셨습니다.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이 책은 ‘영어교육 예비교사 국제역량 고도화 지원사업’ (한양대학교, 2017.6.1 - 2019.10.31)의 부분적인 지원을 받아 만들어졌음을 감사하게 밝힙니다.

This project, which aims to share individual ‘English study stories’ to benefit people far and wide, has been done by the efforts of many people. 16 student writers contributed valuable manuscripts. KIM Jin-young, LEE Da-Young, and JUNG Seung-yeon made great efforts in recruiting the manuscripts and as their editors. In addition, Professors HAN Mun-Sub, KIM Sung-Yeon, CHON Yuah (Department Chair) and LEE Mun Woo at the Department of English Education were very supportive. And Hanyang University allowed us to use the university characters and logo. To ALL of them, I am deeply grateful. Finally, I gratefully acknowledge that the compilation of this e-book was undertaken with partial support from the Hanyang University grant on ‘A Project for Advancement of International Competencies of Preservice English Teachers’ (Hanyang University, 2017. 6.1 - 2019.10.31.). ”



Preface

머릿말



김진영, 이다영, 정승연

편집인,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재학생



“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단어, 어색한 문법 체계, 이해하기 힘든 발음, 그리고 의사소통을 할 때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함.

Unfamiliar words, an awkward grammar system, incomprehensible pronunciation, and the underlying fear and anxiety in communication.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면 누구나 한 번쯤 겪을 법한 일입니다. 다른 언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색다르고 설레는 경험이 될 수 있지만, 한국어라 다른 언어체계를 학습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어교육을 전공한 저희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학생 때 영어를 배우면서 빠르게 늘지 않는 실력에 좌절할 때도 있었고, 이해했다고 확신했음에도 실전에 응용하지 못해 막막함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어려움을 하나씩 극복해가면서 영어의 색다른 면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외국어를 통해 접하게 된 더 넓은 세상에서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시는 여러분들도 영어를 배우며 분명 힘든 점도, 궁금한 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학생 여러분의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이 책을 엮게 되었습니다. 한양대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을 정함으로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좀 더 자신감을 갖고 학습에 도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These are something nearly everyone has experienced at one time or another in learning a second language. Learning a different language can be a new, exciting experience as it involves accepting other cultures, but it is not always so easy to learn an entirely different foreign language system. We are now majoring in English Education but we were not different from you. Sometimes we were frustrated with slow progress, and sometimes we were at a loss as to how to apply the knowledge in real life. However, we discovered a new aspect of English after overcoming such challenges and were captivated by the language. English was a door to a wider world in which we achieved personal development. I'm sure you have had difficulties and questions when studying English, and we edited this book to help you to some extent. We hope you feel more confident and less stressed in studying English as you are exposed to a wide range of experiences of Hanyang English Education students.

이 책은 한양대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전공한 16명의 학생들의 원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외 유학 기간이 2년 미만으로 한국 중,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학습한 학생들이 그들의 학창시절 영어학습 경험을 소개합니다. 원고는 한양대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3개월간 모집하였으며, 이후 편집인들의 수정을 거쳐 완성되었습니다. 우선 안성호 교수님께서 프로젝트를 기획하시고 진행 방향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이후 원고의 수정 과정은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1학년 김진영 학생의 한글 원고 윤문 작업을 시작으로,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15학년 이다영 학생의 영문 번역 및 시각적 자료 첨부,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1학년 정승연 학생의 책 표지 및 내부 디자인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원고 수정 과정에서 안성호 교수님께서 국문 원고, 영문 번역, 디자인 및 세부 내용 등 다방면에서 피드백을 제공해 주셨고, 교수님과 편집팀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져 성공적으로 편집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This book consists of 16 essays, all written by Hanyang English Education students who have studied in Korea with less than two years of studying-abroad experience. We collected essays for three months in Hanyang university and the editors proofread all manuscripts. Professor Ahn S.-H. Gyemyong planned out the project and helped us stay on the right track. Then we editors, all who



were majoring English Education at Hanyang university, revised the book based on the following three steps. Kim Jin-young started editing by proofreading Korean essays, then Lee Da-young added visual materials and translated the original essays to English. Jung Seung-yeon was in charge of designing the whole book including the cover. Professor Ahn kept providing us feedbacks on Korean/English manuscripts, book designs and further details, and the project was successfully completed through mutual interaction and communication among the team.

이 책의 제목인 <영어공부, 어떻게 한대?>는,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물음이라는 뜻과 동시에 ‘한양대(=한대) 학생들의 경험을 담은 책’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또한 각 원고 작성자의 교육 환경과 성향에 따라 공부방법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학생 각 개인별로 원고를 분류했으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기소개’, ‘영어 학습 배경’, ‘어휘 학습법’, ‘문법 학습법’, ‘영어 기초 다지기’, ‘시기별 학습법’, ‘대학교에서의 영어 학습’으로 질문을 구성했습니다.

The title, *How do You study English?* has meanings of both ‘how to study English’ and ‘the collection of HY(Hanyang) students’ essays’. Also, to help you compare and understand how learning strategies can vary depending on individual learning environments or learning styles, we organized the contents under seven different parts: Self-introduction, First exposure to English, Vocabulary, Grammar, Basic English, Level-based learning strategy, and English in university.

여러분, 영어의 공부에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각각이 다른 성향을 지니고, 모두 다른 교육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듯이, 영어 학습에도 역시 ‘이렇게 공부해야 성공한다’는 단일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며 영어를 공부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영어로 일기를 쓰며 실력을 키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또한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직접 시도해 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학습법을 찾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영어 학습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흥미를 키우길 바랍니다.

Dear readers, there is not a single, right path suitable for all students in studying English. A single ideal learning approach does not exist because each of us has a different learning style and lives in a different environment. Some may study English using multimedia tools like TV shows and movies, and some may improve their skills by writing English journals. You can do so as well. Try out various

methods for yourselves and find an appropriate strategy that suits you well, and through this, we hope you build confidence and be interested in learning English.

혹시 책을 읽다가 영어 공부법, 학습하며 생긴 고민들, 책의 내용에 대한 질문 등 궁금한 점이 생 기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아래 메일 주소로 질문해주세요. 학생 여러분들께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If you come up with any questions and others reading this book,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anyone of our editor team at the following e-mails. We will do our best to respond as soon as possible.

Kim Jin Young, Lee Da Young, Jeong Seung Yeon

Editors



shahn@hanyang.ac.kr (안성호)
whitewale01@gmail.com (김진영)
ramong1111@naver.com (이다영)
syeon4979@naver.com (정승연)





13학번 조용진



“ I am Cho Young-jin, an English Education major at Hanyang University. I understand those who are surrounded by a relatively inferior educational environment since I grew up in countryside until high school, so I think I can help you by sharing my experience. I used to rank between 20th and 30th among 90 students in middle school, and was in the top ten among 270 students in high school. My 2013 Suneung English test score was 94.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에 13학번으로 입학한 조용진이라고 합니다. 작은 지방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수료했고, 그래서 지방에 있는 교육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분들의 입장

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심정에 맞추어 도움이 되는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성적

은 중학교 때에는 약 90명 중 20~30등 정도, 고등학교 때에는 약 270명 중 한 자릿수 등수였습

니다. 수능은 13학년도 외국어 영역 94점이었습니다.

Q. 우선, 전반적으로 영어를 어떻게 접했고 배우게 됐는지 궁금해요!

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영어학원을 다녔습니다. 중학교 때에는 공부에 굉장히 소홀했는데, 그런데도 학교 영어 성적이 잘 나온 이유는 그때 당시 MP3 플레이어로 팝송을 많이 들은 덕분인 거 같습니다. 팝송은 영어의 발음과 억양, 문장 구조나 단어들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던 좋은 수단입니다. 고등학교 때는 본격적으로 내신과 수능에 대비하는 시기입니다. 내신은 학교 수업에서 선생님의 수업을 최대한 받아들이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수능은 문제 풀이 위주로 유형을 익히며 스스로 시험에 나를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사교육은 거의 이용하지 않았고, 어느 순간 무엇인가 어려움이 느껴질 때 과외나 인터넷 강의를 한두 번 찾아본 것이 전부입니다.

I attended English hagwons from the fourth grade until the sixth grade in elementary school. In middle school I got good grades for English even though I did not care so much about studying. I think it's due to my habit of listening to English pop songs. Pop song is one of the ways to help you naturally acquire English pronunciation, tone, sentence structures, or vocabulary. When you are in high school, you start to focus on preparing for school grades and Suneung. I stayed focused in class to get good grades, and I tried to fit myself into Suneung by being exposed to various types Sunueng problems. I did not rely on private education much, but only temporarily got help from private tutors or online classes when I had problems.





Q.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휘라고 하던데, 그럼 어휘는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어휘 학습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나중에 까먹게 된다는 점입니다. 나도 단어장에서 보았던 단어를 나중에 다시 기억 못 하는 게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래도 꽤 오래 기억하는 단어들을 보면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단어들을 단어장 외에서 활용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단어를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고 직접 말해보거나 그 단어를 포함하여 작문을 해보기도 하고. 혹은 그 단어를 포함한 지문을 독해할 수 있다면 어휘를 오래 기억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추천하는 방법은 어휘를 어원에 따라 파생되는 것까지 외우는 것입니다. 이 방법의 가장 좋은 점은 한 단어의 여러 가지 유형을 익히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어원을 알고 있다면 그와 관련된 모르는 단어를 보아도 어느 정도 뜻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One of the challenges in studying vocabulary is that you forget the words later on. I was stressed when I could not recall what I had memorized from the word list. Then I realized that words which I remembered longer were usually those that I had used in real life. In other words, instead of simple memorization, it is helpful to use the words in communication or in writings, or even just in reading texts which used them. Another method I want to suggest is *to memorize multiple words that are based on the same root*. The biggest advantage about this method is that studying one word leads you to learning other "types" of the word as well. Also, understanding its origin helps you predict the meanings of unfamiliar words related to the wo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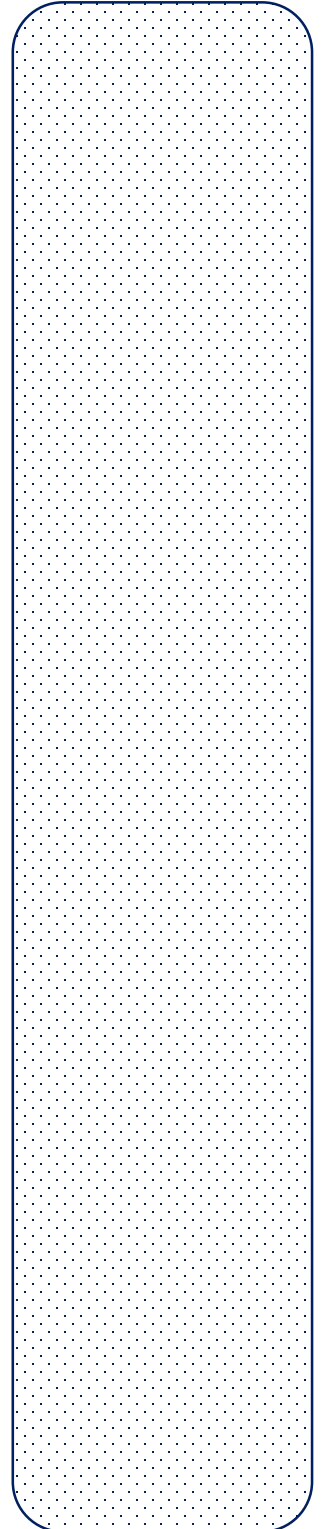
Q. 저는 영어에서 문법이 가장 어려워요. 문법은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제가 문법을 배우는 데에 있어 가장 힘들었던 점은 여러 문장을 보며 문법을 의식적으로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문법 문제를 풀 때는 필요한 자세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영어 문제에서는 정말 까다롭게 물어보는 문법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기초적인 요소를 물어봅니다. 이 점을 미루어 볼 때 처음에는 문법 공부를 특별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지문을 보며 문장 구조를 자연스럽게 익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이후에 문법책을 보고, 쉬운 문법은 빠르게 넘어가고, 특히 어려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길 권합니다.

The biggest challenge in studying grammar for me was that I had to consciously look out for how grammar rules are applied in sentences. This is an appropriate attitude when solving grammar questions, but most of the questions asked in Korean education are not that complex. They ask rather very simple ones, so at the beginning you don't have to spend quite a time in studying grammar. I suggest you first get used to various sentence structures in reading passages, then later study grammar books focusing on difficult points.

Q. 기초적인 영어 실력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휘의 경우 대부분의 단어장에 발음 기호가 다 쓰여있지만 그 발음 기호를 가르쳐 주는 곳은 드뭅니다. 하지만 영어 듣기에 있어 발음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귀찮더라도 단어장으로 공부할 때면 출판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음성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활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발음을 익힐 수도 있고 또 그 단어들을 더 오래 기억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실 기초를 마련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건 영어에 많이 노출되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팟





송을 통해 영어를 계속 듣고 읽다 보면 나중엔 영어의 기본적인 구조나 단어를 자연스럽게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Pronunciation is given in most vocabulary books, but it is rare to find one that teaches you how to understand pronunciation symbols. However, knowing English pronunciation is extremely important in English learning. I suggest you visit publishing companies' websites and download audio files. This will surely help you practice correct pronunciation and remember words even longer. The most important thing in getting its basic skills is to be more exposed to the English language as much as possible. You will naturally acquire English sentence structures if you continue to listen to pop songs or watch English movies or TV shows.

Q. 시기별로 영어 학습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초등학교 때는 영어를 자주 자연스럽게 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영어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영어의 기본적인 구조를 알아채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영어 문제 풀이에 매달리는 건 시기상조입니다. 중학교 땐 영어의 기본적인 중요한 요소들을 학습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시기를 놓친다면 고등학교에 가서 수능 대비를 할 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 필수 단어와 기초 영문법 독해 등의 기본서는 확실히 보고 진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시기에는 수능에 맞추어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수능의 유형은 정형화되었기 때문에 기초를 끝낸 후에는 수능의 정형화된 유형과 문제 속의 패턴을 파악하는 데에 집중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 이후 발견하는 약점은 본인의 몫입니다. 만약 듣기 능력이 부족하면 받아쓰기 등을 통하여 듣기 능력을 키우면 되는 것입니다.

In the elementary school period, it is important to be often exposed to English in natural ways. This will help lessen your



negative feelings and help you understand its basic structures. Practicing test questions is too early for young students. For middle school students, it is important to grow basic English skills, because you may have difficulties in high school if you are not well prepared. I suggest you study both the essential words suggested for middle school students and basic reading comprehension book before you move on to high school. I'm sure you are aware of how important it is for high school students to prepare for Suneung. Question types in Suneung are limited, so it is more effective to study basic English and then move onto improving your problem solving skills. After that, it is all on your own to work on your remaining weaknesses. For example, if you have problems with listening, you can try dictation to improve your skills.



Q. 대학교에 가서도 영어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고 들었어요. 대학의 영어는 어떤가요?

대체로 수능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은 거로 압니다. 나는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의 목적은 개인의 학습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고, 수능 영어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사람 중 대학 영어강의를 도저히 못 들겠다는 사람을 본 적은 없습니다. 수능에서 영어 영역은 알다시피 듣기와 읽기를 평가합니다. 당연히게도 이 두 요소는 강의를 들을 때 가장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것 외에도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쓰기 능력도 필요합니다. 답안을 영어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의에 따라서 발표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말하기 능력도 필요합니다. 읽기와 듣기 위주로 공부하되 쓰기와 말하기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I know that a lot of students feel uncomfortable with Suneung, but such negative emotions are really unnecessary.



Suneung simply aims to test your learning ability, and I have not met anyone in university who have problems taking English classes among those with high Suneung English scores. Suneung evaluates your listening and reading skills, which are of course, essential when taking lectures in college. However, you also need to have writing skills for taking tests. It's because you have to write your answers in English. Sometimes you may need speaking skills to make English presentations. Therefore, you should mostly focus on reading and listening, but you should also think about improving your writing and speaking skills as well.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blue border and a light blue dotted background, intended for taking notes.



14학번 조영엽



“ Hello. I am Jo Yeong Yeop, an English Education major at Hanyang University. I was born in Wonju, Kangwondo and graduated Wonju high school. I hope to be the kind of teacher who inspires and loves his students and earns their respect. ”

안녕하세요.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나 원주고등학교를 졸업한,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3학년에 재학중인 24살 조영엽입니다. 바쁘리 영어 교사가 되어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그리고

학생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Q. 우선, 전반적으로 영어를 어떻게 접했고 배우게 됐는지 궁금해요!

나는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나 원주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원주에서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빠르게 영어를 접하는 수도권 학생들과는 다르게, 확실히 원주에 있는 학생들은 대개 초등학교 4학년 정규과정부터 영어를 접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집에서 영어를 접하게끔 직접적인 도움은 주시지 않았고, 학교와 학원에 다니며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우리 학과에 많은 학생이 영어를 외국에서 혹은 어렸을 적부터 원서를 통한 자연스러운 공부를 했던 것과는 반대로, 철저한 독해 위주의 영어학습을 받아왔습니다. 우리 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였지만 중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오는 학교였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수업은 지루하고 재미없어서 잘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학원에서 하는 내신과 독해, 문법 위주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I was born in Wonju and had lived there until I graduated from Wonju High School. Unlike students in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who are exposed to English at an early age, most students in Wonju first learn English in the four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My parents did not teach me English at home, but instead I went to school and private academy. Unlike many students in our department who studied abroad or naturally acquired English when they were young, I learned English through reading comprehension passages. I went to public high school but most of the students there from middle schools had good grades. School classes were not interesting enough for me to pay attention, so I went to private academy to take classes focusing on school records, reading comprehension, and English grammar.



Q.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휘라고 하던데, 그럼 어휘는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나는 영어를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독해를 중요시하는 교육 환경 탓에 단어를 많이 외웠습니다. 단어를 외우고 독해할 때 외웠던 그 단어가 나오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단어를 외우는 게 싫증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어를 외우는데 있어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단어의 어원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어의 형태와 의미가 잘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극복했던 방법은 단어를 예문 중심, 그리고 문장으로 글을 읽어 단어 주변의 맥락을 파악하는 거였습니다.

I did not learn English for the purpose of communication due to the school curriculum which emphasized reading skills. I tried to memorize vocabulary as much as possible. I remember the thrill of coming across familiar words in the reading passages. So I guess I didn't dislike learning words by heart. However, I felt it was difficult to figure out the origin of some unfamiliar words and had difficulties connecting the form to the meaning. To overcome this difficulty, I tried to understand how the word was used in its surrounding context through reading various example sentences.

단어는 반복적으로 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단어장을 한 챕터를 세 번 정도 눈으로 읽고, 단어장에 적고, 예문이 있으면 문장을 통째로 외웠습니다. 예문이 없는 단어를 외울 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 단어를 포함해서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 후, 일주일이 지나고 퀴즐렛 어플에 그 단어들을 적어봅니다. 퀴즐렛은 내가 외웠던 단어를 테스트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I think repetition is vital in memorizing words. In my case, I skimmed through a chapter of a vocabulary book over three times, and then wrote down unfamiliar words. I also memorized exam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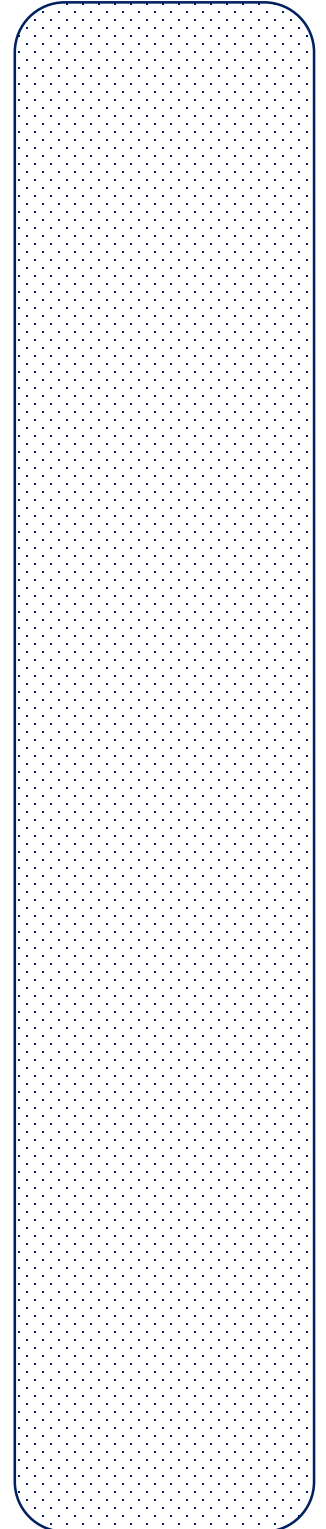
sentences or even created one myself for words without examples. This was quite helpful for me to internalize the words. After a week, I used an application called 'Quizlet' to have an opportunity to test myself.



Q. 저는 영어에서 문법이 가장 어려워요. 문법은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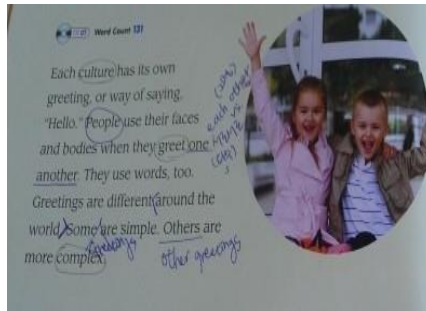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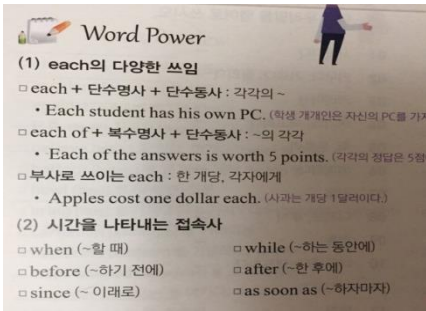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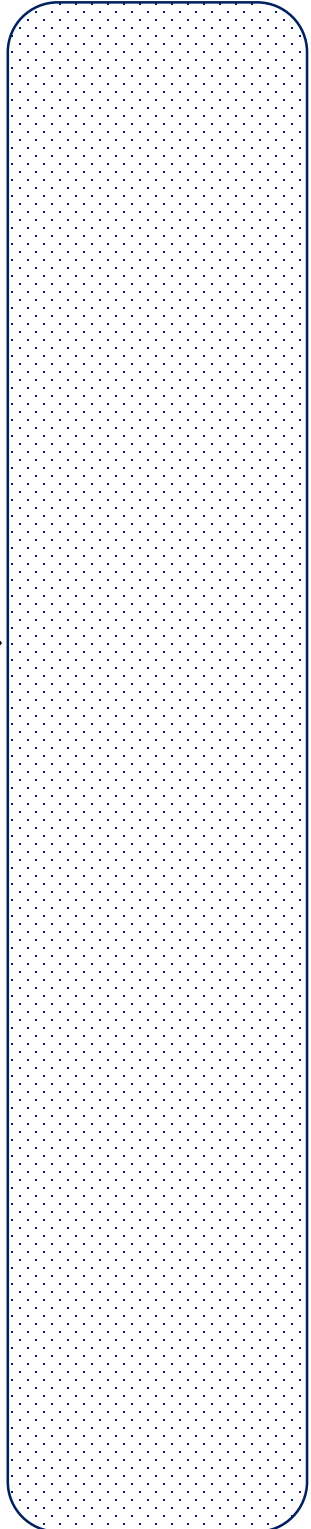
확실히 학교 시험에서는 문법과 독해가 중요합니다. 내가 문법을 공부할 때 어려웠던 건 16개나 되는 큰 문법 규칙과 그 세세한 부분들을 다 외우는 거였습니다. 또한 1과의 문법을 외우더라도 2과를 공부하고 나면 1과의 문법을 까먹게 되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나는 문법을 따로 배우는 대신, 재미있는 주제가 많이 담긴 글을 최대한 많이 읽으면서, 문법 개념들을 배웠습니다. 즉, 나는 문법적인 요소들도 맥락 속에서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Both grammar and reading are obviously significant in Korean English Education context. The hardest thing for me in studying grammar was to memorize all 16 grammar rules and specific details underneath. Even when I memorized the grammar points of the first chapter, I forgot what they were as soon as I moved on to the second chapter. To overcome this matter, instead of separately studying grammar concepts, I tried to go through interesting reading texts as much as possible and understood grammar rules that are used within the sentences. Therefore, I think *grammar points are better understood within their contexts*.



★ 잠깐! 문법을 맥락 속에서 공부한다고요?

문법 개념을 맥락에 따라 이해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문법 개념을 글의 흐름에 따라 이해한다는 소리예요! 조금 더 설명하자면, 문법 규칙을 무조건 외우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글을 읽고 글쓴이가 문장 속에서 문법 요소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직접 찾아보고 이해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래 두 그림을 비교해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왼쪽 사진은 맥락과는 별개로 문법 규칙을 나열해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른쪽 사진은 글 속에서 문법 요소를 찾아서 필기한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문법 개념을 맥락과 별도로 이해하는 방법> <맥락이 있는 글 속에서 문법 요소 파악하기>

Q. 기초적인 영어 실력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 가르치는 중학교 2학년 학생도 나와 비슷하게 독해를 자주 접해서 해석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어 합니다. 하지만 영어 발음을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적이 없어, 문장을 발음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러면 듣기 실력도 약해집니다. 영어 교육의 중심이 의사소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발음과 듣기 실력을 학생들이 가장 먼저 배웠으면 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과외 학생에게 그런 기초를 가르쳐줄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학생이 평가받는 건 보통 내신과 수행평가인데, 그것들이 독해와 문법, 단어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신과 수행평가에 문법, 단어, 독해가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나는 초등학교부터 파닉스와 듣기를 선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A 15-year-old student whom I am currently tutoring learned English through various reading texts, so he does not have big



problems interpreting the text. However, as he has never been taught how to pronounce words, he had difficulties in pronunciation as well as in listening. I strongly feel the importance of learning pronunciation and improving listening skills because the paradigm of English education is shifting to communication. Unfortunately, I do not have enough time to teach my student basics to English pronunciation since students are being tested on reading skills, grammar knowledge, or vocabulary skills. Therefore, I hope elementary students get a chance to practice phonics and listening before they go to middle school where grades are most reflected on grammar or reading.



Q. 시기별로 영어 학습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위에서 말했듯이, 초등학교 때는 파닉스와 듣기를 집중적으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듣기의 경우, 파닉스에서 배웠던 단어의 발음이나 짧은 문장의 발음을 최대한 많이 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어를 많이 접하면서 기초를 다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때는 대개 문법과 독해 위주로 평가되므로 책 중 *Graded Readers* 시리즈를 많이 접하면서 독해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준별로 만들어진 *Graded Readers*는 학생들의 흥미와 실력을 고려한 좋은 독해 교재입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영어 관련 동아리나 흥미로운 원서 책을 읽으면서 일반영어 실력을 키우고, 수능에 필요한 EBS 책을 공부하는 것이 대학교 입시에 유리할 것입니다.

As I have mentioned before, I hope elementary school students practice phonics and focus on improving listening skills. In terms of listening skills, I think the best way for a natural improvement is to be exposed to words or short phrases as much

as possible. Through this procedure, students will be able to establish basic skills. For middle school students, it is crucial for them to strengthen their reading skills with Graded Readers series since you will be mostly tested on grammar and reading. I think Graded Readers series are reading materials which are considerate of students' interests and proficiency. As high school students, you need to strengthen your general English skills by joining a school activity-club related to English or by reading books written in English. In addition, you should study EBS books to prepare for Suneung.



★ 잠깐! Graded Readers란?

Graded Readers는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 사용되는 책 시리즈입니다. 광범위하고 쉬운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주로 아이들이 많이 읽습니다. 여러 단계를 나누어져 있고, 낮은 단계의 책들은 쉬운 단어와 문법을 사용하고 있어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책을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Q. 대학교에 가서도 영어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고 들었어요. 대학의 영어는 어떤가요?

글로벌 시대가 도래하면서, 영어를 통해 수업하는 건 대학에서 필수가 되었습니다. 대학을 가지 않고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회사에서 영어 능력은 꼭 필요합니다. 독해 위주의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듣기와 말하기 위주의 기초 공부는 대학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대학교에서 정해진 영어전용강좌 수업의 개수를 채워야 하고, 전공 과목도 영어로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영어 실력을 충분히 갖고 닦지 않으면 수업을 듣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In today's global world, courses taught in English have become mandatory in the university. English is even essential for those who are planning to work in a company instead of going to the university. Focusing on basic listening and speaking skills along with reading skills will be a great help when you go to university. Students are required to take several English courses and many classes in your major will be taught in English. Therefore, students may experience difficulties in taking classes unless they improve their English skills.



15학번 강창욱



“ Hello, I am Kang Chang Wook, an English Education major at Hanyang University. I hope my story can be of help when you study English. I had also experienced many difficulties but was able to overcome them using various learning strategies. I hope this provides middle school students an opportunity to not give up but continue studying English. ”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강창욱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영어

학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혼자 영어 공부를 하며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양한 공부 방법을 시도하며 극복했습니다. 영어 공부가 고민일 수 있는 중학생

여러분들께서 포기하지 않고 영어를 차근차근 공부할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우선, 전반적으로 영어를 어떻게 접했고 배우게 됐는지 궁금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단과학원에 다니며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집에 있는 가구에 적힌 영어를 보면서 '저건 무슨 말일까?' 하는 호기심 정도였습니다. 학원에서 알파벳의 주요 발음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알파벳 A는 '아', '어', '애'로 발음이 난다고 계속 외우기만 했습니다. 그때는 같은 알파벳 발음이 단어마다 다르다는 게 혼란스럽고 억지로 외우는 거도 어려워서 짜증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저렇게 몇 가지 발음을 시작 단계에서 배우고 나니 나중에는 더 편했던 거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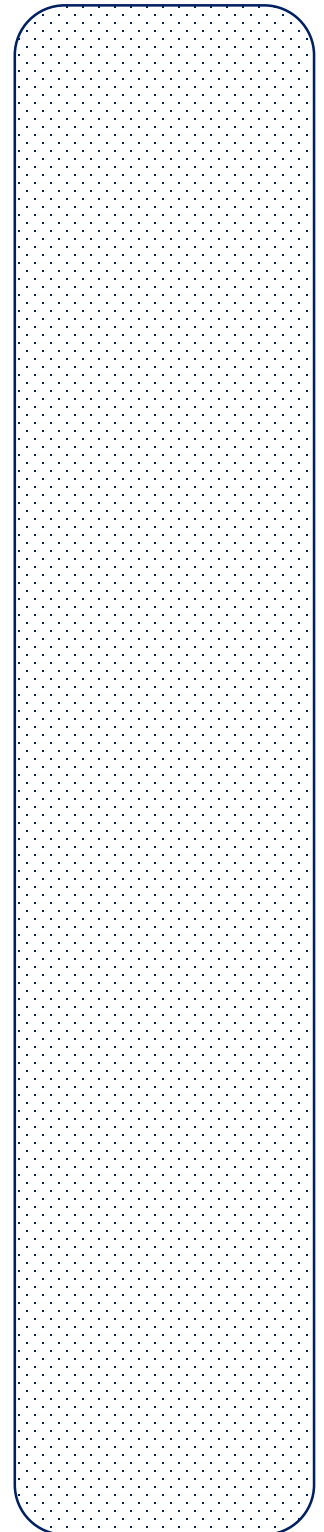
I started learning English in an academy in the second year of elementary school. I did not have any English learning experience but just was curious about English letters engraved on furniture. When I first went to the academy, my teacher started off by teaching me basic English pronunciation. For example, letter A is pronounced as *ah*, *uh*, *ae* and my teacher repeatedly told me to memorize them. Back then, it was confusing and annoying to memorize such a difficult language since alphabet letters are pronounced all differently. Now I see that learning basic pronunciation at the beginning prevented me from experiencing difficulties later on.

그 뒤에는 Butter English 출판사에서 개발한 *Look & Say* 라는 기초회화 교재와 *Stoma*라는 동화책 형식의 교재를 이용해서 공부했습니다. *Look & Say* 는 "Hi, nice to meet you. - Nice to meet you, too." 와 같은 기본적인 회화부터 심화 단계까지, 여러 권의 시리즈로 구성된 교재였습니다. 항상 단원을 시작하기 전에 원어민 교사의 비디오 파일을 재생하여 입 모양을 따라 하면서 발음을 익혔습니다. 또 교재의 내용을 여러 번 듣고 읽어보며

외우려 노력했습니다. *Stoma*는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있거나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선생님께 질문하고 내용을 노트에 3번 정도 옮겨 적었습니다. 외워야 하는 부분은 선생님께 검사를 받았습니다. 집에 가서는 CD를 재생하여 매일 정해진 양만큼 미리 듣고 하루에 단어를 10개씩 외우는 등 숙제를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확실히 영어를 처음 배울 때가 가장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알파벳을 처음 접하는 것부터, 단어를 외울 때도 철자와 발음을 익히는 게 어려워 좌절했고, 문장을 외우는 것도 힘들어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I moved on to learning English using *Look & Say* published by *Butter English* and *Stoma* - a storybook-type book - after learning the alphabets. *Look & Say* was in a series, from a very beginning level - like "Hi, nice to meet you" or "Nice to meet you too" - to an advanced level of English. At the beginning of each chapter, I listened to native speakers' pronunciation and tried to copy jaw movements. (I tried forming a certain shape by opening the jaw or changing the position of the tongue). My teacher asked me to repeat and memorize the book over and over again. I did the same for *Stoma* as well and got help on understanding the text whenever I had problems. I copied the text on a separate piece of paper for over three times and listened to CDs everyday. I also had to complete daily assignments - memorizing 10 new words each day. Now that I look back, learning English was the hardest and the most exhausting thing to do. I wanted to give up learning English because spelling the words and dealing with my awkward pronunciation or even memorizing the phrases were all just too hard.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정규 영어교육을 받으며 영어를 배웠습니다. 저의 경우엔 그 당시 학교의 영어 선생님들이 다 젊은 교사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과서를 단순히 암기하기보다는





학생들에게 영어로 말을 건네고 대답하게 하여서 영어로 간단한 한 문장이라도 말해보는 경험을 가질 수 있게 격려해주었습니다. Hangman이나 Simon Says, Cross Word Puzzle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영어에 흥미를 높여 주셨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6학년 때 수업을 하셨던 영어 선생님께서는 미국에서 오래 살다 오신 분이셨는데, 교과서의 표현에 곁들여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나 미국의 문화 같은 흥미로운 내용도 많이 가르쳐 주셔서 너무 재미있게 영어를 배웠습니다. 이때부터 영어에 흥미를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In the third year of elementary school, I learned English through school education. Teachers at school encouraged us to speak in English as much as possible or play games like *Hangman*, *Simon says*, or *crossword puzzle*. I remember my English teacher in the 6th grade who had lived in the States for a long time. She taught us expressions and introduced us to American culture which was quite interesting. I think this is when I started to grow interest in learning English.

Q.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휘라고 하던데, 그럼 어휘는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어휘 학습과 문법 학습 둘 다 영어를 막 배워나가던 시기에는 학원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문법 지식과 어휘를 통해 영어 실력을 향상했습니다. 그 후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을 때는 학원을 그만두고 학교 수업을 듣거나 스스로 영어를 공부하였습니다. 교과서나 문제집의 문장들을 혼자 분석하면서, 배웠던 문법 지식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문법 교재를 보면서 확인하였습니다. 어휘는 어휘집을 지속해서 암기하였고 모르는 어휘가 있으면 찾아서 따로 단어장에 정리하였는데 동의어나 반의어, 활용형까지 다 정리했습니다. 확실히 단어는 반복 학습을



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려서 끊임없는 반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s a beginning learner, I got extra help with improving my grammar and vocabulary skills from the academy. Then, I moved on to studying on my own when I reached a certain level. I studied expressions from the textbook or workbook to understand unfamiliar parts. I studied the vocabulary using the word book and made a separate word list of *synonyms, antonyms, or derivatives* once I came across unfamiliar words. I certainly think vocabulary knowledge is built up once you repeatedly look over the words since we all soon forget what we have learned.



Q. 저는 영어에서 문법이 가장 어려워요. 문법은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학교의 정규영어교육 과정과 더불어 학원의 도움도 지속해서 받았습니다. 영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했던 때에는 위에서 말한 저런 흥미를 일으키는 활동이나 낮은 난이도로 구성된 교재들을 사용했습니다. 그 교재들을 다 배우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서부터는 긴 글로 이뤄진 약간 난이도가 높은 책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재도 음성파일을 먼저 듣고, 여러 번 읽고 쓰고 외운 다음에 선생님께 검사를 받는 방식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초등학생이 집중력을 유지하기가 힘든 긴 글이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진학 이전에 독해능력을 완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입학 앞둔고는 문법 지식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회화교재와 동화, 독해교재를 통해 영어를 자연스럽게 배우다가 갑자기 문법이 중요하다는 to 부정사, 가정법, 조동사와 같은 문법 지식을 배우도록 하니 너무 재미도 없고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또 문법 용어들이 한자로 되어있어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I used easy books for beginner levels when I first started



learning English at school along with private academy. However, I began to use intermediate-level books with longer reading texts when I was in higher grades in elementary school. I listened to the listening files first and then repeated reading it several times even with some difficulties from a lack of concentration. This, however, really helped me improve my reading skills before going onto middle school. I also started learning grammar as well, but it was boring and hard since I had to learn grammar using difficult Sino-Korean terms like '*to infinitives*', '*subjunctives*', or '*auxiliary verbs*' (these grammar terms were in Chinese words).

Q. 기초적인 영어 실력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영어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에는 일단 단어의 학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를 읽거나 들었을 때 단어를 모르면 의미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영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시중에 판매하는 단어집 중 기본 어휘를 다룬 단어집을 사서 수록된 단어들을 완벽히 암기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단어를 암기할 때도 그냥 영어와 한국어 뜻만 외우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예문을 꼭 읽고 그 단어가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이해하면 단어를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Above all, studying basic vocabulary should be prioritized. You are likely to have problems if you cannot understand words in the texts. Getting a basic vocabulary book that introduces high-frequency words and perfectly memorizing the words will surely help improve your English proficiency. Merely memorizing the words and their meanings in Korean do not guarantee your success in English learning. Example sentences are useful sources which enhance your contextual knowledge and memorization in that they provide



concrete illustration of how the words are used in real texts.

Q. 시기별로 영어 학습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초등학교 시기에는 기본 어휘들을 익히는 데 집중하고, 만화를 보던 영어 동화책을 읽든 간에 일단 영어를 많이 듣고 접하여서 영어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하기 이전에는 바로 읽고 바로 이해하는 연습을 하여 영어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능력을 익혀야 합니다. 듣기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받아쓰기도 하여 내가 어떤 단어를 잘못 발음하고 있었고, 어떤 표현이 잘 안 들리는지 알아내고 보충해야 합니다.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it is better to be exposed to English as much as possible. I recommend you watch English cartoons or read storybooks to get used to basic words. Before you go onto middle school, practice directly understanding the texts. Learn to read English in a proper way and try dictation to improve your listening skills. This strategy will help you figure out in which part you lack, what you are unaware of, and what needs to be complemented.

중학교 진학 후부터 고등학교 시기에는 단어 하루에 20개 외우기와 같이 목표를 정하여 어휘력을 꾸준히 늘리고 문법 지식을 학습하여 올바른 영어 문장의 구조를 익혀야 합니다. 단, 문법 용어 자체의 암기에 치우치지 말고 어떻게 문장 속에서 문법 지식이 적용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또 영어 지문을 하루에 4~5개씩 읽고 영어신문도 읽으면서, 영어라는 것에 익숙해지는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이외에도 TEPS나 TOEIC, TOEFL과 같은 어학 자격증에 도전해보며 나의 영어 실력이 어떻게 향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For middle school to high school students, I suggest you set learning goals - for example, memorizing twenty words each day -





to expand your vocabulary and learn English sentence structures to improve your grammar knowledge as well. However, make sure to pay attention to how grammar rules are applied in real sentences instead of simply focusing on memorization of grammatical terms. Also, reading text-based comprehension passages or news articles helped me increase linguistic intuition. Moreover, make sure to check your English level and how much improvement you have made in general by studying for language certificates such as TEPS, TOEIC, and TOEFL.

Q. 대학교에 가서도 영어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고 들었어요. 대학의 영어는 어떤가요?

대학에 입학하면 졸업에 꼭 필요한 조건으로 영어로만 수업이 진행되는 강의(영어전용강좌)를 몇 개 정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굳이 영어전용강좌 때문이 아니더라도, 영어와 관련 없는 학과이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재가 영어로 되어있다든지, 강의가 영어전용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강의를 듣고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듣기 능력, 영어 원서를 읽기 위한 독해 능력,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쓰기, 말하기 능력과 같은 4가지 능력이 모두 필요합니다.

Since most universities require students to take several English-only courses before they graduate, students need to have at least a certain level of English skills. Besides, even if you are planning to apply for a non-English related major, basic English skills are still mandatory as advanced courses or coursebooks can be given in English. Thus, four skills – listening skills to understand the lectures, reading skills to read the coursebook, writing skills to



complete your assignments, and speaking skills - are all necessary.

A large, vertical rectangular area with a light blue dotted pattern, intended for writing a memo. It has a thin blue border and rounded corners.



15학번 김소연



“ Hello, I am Kim So Yeon, double majoring Education and English Education at Hanyang University. It is my pleasure to be able to share my experiences to students at the end of my university life. I hope this can be of help to those who are concerned with studying English. ”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교육학과와 영어교육학과를 공부 중인 15학번 김

소연입니다. 대학생활의 끝자락에서 학생들에게 제 공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기쁩니다.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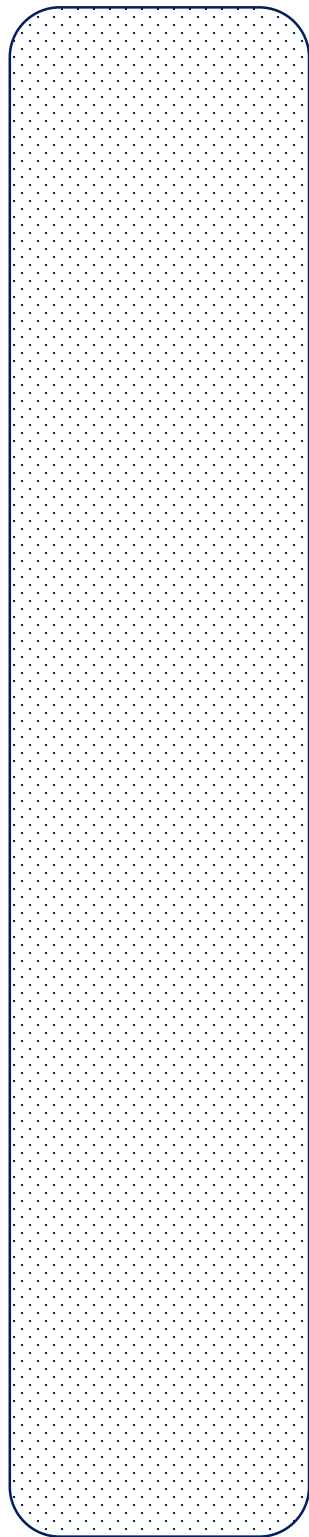
Q. 우선, 전반적으로 영어를 어떻게 접했고 배우게 됐는지 궁금해요!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영어에 관심이 없으면, 영어와 친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어를 단순한 시험 과목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흥미로운 시각으로 영어에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렸을 적 영어 팝송을 들으면서 영어에 빠져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당시에 유행했던 팝송들을 찾아 가사를 찾고, 해석해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가사의 내용을 파악하고 노래를 들으니 가사도 보다 더 잘 들리고, 훨씬 노래가 마음에도 와 닿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유명한 팝송들이 많으니, 단순히 음만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가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 번쯤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It is not easy to get used to English if you are not interested in studying the languag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approach English in your own interesting way instead of regarding it as an exam subject. I remember myself being fully immersed with English when I listened to pop songs as a young child. I tried to search the lyrics of many popular ones and practiced understanding their meaning. After practicing a while, I could fully understand the lyrics and the songs really meant something in my heart. There are so many popular pop songs these days, so I suggest you find out their lyrics and look closely into them.

Q.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휘라고 하던데, 그럼 어휘는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주로 단어 리스트의 단어를 외워 퀴즈를 보는 형식으로 단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제대로 된 어





휘 공부 방법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고, 무작정 단어 리스트를 들고 외우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외우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오래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I think there are a lot of students out there who memorize the word list and quiz themselves repeatedly. There was also a time for me when I was not aware of a proper way to study vocabulary at first and just blindly memorized everything. However, I soon realized that simple memorization is not an effective way to remember properly.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접두사와 어근, 어미를 활용하여 어휘를 외워보는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가령, 접두사 'con-'으로 시작하는 단어, 'dis-'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모아 공부하고 의미를 추론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접두사의 의미도 생각해보면서 단어의 뜻을 유추해 나가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공통점이 있는 단어들을 모아두고 공부를 하니, 훨씬 잘 외울 수 있게 되었고,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접두사, 접미사의 뜻을 이용해 추측해보는 연습도 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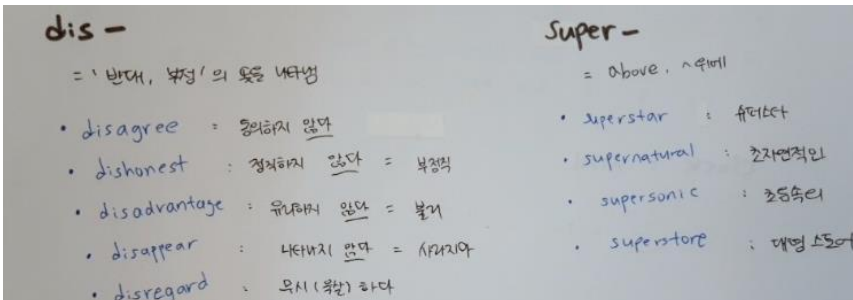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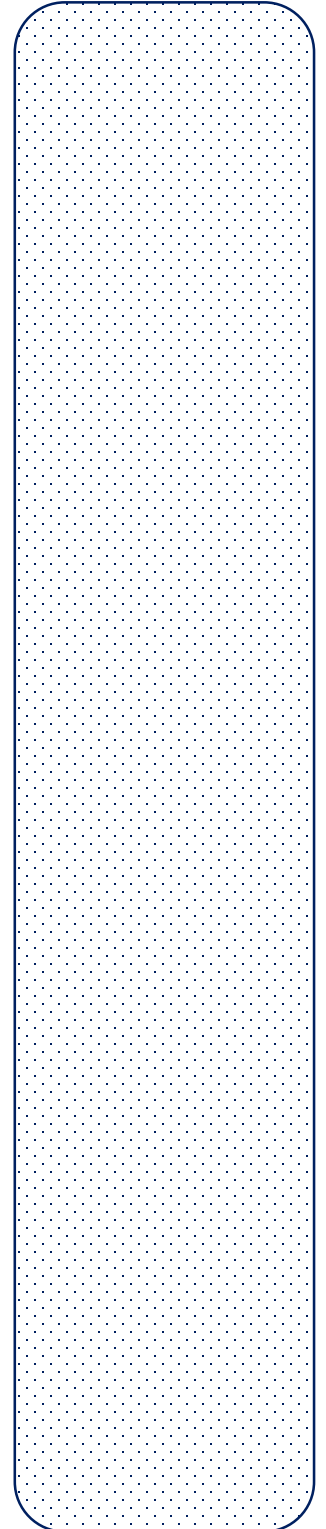
To overcome this difficulty, I tried to memorize vocabulary using affixes and roots. For example, I collected all the words starting with the prefix 'con-' or 'dis-', and practiced guessing the meaning of the words. I also guessed the meaning of a word based on the meaning of the prefix and the root. Once I collected the words that have something in common, I was better able to memorize the words and was even starting to guess unfamiliar words once I collected and studied words with common roots.

단어를 외우는데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단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주 보지 않으면 기억에서 사라지게 되므로, 꾸준히 단어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평소에 모르는 어휘가 등장하면 노트나 단어장을 만들어 옮겨 적고, 쉬는 시간이나 등하교 시간에 꾸준히 봐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단어장을 만들고 외워가다 보면, 어느새 몰랐던 단어들이 암기되어 있는 뿌듯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There can be many ways to learn vocabulary, but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consistently let yourself exposed to new words. People forget them if they are not regularly exposed to them, so continuous learning is important. Thus, make sure to make your own vocabulary list, write them down on a separate piece of paper, and repeatedly look through the list whenever you have time left. Once you create your own word list, you will experience the accomplishment you have made with words.



<접두사를 활용한 단어 외우기>

Q. 저는 영어에서 문법이 가장 어려워요. 문법은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저는 영어 공부 중 문법 과목을 공부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느꼈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이 느끼는 어려움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문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나의 문법책을 기본서로 두고 다른 책들에 언급된 내용이나 예시를 덧붙이는 방법으로 공부하였습니다. 문법책을 여러 권을 보는 것보다는, 나만의 방식으로 정리된 문법책 한 권을 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문법책을 고르는 기준은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고, 예시 문장이나 문제가 많은 문제집을 선택했습니다. 설명을 읽어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은 예시를 통해 어려움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The biggest challenge for me in studying English was grammar, as I think most students in Korea are like that as well. To overcome this difficulty, I selected one grammar book and added explanations and example sentences from other books. I thought it was much more effective to organize my own grammar book than to read several books. The criterion for selecting a good grammar book was to choose one with concrete explanations, various example sentences, and many exercises to practice with. In many cases, problems with a lack of comprehension were often solved when I read various examples.

문법 내용을 기본서로 공부한 이후에는, 저만의 문법 노트를 만들어 간략히 개념을 정리한 후, 예시 문항을 계속해서 적어 나갔습니다. 예시 문항을 정리했던 이유는 영어로 된 문장 속에서 문법 지식을 이끌어내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시험에서는 모든 지문이 영어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문법 공부를 하기 위해 만든 노트였지만, 문법 지식을 정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문장을 해석해 보면서 독해 실력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After I studied grammar with my book, I organized the concepts and example sentences into a grammar note. The reason why I added examples was to practice inductively finding out grammar rules from the given sentences. It's because, in the end, every text is in English when you take an exam. I started out making the notebook to study grammar, but at the end, I was able to not only understand grammar rules but also improve my reading skills through the example sentences.



Q. 대학교에 가서도 영어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고 들었어요. 대학의 영어는 어떤가요?



대학교에 진학해서 어떤 전공을 공부하더라도, 오늘날 대학생들에게 영어는 반드시 요구되는 기본 능력입니다. 전공 서적들도 대부분 원서이고,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한국 교육과정에서는 다소 보기 힘든 영어로 쓰고 말하는 역량이 대학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대학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어 에세이도 많고, 영어 발표 수업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영어에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노출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드라마를 보거나 해외 팝송, 혹은 라디오를 듣는 방법이 영어에 노출되면서 영어에 대한 흥미를 기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No matter what major you choose, English is the basic skill which is required to every one of you. Most coursebooks are in English, and there are many lectures given in English as well. The ability to write and speak in English is essential in universities although these are qualities not fully required in Korean middle and high school curriculum. University is a place where you can freely and naturally express your opinions in English. You will be required to write many English essays or make presentations in English, so make sure to intentionally expose yourself to English. Watching TV shows in English or listening to pop songs or radios is a good way to maximize your exposure to and grow interest in English.

몇몇 학생들은 영어가 나의 미래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어 영어를 공부하기를 싫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한 때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영어를 공부할 때는, 마냥 어렵기만 하고 제 실력이 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해외에서 영어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한국에서만 영어를 접해왔었습니다. 영어를 좋아하고 흥미



있었기에 영어와 관련된 전공을 선택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영어를 바라보는 저의 시각은 지엽적이었습니다.

Some students may refuse to study English because they think it will not be used in the future. I once also studied English just for good grades, which in turn, left me to feel frustration studying a difficult language. I have never studied English abroad, and I have been exposed to English only in Korea ever since I was young. Still, I chose English-related major because I liked English but my perspective towards the language was very narrow.

그러다 대학생이 되고,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오게 되면서 영어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영어를 듣고 말할 수 있음으로써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이 훨씬 넓어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단 미국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 그리고 미국에서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영어로 이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고,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신기한 광경들이 외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데 영어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좀 더 영어공부에 대하여 관심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However, I experienced a complete change in my perspective after I went to the States as an exchange student. I realized that using English allowed me to experience this wide world. First, I was given a chance to go out to the States and have lots of experiences thanks to my English skills. The ways people live are extraordinarily diverse, and English will be helpful to understand this world. Thinking this way will help you become a little more interested in studying English.



15학번 김재영



“ Hello, I am Kim Jae Young in the second year of English Education major at Hanyang University. I cannot say for sure that I am an advanced learner, but I would like to share my experience of learning English throughout my school years.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2학년에 재학 중인 김재영입니다. 제가 지금 영어를 잘한다

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인지는 감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초중고의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영어

를 배웠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지금의 저를 있게 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Q. 우선, 전반적으로 영어를 어떻게 접했고 배우게 됐는지 궁금해요!

저의 첫 영어 학습은 초등학교 3학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어 수업 시간에 CD에 수록된 각종 다이얼로그와 노래를 배우면서 재미있게 영어를 학습했던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때는 영어학원을 다니며 문법을 다졌고, 고등학교 때는 방황을 하여 영어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춘기가 남들보다 조금 늦게 온 저는 심적으로도 방황했지만, 갑자기 높아진 학문적 난이도에 많이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공부법을 활용하며 영어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했고, 영어에 대한 관심을 키우면서 영어교육과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My first English learning experience goes way back to the third year of elementary school. I remember learning English in a fun way by listening to English dialogues and songs in CDs. I studied grammar in English academy when I was in middle school, but had many difficulties once I went to high school. I felt mentally depressed and lost because of late puberty, but a sudden increase in the level of difficulty was very challenging for me. However, I soon overcame the difficulties by trying out various learning strategies, and this interest in English led me to major English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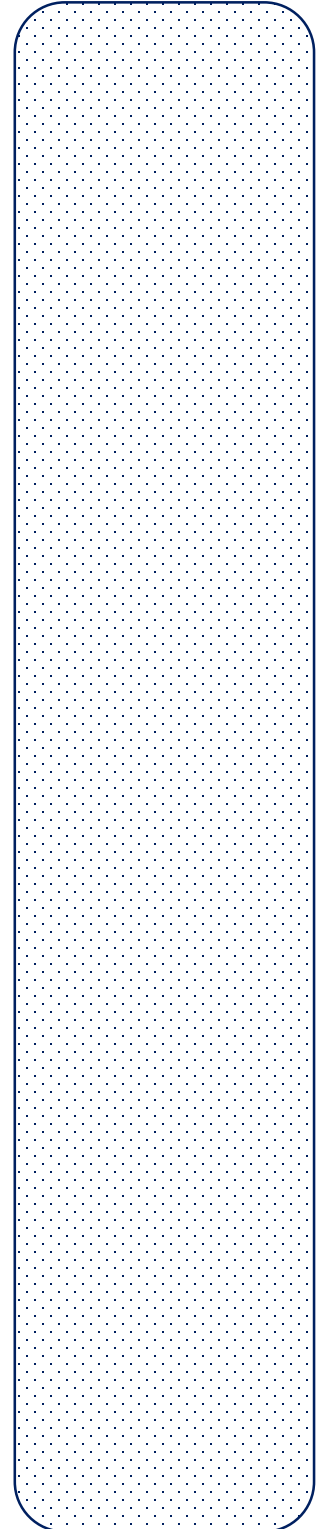
Q.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휘라고 하던데, 그럼 어휘는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저는 최대한 재미있는 방법으로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휘 뿐 아니라 발음 등 전반적인 영역에 해당합니다. 학교에서는 영어로 된 소설책이나 영어신문 등의 원서에서 발췌된 지문이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성적도 좋지 않았고, 자신감도 많이 떨어졌습니



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재미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원어민 선생님이 진행하는 영어 수업이었습니다. Corey, Ian 그리고 Maggie 원어민 선생님들은 최대한 재미있는 방식으로 영어 학습에 접근했는데, 방법이 모두 새로웠습니다. 카드놀이나 역할극 등 그분들과 했던 여러 게임이 생각납니다. 발음과 억양이 다른 여러 나라의 원어민 선생님들과 영어로 대화하며 다양성의 개념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말하기 실력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자연스럽게 어휘를 맥락에서 접하게 되기 때문에 단어를 강제로 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선생님들은 저에게 영어에 대해 너무 부담 갖지 말라며, 네가 잘하는 것을 하라며 다독여 주셨습니다. 이는 영어 단어를 하루에 몇 개씩 외워야 한다고 압박을 느끼는 많은 학생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단어를 억지로 외우기보다는 단어가 사용되는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하게 공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I think studying English in a fun way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his applies not only for vocabulary, but also for everything including pronunciation. We were tested on English novels or news articles at school, so my confidence was shaken after having failed many tests. However, I remember very interesting classes run by native teachers. Corey, Ian and Maggie tried to introduce us English lessons in a variety of new ways. For example, I remember playing card games or role plays in English. This helped me understand 'various cultures' since I was exposed to many native speakers with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 and my speaking skills also improved. I was also able to naturally acquire English words in context since I was not forced to memorize them. My teachers especially encouraged me to do what I was good at and told me not to feel any burden in studying English. This is what I want to advise many





students out there who feel pressure in learning English. Understanding the situations and contextual background of where the words are used is much important, so don't feel stressed in studying English.

Q. 저는 영어에서 문법이 가장 어려워요. 문법은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중학교 때는 각종 독해 교재를 가지고 문장을 분석하며 문법을 배웠습니다. 지금 영어 실력의 기초가 된 문법 실력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어려운 문법 개념 때문에 울기도 하고 숙제도 제때 못 끝내서 혼난 적도 많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의미 깊은 시간이었습니니다. 문법 개념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통째로 기억하고 반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문법 개념을 설명해주는 방법으로 많이 공부했는데,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내가 완벽히 알아야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부족한 부분도 찾으면서 복습도 하는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I analyzed sentences in reading passages to study grammar back in middle school. My basic skills are developed from this. I sometimes cried due to unfamiliar grammar concepts and was scolded because I did not finish my homework, but it was all worthwhile in the end. Grammar concepts are better acquired once you understand them rather than memorizing them, but sometimes when difficult to understand some points, memorizing and repeating them in whole can help deal with them well. Also, it was effective to *explain grammar concepts to my friends*. You can only explain it once you fully understand what you are explaining, so this helps you figure out what you missed and what to complement.



Q.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언해주고 싶은 것이 있나요?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은 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약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흔히 말하는 ‘네이티브’(영어를 모국어처럼 배운 사람)가 아닙니다. 외국에서 공부를 해 본 적도 없고 외국인과 대화를 많이 해 본 편도 아니지만, 지금 외국에 혼자 남겨지더라도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영어 실력이 좋지 못해서 좌절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젊고, 시간은 많습니다. 누구나 잘하는 것은 있습니다. 만약 공부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영어를 잘 하는 친구들이 부러우시다고요? 너무 부러워하지는 마세요. 여러분도 노력만 있으면 누구나 영어를 잘할 수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자신이 비참해집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와 비교되어 평가절하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그 자체로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I want to tell you two things. The first is not to become weak. I am not a so-called native (a person who acquired English as the first language). I have never been abroad and I have not talked to native speakers a lot, but now I am confident enough to somehow survive in a foreign country even when I am left there alone. Your English skills may not be good enough, and you may become frustrated or be worried about many things. However, you are young, and you have a plenty of time left. Everyone is good at something. Think about what you are good at if you really feel like giving up your studying. The second thing is not to compare yourself with others. Do you envy your friends who speak English well? Don't be. You can also speak English well once you try. You will



feel miserable when you start comparing yourself with others. Remember that you are not a person to be devaluated by measuring oneself against others. Remember, you are special just by being yourself.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dotted pattern, intended for writing a memo.



15학번 신승연



“ Hello, I am Shin Seung Yeon majoring English Education at Hanyang university. I hope I help you see a wider world by realizing that English is a tool of communication rather than just a subject to study. Also, I want to become a teacher who always thinks from a student's point of view. ”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에 재학중인 15 신승연입니다. 저는 학생들이

영어가 학문이 아닌 소통의 수단이라는 점을 깨닫게 해주어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싶습니다. 또한 재미있고 활기찬 영어수업을 위해, 아이들의 관점에서 항상 생각하고

노력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Q. 우선, 전반적으로 영어를 어떻게 접했고 배우게 됐는지 궁금해요!

유치원에 다닐 때, 부모님께서 시켜주신 학습지로 영어를 처음 접했습니다. 씽크빅이라는 학습지였는데, 교재와 오디오 테이프를 통해 기본 단어부터 학습했습니다. 영어가 낯설었고, 교재의 표지가 어두워서 영어에 대한 첫인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학습지는 몇 달 하지 못한 채 그만두게 되었고,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부모님이 집에서 항상 틀어주시는 원어민 교사가 나오는 비디오를 지겹게 보았습니다. 영어를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비디오에 나오는 율동이나 노래가 신나서 꽤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이때 들었던 비디오가 이후 영어를 배울 때, 발음이나 이해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I was first exposed to English when I was in the kindergarten through a home-study material called *ThinkBic*. I started off my learning with simple words from the textbooks and audio tapes. English was unfamiliar and the cover was dark, so I didn't have a good first impression of English. I soon quit and moved on to watching video clips of native speakers over and over again. I did not fully understand English, but the dance routines and songs were quite interesting. I think this really helped me when I went on to middle and high school.

본격적으로 알파벳을 배우고 영어라는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것은 11, 12살쯤인 것 같습니다. 학원에서는 스토리북을 교재로 사용했고, 매일 가서 오디오 테이프를 영어 이야기를 들었고, 부가적으로 문법 수업을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본격적인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기초 영어 단어가 중, 고등학교의 영어 공부에서 튼튼한 기초가 되어주었습니다. 중,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학교 영어 수업과 관련된 본문 내용 공부하기, 모의고사 공부하기, 문법 공부하기가 주된 영어 공부였습니다. 독해와 단어밖에 공부하지 않아서 다른 영역의 영어(듣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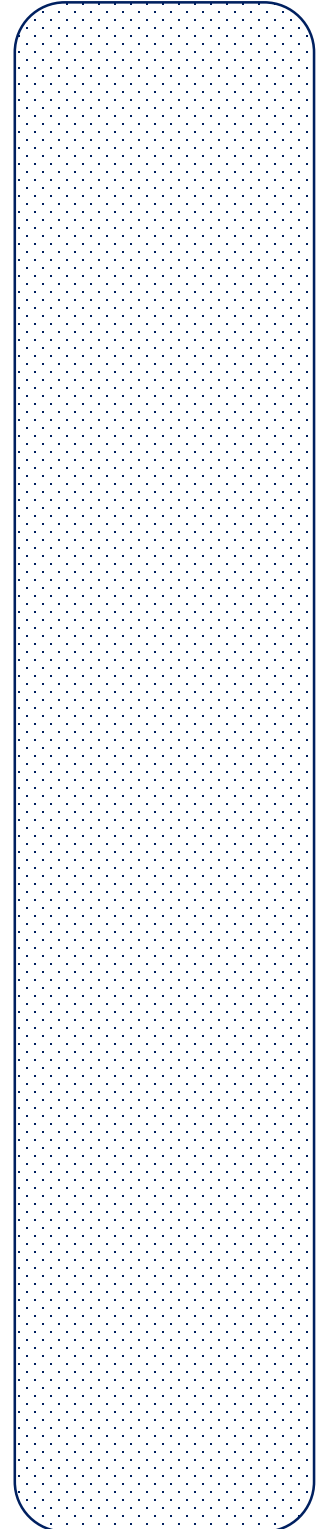


말하기, 쓰기)가 다른 친구들보다 비교적 약합니다. 영어 소설은 따로 읽지 않았습니니다.

It was in the fourth grade when I first properly learned the English alphabet. I started learning English at school in the third grade but only passively participated in class. I think the first time I properly started learning English was when I was 11 or 12. The academy used storybooks as teaching materials, and I went there every day to listen to stories using audio tapes and to take grammar classes. By that time, I knew many words and was able to build a foundation which helped me move on to middle and high school. In secondary school I started studying reading passages, prepared for mock tests, and studied grammar rules. My listening, speaking, and writing skills were relatively low since I only focused on reading and memorizing vocabulary.

Q.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휘라고 하던데, 그럼 어휘는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암기력이 좋은 편이었기 때문에 단어를 외우는 것은 힘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끈기가 부족해 영어 학원을 열심히 다니지도 않았고, 자주 옮기기도 해서 한 권의 단어책도 잘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텍스트를 꾸준히 접하고, 학교 영어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 단어가 부족함이 없었던 거 같습니다. 내가 영어 단어를 학습하면서 중요하다고 느낀 건 꾸준히 자주 보는 것과 맥락 안에서 외우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단어 시험 전날에만 단어를 보고, 그 외에 시간에는 단어를 보지 않는다면 결국 까먹을 것이고, 단편적인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하루에 조금씩, 그리고 당장 외워지지 않더라도 그냥 눈으로 읽고 머리에 넣는다는 생각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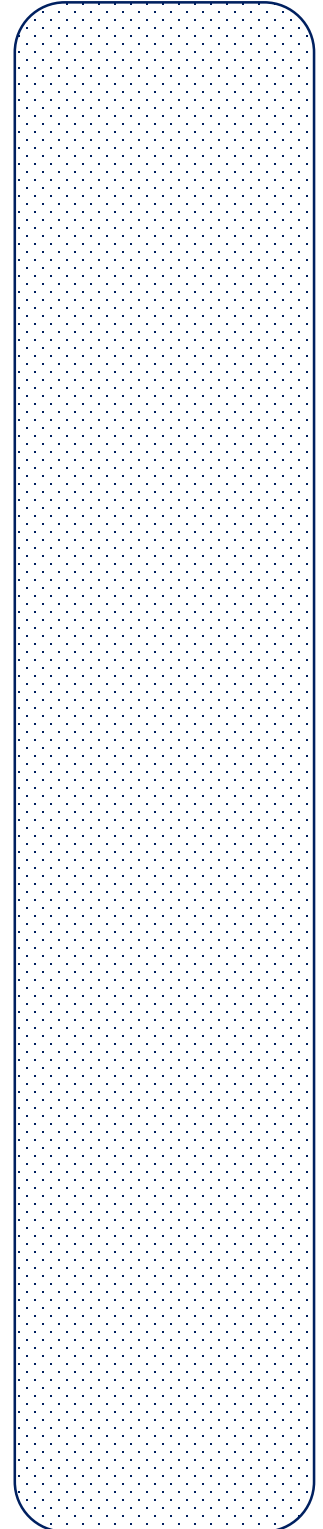
Memorizing vocabulary was not that difficult as I had a good memory but sticking to it required perseverance - a quality I seemed to lack. I could not keep up with the same academy for long, and therefore could not complete a single word book. Still, I came across various reading texts and kept up my school work, so I think studying vocabulary was enough. However, if there are a few things I learned while studying vocabulary, they are repetitive noticing and understanding the words in the context. You are likely to forget the words if you only look at the word list right before the exam, so it is better to look through the words bit by bit **every day** even though you feel they are not completely in your head.

첫날은 그냥 발음과 뜻만 읽어보았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어려운 단어의 쓰임과 의미를 반복해서 보았고, 그래도 어렵게 느껴지는 단어는 따로 정리해서 그 단어와 나와의 '연결'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단어는 이때 찾아봤지?', '사전 왼쪽에 이런 글귀도 있었어.', '아 이렇게 쓰이는구나!' 등등, 나만의 생각에 단어를 집어넣으면 다음번에는 좀 더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친해지지 않는 단어는 말장난을 통해서나 핸드폰 메모장에 적어두거나,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로 적어보는 등 친해지는 노력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중학교 학생들에게는 어려운 단어에 매달리기보다는 기초 단어를 확실히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주고 싶습니다. 단어의 발음과 쓰임, 직접 작문까지 해보면서 정확한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후 고등학교의 심화 영어에 기반이 되는 영어 학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Take a look at how the word is pronounced or what it means on the first day, then look at unfamiliar words once again the next day. If the words are still unfamiliar to you, make a separate word list and create your own word book by adding extra information. This is how you build connection between you and the words. Thinking aloud like the following will help you get used to unfamiliar



words. 'I looked into this word at that time' or 'there was a phrase on the left side of the page in the dictionary' or 'this is how the word is actually used in real situations.' Get used to the words! Make a pun or do a wordplay using the words, or write them in a cell phone memo, or use it as your status message. I would like to advise middle school students that getting a grip of basic vocabulary is more important than learning hard words. Understand the exact pronunciation, usage, and its meaning. Try the words in your writing and use them in your real life to prepare for your advanced high school English.



★ 단어를 학습한 방법

em·pathy

미국 영국 [ˈempəθi] 미국식 [ˈempəθi] 영국식 [ˈem-pə-thi]

파생형 명사형 empathist

출판사별 [?] **옥스퍼드** 동아출판 YBM 교학사 유스림 명명사전

말사

명사

[U] ~ (with sb/sth) | ~ (for sb/sth) | ~ (between A and B) 감정여업, 공감
the writer's imaginative **empathy** with his subject

"They need to learn **empathy** at a young age."

A Deadly Wandering: A Mystery, a Landmark Investigation, a Science of Attention in the Digital Age

He tried to evince some **empathy** for them in his book
Newjack: Guarding Sing Sing

Small gestures, words, **empathies** thought to be extinct
Stargirl

<단어의 쓰임과 의미 검색>

다영

Always have empathy for others!

Empathy : 공감

The writer's empathy with the readers

The ability to share with the others

<생활 속 응용 (카카오톡 상태메시지, 메포장 속 나만의 정리)>

Q. 저는 영어에서 문법이 가장 어려워요. 문법은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문법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지겹게 공부했던 터라 제일 자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어렵게 느껴졌던 건 언어라는 게 쓰임이 다양하고 예외가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왜 예외지?'라는 궁금증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만들어진 규칙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논리적이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외국인은 이렇게 쓴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I had high confidence in grammar because I studied it throughout elementary school to high school. The biggest challenge, however, was that language is used in various situations and there are many exceptions, so I always had a question of *why* all the time. Also, some are idiomatic expressions to which logic or direct translation does not apply, so it was hard to accept the fact that some expressions are used in these days.

따라서 문법 자체에 치중하기보다는 읽거나 쓰기 위한 하나의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중, 고등학교 때의 영어 문법 문제는 그저 규칙을 외우면 풀 수 있기에 문법의 핵심을 기억하려 했습니다. 문법이 중요해 보이기는 하지만 너무 문법에 치우쳐서 다른 영역의 영어학습을 소홀히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문법의 핵심을 외우면서도 균형을 잡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Therefore, I tried to consider grammar as one of many language tools rather than focusing on grammar itself. I also tried to remember core concepts since simple memorization of grammar rules is enough for middle and high school English. Grammar seems vital, but pushing grammar as your central learning and de-emphasizing other skills is a bad idea.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key points in grammar and maintaining balance in all skills at the same time.

Q. 기초적인 영어 실력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언어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순서로 배워야 제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초는 영어 듣기와 말하기가 우선시 되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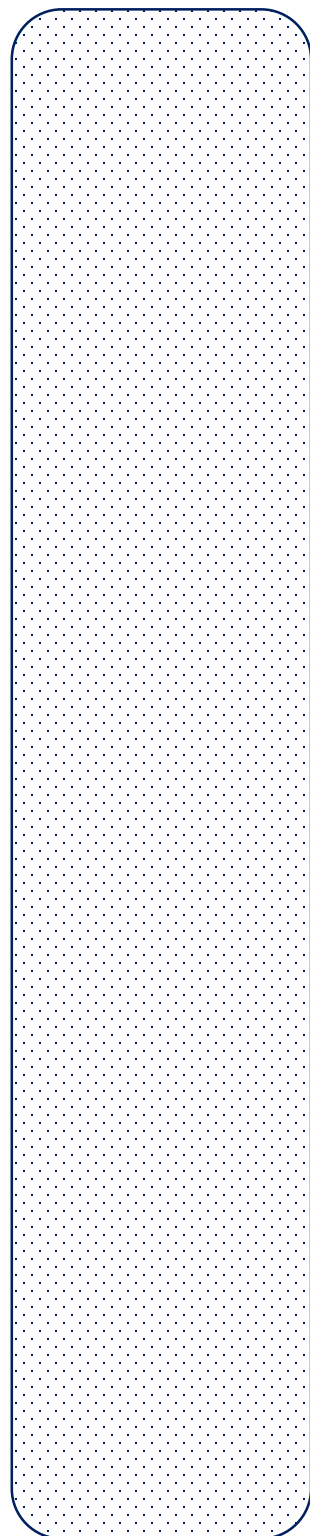


합니다.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더라도 발음기호는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끔 과외를 할 때 학생들을 보면 초등학교 때 파닉스나 기초 알파벳 발음을 배운 적이 없어서 읽는 것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듣고 발음 할 수 있어야 영어 학습이 더 쉬워집니다. 따라서 영어실력의 기초는 듣고 발음할 수 있게 시간을 많이 투자한 다음 단어들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배운 단어들을 이용해 읽기를 배우고, 쓰기까지 확장되는 단계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현재 영어의 기초가 전혀 없다면, 약 두 달 동안은 단어책을 사서 단어를 읽고 말하고 외우는 데만 시간을 투자해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I think all listening, speaking, reading, and writing skills are prerequisite to properly use the language. Therefore, you need to know the basics in English listening and speaking. You don't need to be advanced enough to have a conversation, but you should be able to correctly read out the words. Sometimes my students in private tutoring have trouble reading English since they have never learned Phonics or pronunciation of alphabet letters. Therefore, as beginners, you should learn many words, spend extra time listening and speaking, and use the words in your writing and reading to expand your knowledge. This step-by-step learning process is required. If you do not have any basis, I suggest you buy a word book and read it repeatedly for a few months to memorize new words.

Q. 시기별로 영어 학습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초등학교 때는 영어에 대한 흥미를 키우기 위해 재미있는 교재로 알파벳과 단어를 익히고, 말하기에 대한 경험을 많이 쌓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아이들이 가장 편견이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수업을 들으면서, 영어로 말해보고 다양한 단어들을 접하는 것이 후에 영어학습에 대한 이미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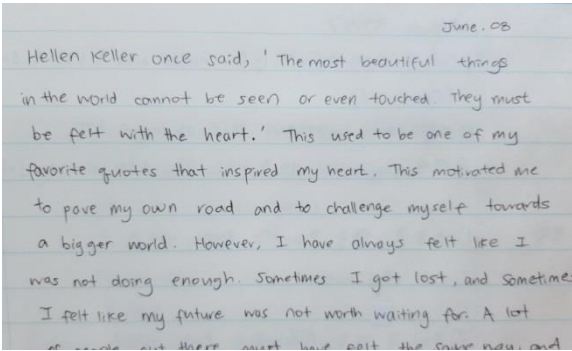


동기부여에 좋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중학교 때는 영어 읽기와 짧은 글을 써보는 활동을 하면서 단어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일기를 써 본다든가 교과서 본문을 그대로 써 보는 등 영어를 활용하는 경험을 통해 읽기와 쓰기를 동시에 익히는 게 좋습니다. 또한 영어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영화를 많이 보는 것이 영어 학습에 상당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입시 시험 위주의 영어 학습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영어의 독해력과 논리적으로 글을 읽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수능 영어 시험의 빈칸 추론이나 문단의 순서와 같은 시험 문제들은 얼마나 논리적으로 글을 이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고등학생부터는 단순한 언어 실력 뿐만 아니라, 논리력과 사고력을 함께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In elementary school, I think you need to learn alphabet letters and words through interesting textbooks and having many speaking opportunities. Many students at that age are not biased towards the second language, so English learning experience like speaking and learning different words in class will positively motivate you. In middle school, try reading or writing a short text using the words you have learned to expand your knowledge. *Writing a journal or copying down textbook passages* will also help you. Also, if you like watching movies or TV shows, use movies as a learning tool as it can motivate your English learning. When you go to high school, you should practice reading English texts in a logical way as exam-based learning is inevitable. Suenung reading comprehension tests or inference questions all require logical reading skills. Therefore, growing your logical reasoning and thinking skills is important once you are in high school.



★ 생활 속에서 단어를 활용하다!



< 다이어리를 영어로 작성하기 >



Q. 대학교에 가서도 영어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고 들었어요. 대학의 영어는 어떤가요?

우선 내가 진학한 과가 영어 교육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업이 영어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영어 듣기 실력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수업을 따라가기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에 말하기 실력도 갖춰져야 하며, 전공 책이 대부분 어려운 영어로 되어있어서 독해력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더불어 쓰기는 언어의 꽃이기 때문에 영어교육과 학생이라면 최종적으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4가지 영역이 모두 중요합니다. 대학 영어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큰 어려움을 느꼈던 것은 아무래도 영어 듣기입니다. 수능 영어 듣기를 제외하면 평소에 영어 듣기를 많이 학습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 대학 수업을 들을 때 수업에 전혀 따라갈 수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영어 수업을 들으면 어느 정도 향상되겠지만, '고등학교 때 보다 영어 듣기에 많이 투자했다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영어 독해입니다. 전공 책에 나오는 영어단어는 특수한 전공용어인 경우가 많지만, 기본적인 글의 구조를 이해하고 수능 문제를 풀 정도라면, 사전을 이용해 충분히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Most lectures are given in English since my major is English Education. Therefore, it is hard to catch up with the class if basic



listening skill is not developed. Both speaking skills and reading skills are required for participation in class and a full understanding of the book. I cannot emphasize writing skills too much to non-English major students, but all four skills are significant as writing is a core skill to those who major in English. The biggest challenge in university for me was listening. I have not trained myself enough for English listening except for the Suenung listening exam, so it was rather difficult to keep up with the class in the beginning. Of course, repeated listening can enhance one's skill, but I regret I could not study English listening enough back in high school. The next important is a reading skill. Many university-level books elaborate terms in English, but it will not be hard to understand the books as long as you can read and solve Suneung reading comprehension questions.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blue border and a light blue dotted background, intended for taking notes.



15학년 안소정



“ I am Ahn So Jeong, an English Education major at Hanyang University. I hope my experience can be helpful to many middle school students. ”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전공하는 안소정이라고 합니다. 제 경험이 많은

중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우선, 전반적으로 영어를 어떻게 접했고 배우게 됐는지 궁금해요!

난 영어를 비교적 이른 나이에 접했지만, 어린 나이부터 들인 시간과 노력에 비해 영어 실력이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부터 영어학습지로 알파벳을 비롯한 기본 단어들을 익혔고, 초등학생이 된 후부터는 다양한 영어학원에 다니면서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내가 영어에 들인 시간에 비해서 영어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고 시험 성적도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영어에 대한 나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을 때부터 영어 실력이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I was exposed to English at a relatively early age, but I was not good at using English compared to the time and effort I had put in since I was young. I had learned alphabet and basic words in preschool, and I studied English in various private academies after I went to elementary school. However, both my English skills and English test scores were low compared to the time I had spent in studying English until I graduated Elementary school. Now that I think about it, my English skill has improved a lot ever since I had changed my perspective on English.

중학교 1학년 때 외국에서 잠깐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영어가 공부해야 할 과목이 아니라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 쓰는 도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걸 굳이 외국에서 공부해야만 느낄 수 있는 점은 아니고 국내에서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영어를 항상 학원이나 학교에서 공부만 하다 보니까 재미를 느끼기 힘들었습니다. 당연히 외국에서 공부했다고 영어를 갑자기 잘하게 된 것은 아니었고 생각이 바뀌게 되니까 한국에 와서도 조금은 즐겁게 공부를 하게 된 것이 실력이 늘게 된 이유인 거 같습니다. 그 이후엔 영어로 된 영화를 보거나 노래를 들으면서 영어를 굳이 공부한다는 생각 없이 스스로 찾아보고 접하게 된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I had a chance to study abroad for a while in the first year of middle school. For the first time, I felt that English was *not a subject to study, but rather a tool that we use for communication*. This is not something you realize just because you studied abroad. It is something you can think through in Korea as well. However, it was hard to feel interested in English since I was always in school or private academy to study. Improvement in my English skills surely was not simply due to my experience abroad. Rather, a change in my perspective helped me study English in a more interesting way when I came back to Korea. I started watching movies or listened to pop songs without necessarily having to think that English is something you must study.



Q.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휘라고 하던데, 그럼 어휘는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내가 어휘를 공부하는 데 제일 어려웠던 점은 단어를 외워도 계속 까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로 학교나 학원에서 단어 시험을 볼 때 단어장에 있는 단어들을 기계적으로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단어를 외우면 머리에 남는 단어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휘를 습득할 때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은 읽거나 듣기를 할 때 사용한 단어들을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영어로 글을 읽을 때 봤던 단어들은 억지로 의미를 외우려 하지 않아도 그 글의 전체 내용을 파악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기 때문에 기억에 더 잘 남습니다. 영 단어 책을 사서 단어를 외우는 방법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어장을 만들어도 본인이 읽거나 듣기를 할 때 알게 된 단어들을 스스로 정리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단어를 공부하게 되면 그 단어들이 쓰이는 문맥까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단어를 공부할 때



하나의 뜻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을 함께 보고 활용형까지 익히는 게, 다음에 그 단어를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읽거나 듣기를 하고 나서 모르거나 헷갈렸던 단어들을 공책에 정리하고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 적어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또한, 꼭 공부한 단어의 발음까지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단어의 철자만 익히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단어를 제대로 알려면 의미뿐만 아니라 정확한 발음도 알아야 합니다.

The biggest challenge in studying vocabulary was that I kept forgetting words that I had memorized. I often studied words through rote memorization to prepare for exams, but most of them faded away after time. The most effective way was to remember the words used in reading or listening texts. I do not recommend you to buy an English word book for simple memorization. Instead, try making your own list of words you learned from reading texts. This will help you understand the context in which the words are used in real texts. Also, I made a list of words and used them in making my own example sentences once I came across unfamiliar words in reading or listening texts. In addition, make sure you know the exact pronunciation of the words you learn. In many cases students only focus on spelling the words, but it is important to know how it is exactly pronounced as well as their meanings.

Q. 저는 영어에서 문법이 가장 어려워요. 문법은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영어 문법이 어려운 부분은 우리말과 말의 순서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영어 문장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모르면 문장을 해석하거나 만들기 어렵습니다. 내가 영어 문법을 배울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문법책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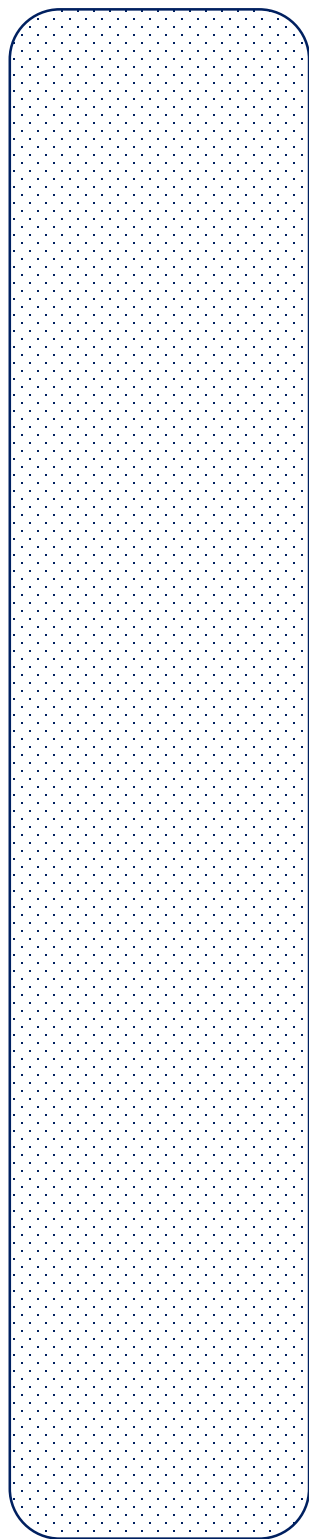


용어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문법책들은 거의 한자로 된 용어를 사용해서 문법을 정리해 놓은 것들인데, 굉장히 딱딱하고 재미가 없었습니다. 처음 문법을 배울 때 이런 게 아니라 외국에서 나오는 문법책으로 공부를 했던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었습니다. 문법 용어에 의지해 문법을 공부한다는 마음보다는 많은 영어 문장을 접해보고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문법 용어들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장을 제대로 쓰고 구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글을 접해보는 게 좋습니다. 나는 단어 공부법과 같이 문법도 그날 배운 문법을 활용해서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법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됩니다.

The biggest challenge in English grammar for me was the difference in sentence structure. It is hard to understand or make sentences in English if you lack the knowledge of what the sentences are made of. I also had difficulties with grammar terms. Most grammar books use Sino-Korean terms and they are difficult and boring. When I first learned grammar, foreign-published grammar books were more helpful than Korean grammar books. Understanding the principles of sentence structure is more important than relying on grammar terms to properly study grammar. It is important to be exposed to a variety of texts since knowing how to write or use sentences properly is more important than just having grammar knowledge. This will help you understand how grammar is used in actual texts.

Q. 기초적인 영어 실력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휘와 문법 지식만으로는 영어를 실제로 이해하거나 구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어의 발음이나 음운체계를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영어에 많이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수준에 맞는 너무 어렵지 않은 영어로 된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영상들은 실생활에서 쓰는 영어가 나오기 때문에 책에서 보는 영어보다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영화나 드라마를 그냥 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더욱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영 자막을 사용해 영상을 보고 인물들의 대사를 소리 내어 따라 해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반복해서 보는 바람에, 나중에는 자막 없이 봐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대사에서 나온 표현들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자신이 평소에 흥미 있는 것을 영어로 보는 것이 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면 영어책을 보고,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하면 외국 팝송을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일기를 영어로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 부담이 없이 자연스럽게 영어가 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 언어를 쓰는 문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에 담긴 문화나 배경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영어 사용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합니다.

Having only vocabulary and grammar knowledge is not enough to understand or use English in real life. It is important to learn the English pronunciation or phonetic system. It helps being exposed to various situations where you can use English and watch videos or TV shows at your level. They show how English is used in real life, so you will find them more interesting than books. Simply watching them can be helpful, but I suggest you read out the lines using the subtitles of the movies to study more effectively. I watched my favorite movie repeatedly, and later on I understood everything even without the subtitles. You can try other things in English as well. Read English novels if you like reading, listen to pop



songs if you enjoy music, or you can even write your own journal in English. English becomes a fun hobby once you turn it into something you enjoy. Also, English reflects cultures since it is a language. Therefore, keeping up your ongoing interest in culture is important since cultural background knowledge can be a basis in using Engli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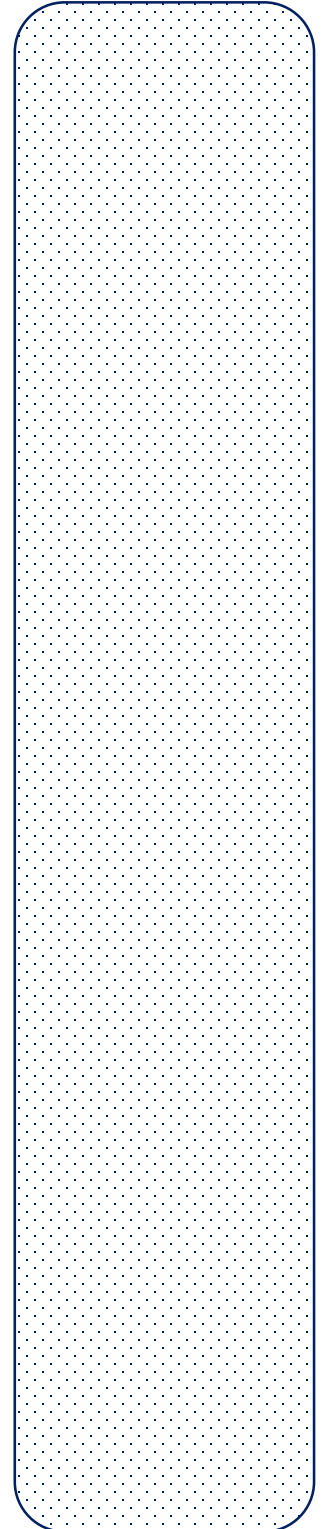
Q. 시기별로 영어 학습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초등학교까지는 최대한 영어의 흥미를 초점으로 학습을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영어를 접할 때 공부로 생각하기보다는 대화하기 위한 언어적 도구라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친구들과 영어 게임을 하는 것이 영어에 흥미를 느끼도록 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겁니다.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studying English with as much interest as possible is important. Don't think of English as a subject to learn, but rather a linguistic tool to carry out conversation. Playing English games with your friends can help you feel more interested in English.

중학생이 된 후엔 문법과 어휘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공부를 꾸준히 해서 기초를 탄탄히 쌓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문법적인 지식을 한 번 정리하면 웬만한 문장도 쓸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글을 통해서 필수 어휘를 습득할 수도 있습니다. 지식을 쌓으면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영어를 계속 접하면서 영어의 억양, 발음 등에 관한 학습도 해 나가야 합니다.

When you are in middle school, you should lay the ground work since learning basic grammar and vocabulary is necessary. You will be able to make quite a lot of sentences once you go through basic grammar. You can also learn essential words through





reading various texts. Continue to build knowledge in your field with English and grow linguistic intuition or pronunciation skills along the way.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좀 더 전문적이고 수준이 있는 글도 읽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양한 글을 해석해보고 자신의 생각도 써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다양한 어휘를 습득해서 자신의 영어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Once you are in high school, reading various texts and writing your thoughts down in English will help you read advanced-level texts. It is crucial to expand your linguistic range by learning a variety of words.

Q. 대학교에 가서도 영어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고 들었어요. 대학의 영어는 어떤가요?

대학에 들어가면 많은 수업이 영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휘 실력이 떨어지면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수준 있는 영어 글을 많이 읽어보고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충분히 대학에 가서도 불편함 없이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Many lectures are given in English in university, so it may be hard to catch up in class if you lack of vocabulary knowledge. Therefore, you will be able to study in college without any trouble when you read many advanced-level texts and make them yours.



15학번 장경현



“ Hello, I am Jang Kyung Hyun. I am currently double majoring Education and English Education. It is a big pleasure for me to help middle school students by sharing my experience. ”

안녕하세요, 교육학과 영어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장경현입니다. 제 경험을 나눔으로써

중학생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Q. 우선, 전반적으로 영어를 어떻게 접했고 배우게 됐는지 궁금해요!



처음 영어를 접하게 된 시기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저학년을 위한 영어 교과 수업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지만, 주변의 친구들을 따라서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함께 엄마한테 배우거나, 학원 선생님이신 친구 어머니의 학원에 가서 배우는 등 천천히 영어를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I was first exposed to English in the lower grades in elementary school. We had no English classes in the official school curriculum, but I tagged along with my friends to private academy to learn English. I gradually started to learn English in many ways, such as learning from my mother or my mother's friend in her academy.

나는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학교 선생님이 알려주고 시키는 것을 열심히 대답하면서 수업에 임했습니다. 학교 수업은 교과서를 통해 특정 표현을 문장 단위로 배우고 노래 부르기 부분에서 노래로 단어나 표현을 외웠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영어 공부 방법은 짧은 영어 동화책을 CD로 들으면서 반복해서 읽고, 거기에서 나온 영어단어를 암기하는 등의 공부를 하였습니다. CD로 되어있지 않은 영어책들도 많이 사 읽었습니다.

I participated with enthusiasm in school classes by following instructions and actively answering questions. I remember learning English phrases and expressions in textbooks or memorizing words by singing songs with words in them. When I was in the fifth grade, I repeatedly listened to storybooks using CDs, and memorized vocabulary based on the text. I also bought many storybooks without CDs as well.

이후에 중학교를 다닐 때는 학교에서 주는 학습지를 노트에 붙이고 선생님이 해주시는 설명을 최대한 빠짐없이 받아 적는 식으로 영어공부를 하였습니다. 중학교 때 다녔던 영어 학원은 평소에 TEPS 시험 기반으로 독해, 어휘, 문법 수업을 나가고, 학교 시험기간에는 교과서 관련 문제를 대량으로 풀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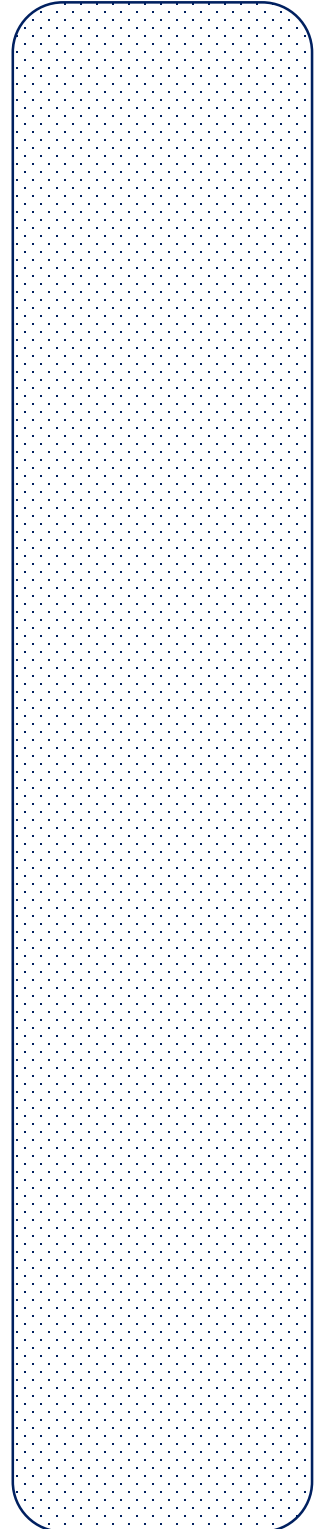
In middle school, I copied down worksheets on a separate piece of paper and took notes at school to study English. I improved my reading skills, vocabulary skills, and grammar skills based on TEPS preparation books in the private academy, and prepared for school exams by solving tons of textbook-related questions during midterm or final weeks.

★ 텡스(TEPS) 시험이란?

TEPS(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는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연구해 만들어낸 실전 영어 능력평가입니다! 영어를 외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어숙련도를 평가하는 공인어학시험입니다. 영어 해석력은 물론이고 언어적인 논리력까지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Q.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휘라고 하던데, 그럼 어휘는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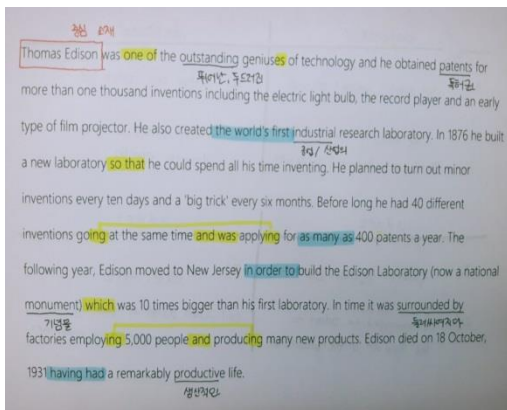
나는 어휘 공부를 이렇게 했으며 단정 지을 만한 공부 방법이 없습니다. 어휘 공부를 하기 위해 어휘 책을 따로 사서 공부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학원에서 반 강제적으로 매주 시험을 치는 경우 이외에는 어휘를 공부하기 위해 시간을 따로 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어 책을 읽거나 교과서 본문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가 많으면 내심 걱정이 되면서 어휘책을 사야하나 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나마 선택한 것은 본문에서 마주한 단어는 기억하자





것이었습니다. 맥락 속에서 읽으면서 외우면 그나마 단순 암기라는 느낌이 적어서 새로운 단어를 받아들임에 거부감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상과 관련된 미드를 영어자막과 한글 자막을 함께 깔고 보면서 새로운 어휘를 많이 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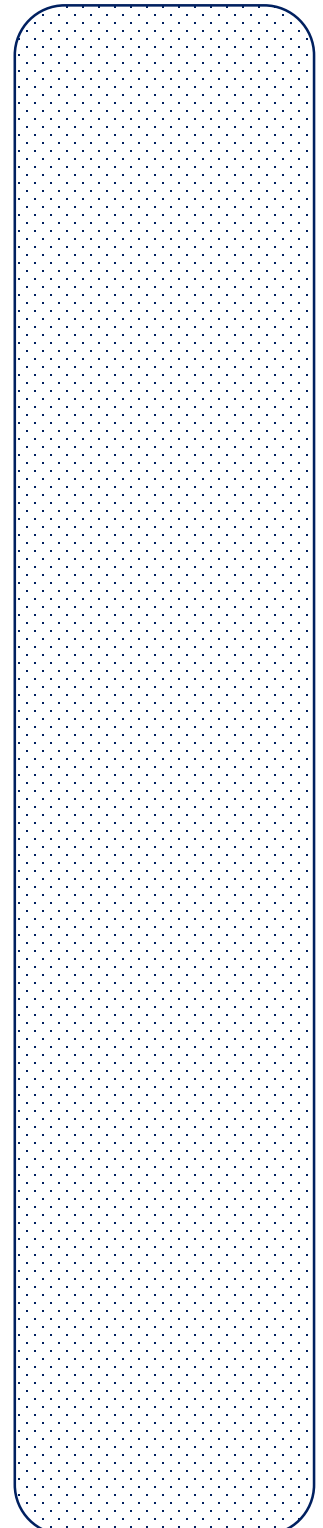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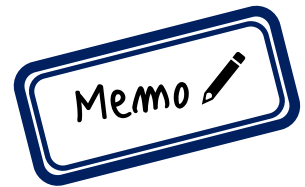
I haven't had a fixed way to study vocabulary. However, I almost never bought a vocabulary book to study words. I also didn't spare separate time to study words except for exam weeks in the academy. Sometimes I considered buying a vocabulary book whenever I came across unfamiliar words in the reading text, but I decided to at least remember the words I came across in the texts. I felt more comfortable when words were given in the context since there was no reason for simple aimless memorization. Also, I tried to watch TV shows with both Korean and English subtitles to recognize new words.



<본문 내에 있는 모르는 단어를 표시하고 공부하는 방법>



<카드를 활용한 어휘 공부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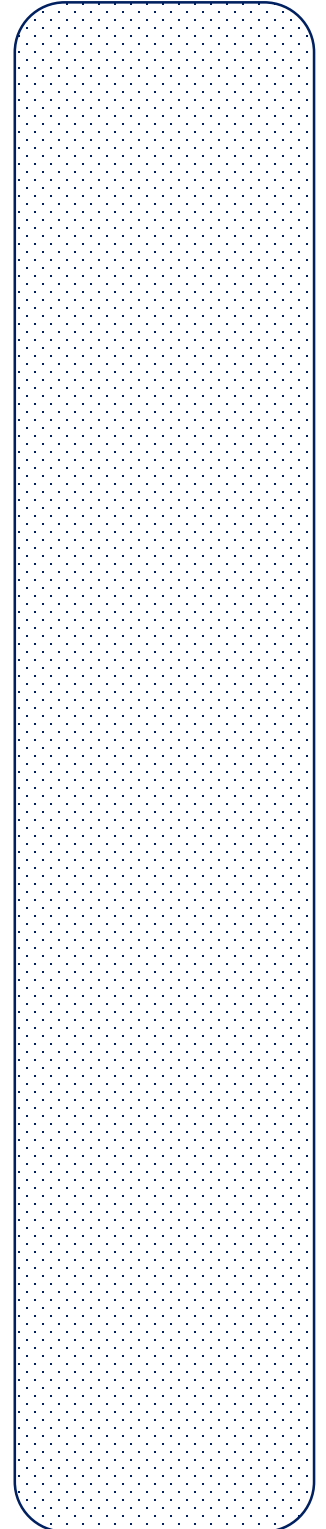


중학생 여러분께 권유하고 싶은 공부 방법은 내가 했던 본문 속 어휘 암기하기 정도입니다. 미드로 공부하는 것은 자칫하면 그저 놀이가 될 위험이 큼니다. 이러한 방법 말고 제대로 시간 내서 어휘를 공부하고 싶다면 어휘 카드 공부법을 제안해주고 싶습니다. 그 방법은 어휘 카드를 만드는 것인데 명함 사이즈의 종이 카드에 앞에는 단어를 적고 뒷면에는 단어 뜻과 예문을 적어서 뒤집어가면서 외우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어느 정도 단기간에 확실히 어휘를 암기하는 것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I want to encourage middle school students to memorize words that are used in the reading texts. Using TV shows as your main studying tool can be risky since it can turn out to be just a waste of time. If you want to take some time to properly study words, I suggest you use *word flashcards*. You can prepare some by writing a word on one side and its definition with example sentences on the other side. Using them as cue cards helps you memorize words for sure in a short period of time.

Q. 저는 영어에서 문법이 가장 어려워요. 문법은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내가 문법을 공부하면서 가장 어렵게 느꼈던 것은 한국어로 번역된 문법 관련 어휘였습니다. 이 어려움에 나는 그저 학교 선생님들의 수업을 열정적으로 들었을 뿐입니다. 내가 확실하게 느껴지지 않는 문법 지식은 수업에서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설명을 열심히 듣고, 쉬는 시간에 가서 물어보고, 학원에서 제공하는 여러 문제를 계속 풀었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에게 권해주고 싶은 것은 선생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는 학생을 마다할 교사는 없기에 모르는 부분을 들고 가서 물어보면 잘 대답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문법에 고민이 있었을 때 비는 시간에 영어 선생님께 가서 조언을 얻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분은 얇은 문법 문제집을 사서





가볍게 풀면서 지식을 쌓는 것을 나에게 추천해주었고, 실제로 해보면서 도움을 많이 얻었습니다. 학교 선생님께 주저 말고 도움을 요청하여 배우고, 학원 같은 사교육에서는 다양한 문제를 접해보는 정도로 활용하라는 것이 나의 조언입니다.

The biggest challenge in studying grammar was grammar terms in Korean, so all I could do was to enthusiastically participate in classes and pay attention to the teachers. They elaborated on unfamiliar grammar terms, I asked them during recess, and I continued to answer reading questions in academy. I want to ask middle school students to trust your teachers. There isn't a single teacher out there who would reject a hard working student. I went to ask for help whenever I had problems with grammar too, and he advised me to go through a simple grammar book which generally helped me a lot. Please do not hesitate to ask for help when you have teachers around to help you, and be exposed to various English questions in private institutions like academy.

Q. 시기별로 영어 학습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영어의 기초 마련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영어를 비교적 일찍 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발음이나 음조, 음운체계에서 거부감이나 어색함 없이 습득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래나 만화 등으로 흥미 유발이 되는 방법으로 습득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영어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올릴 수 있도록 활동 위주의 학습이 좋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때 영어 동화책 CD를 그냥 틀어 놓고 계속 무의식적으로 듣고 있는 것도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고등학교부터는 체계적인 문법학습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수준이라 생각하는 문제집을 스스로 찾아서 풀어보고, 어렵거나 모르는 부분은 학교



선생님께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은 학습 전략입니다.

Being exposed to English at an early age is a good way to build your basics. This is the best way to naturally acquire and understand English pronunciation, tone, and phonology. Also, listening to English songs or reading comic books is also an interesting way to learn the language.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various learning activities are encouraged to grow your interest in English. Being unconsciously exposed to CD storybooks is also a good way. Starting from middle school, you need a systematic and strategic grammar education. Find yourself a level-appropriate textbook and ask your teachers for help whenever you come across something you are not sure about.



Q. 대학교에 가서도 영어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고 들었어요. 대학의 영어는 어떤가요?

대학의 강의를 듣는 데에 어느 정도 수준의 영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에서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뒤의 설명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 회화 능력, 또한 과제도 영어로 제출해야 하므로 기본 작문 실력도 필요로 합니다.

You need to reach a certain level of English to take classes in college. You should be able to have a simple conversation in English to catch up with the lectures. Also, a basic writing skill is required as well because you have to complete your assignments in English.



16학번 안재우



“ Hello, I am Ahn Jae Woo, an English Education major at Hanyang University. I decided to share my English learning experience to help students who are struggling with English or those trying to find a right path in learning the language. I hope you improve your English skills and build up confidence through this text. ”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에 재학 중인 3학년 안재우라고 합니다. 저

는 영어 공부를 힘들어하거나 방향을 알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제

영어 학습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 학생들이 영어 실력을 향상할 뿐만 아니라

영어 공부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제 영어 학습 경험을 공유해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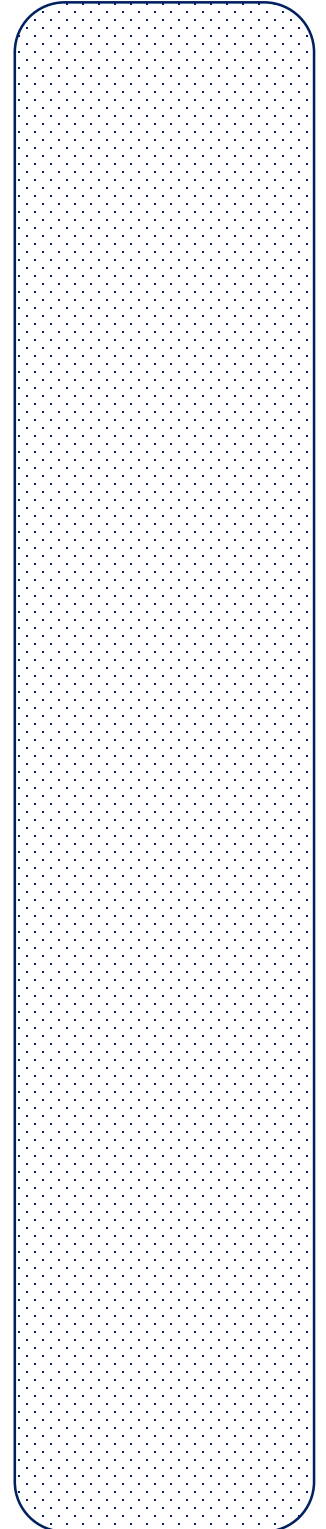
Q. 우선, 전반적으로 영어를 어떻게 접했고 배우게 됐는지 궁금해요!

저는 외국에 나가서 따로 영어를 공부해 본 경험은 없고 한국에서 학교나 학원 수업을 들으면서 학습했습니다. 제가 처음 영어를 접하게 된 것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영어 학습을 그다지 빠른 시기에 시작한 것은 아니었지만 영어 학습에 있어서 흥미가 있었고 어휘 습득이 빠른 편이라서 비교적 빠르게 영어 성취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학원에 다녔고 중학교 때는 문법이랑 토플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외국어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학교 수업 위주로, 수험생 시기에는 수능 영어 위주로만 공부했습니다.

I have never studied English abroad and have only studied by taking English classes in Korea. When I was in the fourth year of elementary school, I studied English for the first time. Although I did not start learning English very quickly, I was able to improve my English skills thanks to my interest in learning English. After that, I mainly studied grammar and TOEFL in middle school. After attending a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I mainly focused on school classes. During high school senior year, I focused on studying English for Suneung.

Q.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휘라고 하던데, 그럼 어휘는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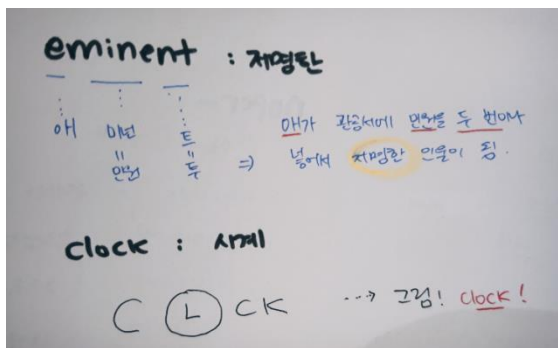
저는 어휘습득이 빠른 편이었기 때문에 영어는 어렵다기보다 다른 과목에 비해 좋아했던 과목이었습니다. 영어를 처음 접했을 때는 암기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단어를 단순히 소리 내어 읽어 가면서 외웠습니다. 하지만 학년이 올라가며 암기능력도 조금 떨어지게 되고 영어 단어 수준도 점점 높아짐





에 따라 암기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만의 암기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중에서 제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은 연상 암기법과 어원 중심 학습법이었습니다. 모든 단어를 한 가지 방식으로만 외운 것이 아니라 단어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어휘를 학습했습니다. 이 암기법들이 단어를 효율적으로 외우고 오래 기억하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Since I was a fast vocabulary learner, I liked English far more than other subjects. When I first studied English, I was confident in memorization, so I memorized the words simply by reading them. However, as I came across advanced-level words, I tried to find my own way of memorizing words. Among several strategies, both the *associative memorization* and *word origin study* methods were helpful. I tried various ways instead of sticking to one single strategy. This helped me understand and remember words for a long time.



<연상 암기법으로 단어 공부하기>

Q. 저는 영어에서 문법이 가장 어려워요. 문법은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저는 처음에 영어를 문법 위주로 학습하지 않았고 회화 위주로 먼저 공부한 이후에 영어 문법을 학습하였습니다. 각 단원에서 제시하는 문법개념을



배운 후에 예문에 적용해보고 문제를 풀어보며 문법을 학습하였습니다. 중학교때 문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한 이후 고3 전까지는 영어 지문에서 나오는 문법을 복습해보는 정도로만 문법을 학습하였습니다. 지문에서 나오는 문법 관련된 문제들을 풀거나 해석이 어려운 문법 표현을 찾아보면서 스스로 학습하였습니다.

At first, I did not focus on studying grammar but studied only after I went through mastering speaking and listening skills. After learning grammatical terms in each unit, I applied them to example sentences and answered grammar-related questions. I studied grammar in a systematic way in middle school, and after that I just looked through reading texts to understand how grammar concepts are used in actual sentences. I learned grammar by studying unusual grammar expressions or solving grammar questions related to English passages.

Q. 저는 영어의 기초가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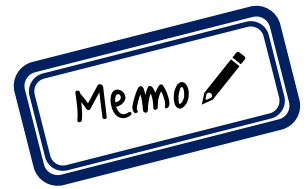
저는 영어를 처음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에 대한 흥미 유발과 자신감 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어를 처음 접할 때 재미있고 쉬운 이야기를 영어로 자주 들으면서 영어에 대한 흥미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문법적 개념을 학습하려 하기보다는 어렵지 않은 영자 신문을 공부했고 일기를 간단하게 써보는 등 영어를 지루하지 않게 역동적으로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습법들이 저에게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어줬습니다.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beginner learners is to become interested in English and to feel confident in studying foreign language. I could become interested in English as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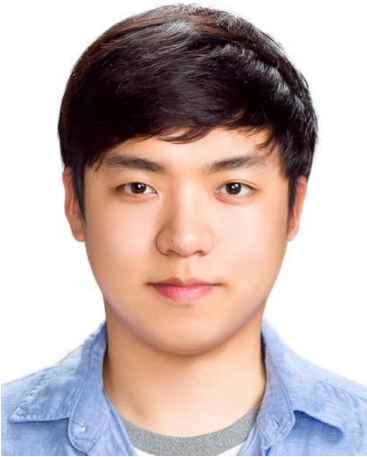
beginning learner because I often listened to fun and easy English stories. Even after then, I studied grammar in a dynamic way, like by using articles in newspapers or writing English journals rather than memorizing grammar terms. These strategies helped me feel confident in studying English.



A large, empty, dotted rectangular area for writing a memo.



17학번 김광일



“ I am Kim Gwang Il, an English Education major at Hanyang university. I used to be just an average middle school student like you until I met a nice English teacher who motivated me to become an English teacher myself.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학과 재학생인 김광일입니다.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다가,

좋은 영어 선생님을 만나게 된 덕에 영어교사가 장래희망이 되었고 그 후 영어교육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Q. 우선, 전반적으로 영어를 어떻게 접했고 배우게 됐는지 궁금해요!

처음으로 영어를 접한 건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튼튼영어'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였습니다. 당시에는 어떻게 영어를 읽는지를 중심으로 영어를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학교에서 영어를 배웠고 5학년부터는 학원에 다녔습니다.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말하기를 제외한 읽기, 듣기, 쓰기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사실 학교에 열정적인 영어 선생님들이 몇 분 안 계셨기에 학교 수업을 크게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수업을 열심히 해주셨던 좋은 선생님들과 친해졌고, 질문이 생길 때마다 교무실에 찾아가서 1:1로 여쭙보았습니다. 여담이지만, 잘 챙겨주셨던 좋은 선생님 덕분에 저 또한 영어 선생님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학원에서는 주로 읽기와 듣기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특강을 통해서 글쓰기를 배우기도 했습니다만, 학창시절 공부량을 따져보면 80% 정도는 독해에 썼습니다.

I was first exposed to English due to the *TeunTeun English* program when I was nine years old. Back then, the focus of learning English was on phonics, like how to read English words and sentences. After that, I officially started to learn English through the school curriculum in the fourth grade. Also, I went to English academy when I was in the fifth grade. In middle and high school, I mainly studied reading, listening, and writing. I often left out speaking. Frankly speaking, there were not many enthusiastic English teachers who tried to teach me well. However, after I met some enthusiastic teachers, I asked them many questions whenever I came across something. By the way, those teachers motivated me to be a great English teacher. I usually studied reading and listening in the academy and studied writing through lectures. However, almost 80% of my study was focused on rea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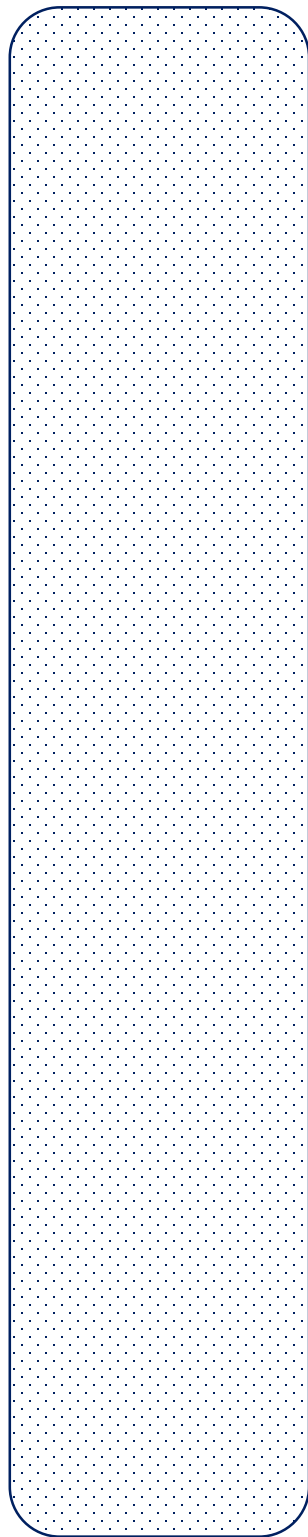
Q.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휘라고 하던데, 그럼 어휘는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어휘 공부에서 특히 어려웠던 점은, 비슷하게 생긴 단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Dedicate/Delicate', 'adapt/adopt/adept'처럼 외형은 비슷하나 뜻이 다른 단어들을 숙지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 어려웠던 점은, 일상에서 쓸 수 있는 단어가 배우는 단어에 비해 적은 것 같아 단어들을 왜 외우는지 의구심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어 암기에 소홀해졌고 단어 시험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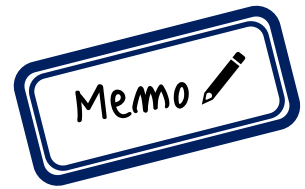
A challenging task in studying vocabulary was that there are so many words that look alike. A set of words like *Dedicate/Delicate* or *adapt/adopt/adept* are example words that were particularly challenging for me to memorize. Another obstacle in studying was that I was very pessimistic about memorizing words because I thought there were very few words for me to use in real life. This made me care less about word memorization, and soon led to a very low score of words tests.

하지만 첫 번째 어려웠던 점은 '나만의 단어노트' 정리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헛갈리는 단어들만 별도로 모아 놓고 나만의 방식으로 구별, 정리하여 공부했습니다. 두 번째 어려웠던 점은 '단어 찾기 습관화'로 극복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사물을 보면서 '저건 영어로 뭘까?'라는 생각을 꾸준히 했습니다.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도 특정 단어를 곱씹어보며 '저건 영어로 뭐라고 하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학 사전을 많이 이용하게 됐고, 실용적인 영어단어를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또 하나 보충하자면 어딘가에 이동할 때 단어 책을 보는 걸 추천합니다. 아직은 영어 단어가 어색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영어 단어와 친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단어장을 꾸준히 보는 것, 그리고 위에 언급한 것처럼 단어가 영어로 어떻게 쓰는지 의식적으로 찾아보세요.





The way I overcame the difficulties was by making my own *vocabulary note*. I gathered some confusing sets of words, wrote them down in my note, and distinguished them in my own way. I also got used to *word-searching*. In my daily life, I often very naturally asked myself, 'What is that object called in English?' Naturally, I got used to using the dictionary and it helped me understand English words. I strongly suggest you carry your own word list whenever you go somewhere. It is important for you to get used to English words because you are yet very young to study foreign language. Repeat reading through the word list and find out how certain words are called in English.



* 헷갈리는 어휘 모음

dedicate		delicate	
뜻)	(시간, 노력 등) 바치다 / 헌신하다	뜻)	연약한, 여전, 다치기 쉬운
ex)	She dedicates herself to work. This book is dedicated to my wife.	ex)	Men of genius are often of delicate health
adapt		adept	
뜻)	맞추다, 적응하다, 순응하다	뜻)	능숙한, 무어난
ex)	He struggled to adapt to the thin air in the mountain.	ex)	I am adept at dealing with computers or machin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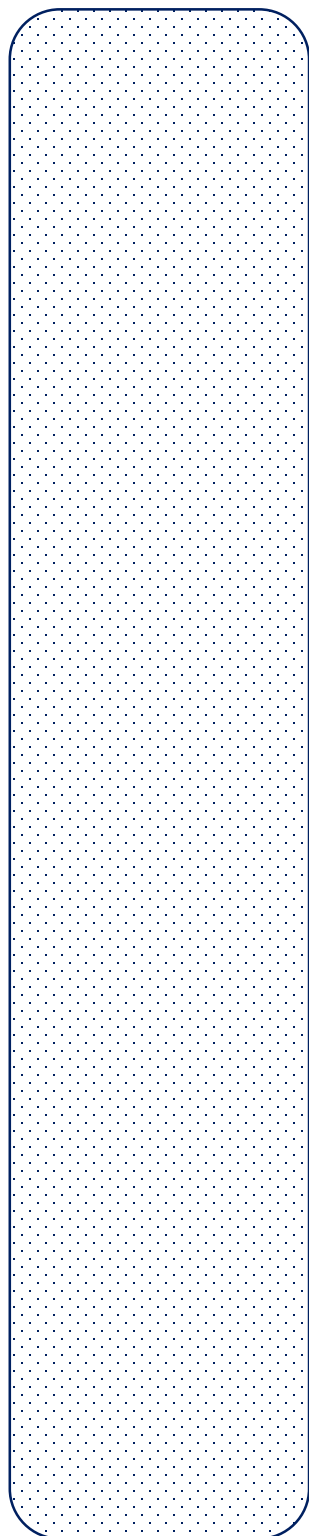
<나만의 단어노트 만들기>



Q. 저는 영어에서 문법이 가장 어려워요. 문법은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저는 문법 용어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 표현 자체가 낯설었고, 각 용어가 뭘 뜻하는지 정리가 안 됐습니다. 학원에서는 학생들이 이미 다 알 거라고 진도를 빨리 나가버려서 개념이 흔들린 탓에 실력이 잘 오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기초 개념 정립을 다시 했더니 문법적 용어에 대한 거부감을 어느 정도 없앨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문법적인 원리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강조하셨던 교육법도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제가 ‘와, 진짜 똑같은 말만 너무 많이 하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문법 원리를 반복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글을 읽거나 작문을 하다가 문법 원리가 적용되는 것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었던 깨달음의 순간이 왔고 완전히 저의 지식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문법은 학생들에게 낯설고 어려운 영역입니다. 원리와 예문들이 연결되지 않는 듯한 괴리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를 배운 후 원리가 어떻게 예문에 적용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예문을 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예문들을 단순히 문제 풀이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분석해야 합니다. 간단한 문장이라도 좋으니 한 문장을 보고 본인이 학습한 문법 원리가 어떻게 적용됐는지 찾는 활동을 하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Grammar terms were very difficult. They were unfamiliar, and I wasn't sure what each word meant. My English skills hardly improved since even private institutions assumed that we were already aware of grammar terms and skipped some parts. Later on I got better after I had conceptualized basic grammar concepts. Some teachers repeated the explanation up to the point where I felt, 'Geez, he/she says the exact same thing over and over again'. However, as I realized how each word was used in real text, I felt connected to grammar. Of course, grammar is challenging.





Students may feel the distance between rules and real sentences. That is why it is important to find many example sentences after learning grammar rules. You should not use example sentences for your test only but also for analyzing the structure. Analyzing even just a single sentence will help you understand how grammar concepts are applied in the given sentence.

Q. 기초적인 영어 실력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선 어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순한 단어 뿐만 아니라 'not only ~ but also ~' 와 같은 덩어리를 외우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어휘는 암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어를 성실하고, 진지하게 외우면서도 일상생활에서 짬짬이 공부해야 합니다. 중학교 영어교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문법은, 매우 진부한 이야기지만, '이해' → '암기' → '적용'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법을 이해하는 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학생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많은 예문을 만나며 문법과 연결을 짓는 사고를 해야 합니다.

Vocabulary knowledge is very important. Understanding phrases or chunks of words like *not only ~ but also ~* helps a lot. Memorizing words is inevitable in studying English. You have to diligently and seriously memorize words in daily life. In the case of grammar which is a big part of middle school education, it is cliché, but you should start with *understanding*, then *memorizing*, and then *applying*. In my opinion, the understanding stage requires students' active attitude towards learning grammar. After that, students need to try to connect grammar principles to many example sente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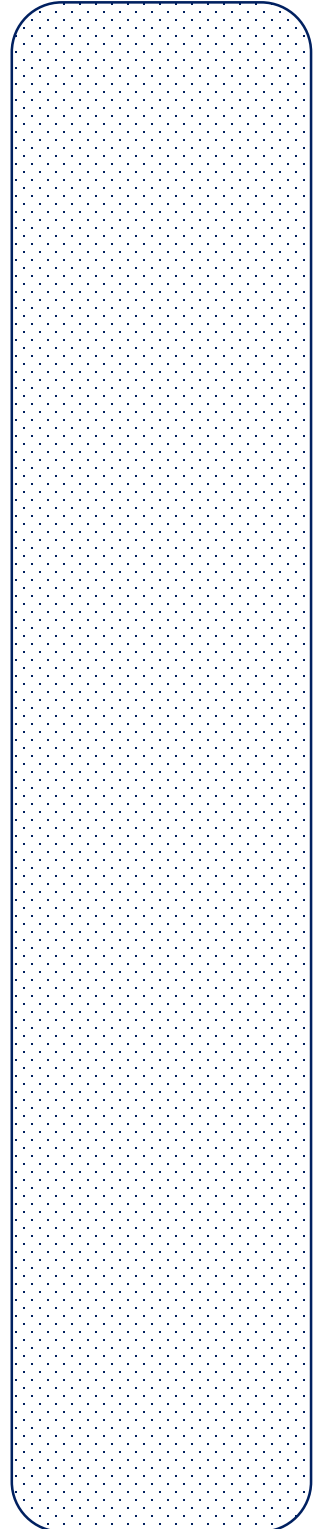


Q. 시기별로 영어 학습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중학교때 까지는 영어와 친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암기식으로 영어를 공부하고, 주입식 공부를 하게 되면 부작용으로 영어에 대한 반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방식으로 영어를 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2~3학년부터는 영어의 기본 개념들과 원리들을 접하고 응용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문법을 공부하고, 또 그걸 토대로 문장을 만들어보고. 글을 보면서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분석해보는 게 실력의 기반이 됩니다. 다른 영역도 있는데 문법과 읽기 영역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어쩔 수 없는 수능 시스템 때문입니다. 중학교 때 이러한 기반을 잘 다져 놓은 후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독해 위주로 공부를 하면 긴 글을 읽는 데에 문제가 없을 겁니다.

It is important to become familiar with English language until you go to middle school. Simple memorization and rote learning are not effective and it can even cause students to feel hostility towards foreign language. I think studying English in a fun way is very important at that age. In the second and third year of middle school, it is required to learn grammar principles and apply them in real-life sentences. Learning grammar, making your own sentences, and analyzing them again will help build up basic skills for higher English proficiency. The reason I emphasized grammar and reading is because we all take National University Entrance Exam. You will have not much problems in high school once you have laid solid basic skills.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의식적으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글을 크게 보는 능력' 입니다. 고등학교 진학 후에는 문장 하나하나를 보기보다는 글의 전체적인 맥락이 매우 중요해지기 때문에, 맥락을 파악하는 독해 위주로 공부하면 영어 실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듣기는





규칙적으로 조금씩 들어만 줘도 잘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읽기와 듣기를 통해 영어의 많은 부분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만 잘해도 말하기와 글쓰기는 약간의 연습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Once you move on to high school, you should deliberately focus on *seeing the forest* in reading. Overall context is much more important than each of the sentences, so reading the text to understand the flow will help improve your English skills. So, it is required to read the paragraphs, not by analyzing each sentence but grasping the flow of the whole paragraph. For listening comprehension, you can prepare it by listening to English tapes regularly. But since you can study a big part of English through reading and listening, you can surely prepare speaking and writing with a just a little extra practice.

Q. 대학교에 가서도 영어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고 들었어요. 대학의 영어는 어떤가요?

우선 전공에 따라 다르지만, 읽기와 듣기는 기본입니다. 대부분의 영어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전공 교재가 영어로 쓰여 있는 것은 물론이고, 전공과 관계없이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 전용수업이 꽤 많아서 영어를 읽고 들을 수 있는 능력은 꼭 필요합니다. 혹시 본인이 영어교육과에 관심이 있다면 말하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읽기와 듣기가 잘 되는 학생이라면 대학에 와서도 연습을 통해 충분히 향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Of course, it differs from major to major, but reading and listening are basic skills. English is mostly used in ways to *receive* information. Most textbooks are written in English, and you need to be able to read and write at a certain level even when your major isn't related to English since there are many English only lectures in



university. Your speaking skill is also important if you are planning to major English Education, but this can be easily improved later on if your reading and listening skills are well built in high school.

A large, vertical rectangular area with a light blue dotted pattern, intended for taking notes or writing a memo.



1학년 도혜원



“ I am Do Hye won, majoring English Education at Hanyang University. I graduated from a public high school in Busan and was interested in studying English ever since I was young. I decided to major English Education with a dream of becoming an English teacher.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2학년에 재학중인 22살 도혜원입니다. 부산에 있는 일

반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학창시절부터 영어공부에 가장 흥미를 가졌으며 장래에 영어교

사가 되기를 희망하여 영어교육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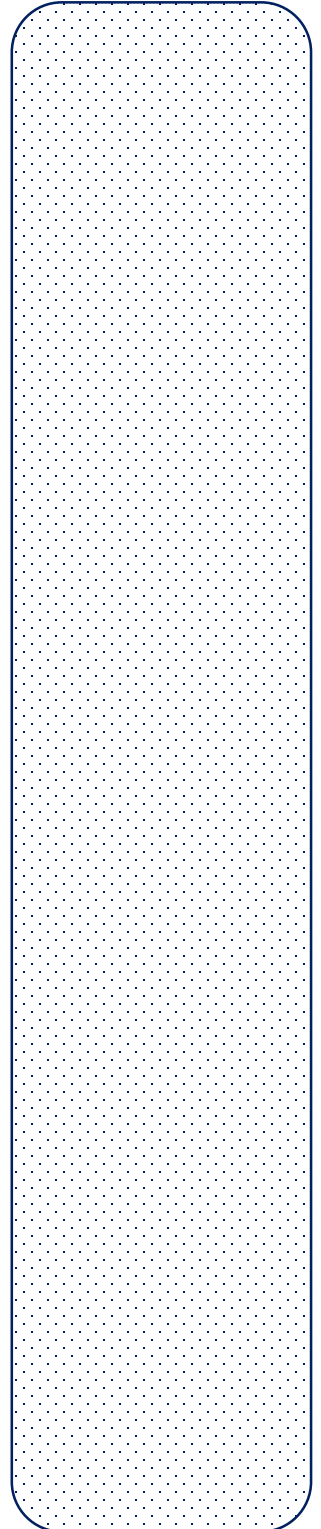
Q. 우선, 전반적으로 영어를 어떻게 접했고 배우게 됐는지 궁금해요!

영어를 처음 접한 것은 6~7세 때입니다. 당시에 어머니께서 한글 자막이 없는 영어 만화 비디오를 자주 보여주셨고 잠이 들기 전에는 카세트테이프를 영어 동요를 들려주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2학년 때 방문학습지를 통해서 입니다. 교재는 다양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테이프로 영어를 듣고 이를 따라 읽는 것을 녹음하여 들어보는 방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졌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학습지로 영어공부를 하다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과외를 하거나 학원을 다녔습니다.

The first time I was exposed to English was when I was six or seven. My mom often showed me English cartoon clips without Korean subtitles and I listened to English children's songs at bedtime. I started learning English regularly with tutor-supported home-study materials in the second year of elementary school. The materials were full of many different stories and I mostly listened to tapes and repeated after them to record the repetitions. I continued with this strategy until I was in the third year of middle school to go to academy or get tutored.

Q.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휘라고 하던데, 그럼 어휘는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단어를 외울 때 동의어와 반의어를 함께 외우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단어라도 여러 뜻을 가지거나 문맥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모든 걸 다 외우는 것이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나만의 단어장이 있었는데 어떤 단어를 기록할 때 옆에 동의어와 반의어를 함께 적고 이를 같이 보며





외웠습니다. 또한 지문을 읽다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른 의미로 쓰인 단어를 보면 단어장에 뜻을 추가하여 적기도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단어를 학습할 때 대표적인 뜻 하나만 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좋은 어휘 학습방법이 아닙니다. 당장은 단어를 외우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를 지문에서 만났을 때 해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 단어를 외울 때 그 단어가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의미와 동의어 및 반의어를 함께 외우는 것이 효과적인 어휘 학습 방법입니다.

When I learned the words, it was hard to memorize their synonyms and antonyms at the same time. Also, it was challenging to understand many different meanings one single word had. So, I made my own word list to write down and memorize words and their synonyms and antonyms together. Also, I added new meanings of familiar words in my list that I came across while reading passages. Many students tend to memorize a single main definition of a word, but this should be discouraged. You may think you have succeeded in memorizing the word at this moment, but there are many cases where you fail to understand once the word is used in a different context. An effective way to memorize a word is to understand all the meanings the word can have along with its synonyms and antonyms.



Good (좋은)	big (크다)
동 = decent / benign / fine / nice noble / exemplary / excellent	동 = large / enormous / colossal considerable / gigantic / massive
반 = bad / awful / lousy / poor faulty / erroneous / atrocious	반 = small / miniature / little minute / trivial / petite

<동의어라 반의어 함께 외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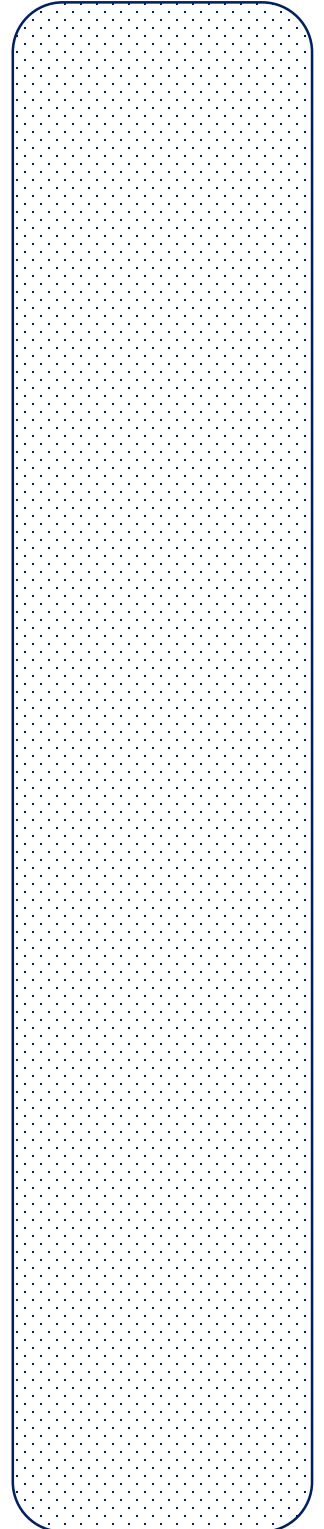
Q. 저는 영어에서 문법이 가장 어려워요. 문법은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문법 규칙을 외우는 것 자체도 어려웠지만 힘들게 외운 규칙을 적용하지 못했을 때 좌절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문법을 배워도 지문에서 규칙이 적용된 문장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을 읽을 때 전에 배운 문법 규칙들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길렀습니다. 이를 통해 문법 규칙만을 외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문장에 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문법 규칙을 달달 외우고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 지문에서 이러한 문법 규칙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응용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독해능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Memorizing grammar rules itself was difficult, but I felt more frustration when I failed to apply the rules after I spent quite a time on them. I was frequently not aware of them used in the context even though I had learned the rule. So, I started to check myself on whether there are grammar rules used in each sentence. This helped me to go beyond memorizing grammar rules to understand how the rules are used in actual sentences. Simply memorizing grammar rules should be discouraged; instead, try to understand how rules can be applied in real texts. Only this way can lead to improving your reading skills.

Q. 기초적인 영어 실력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발음은 어린 나이에 발달하고 완성될 경향성이 높기 때문에 보다 어릴 때 이에 대한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음 및 음조에 대한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는 원어민의 발음을 많이 들어보고 직접 따라 해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육의 특성상 학교에서는 이러한 환경이 많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자 영화나 미드를 보면서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휘와 문법에 대한 기초는 중학교 때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중학교 때 단어와 문법 규칙을 외우는 습관을 길러야 하며 이가 바탕이 되었을 때 고등학교 때 독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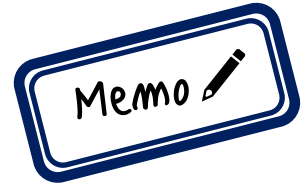
Pronunciation tends to develop and be fixed at early age, so you should prepare for it when you have a chance as a young child. I think the most effective way to improve your pronunciation is to listen to native speakers and repeat after what you have heard. This opportunity is quite rare in Korean education curriculum. Therefore, try practicing pronunciation by using multimedia sources like movies or tv shows. Also, you need to get basic skills in vocabulary and grammar in middle school. I suggest you form a habit of memorizing vocabulary and grammar rules in middle school. Only on such a basis can you improve your reading skills in high school.

Q. 시기별로 영어 학습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중학교 때는 문법을 많이 익혀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독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문을 읽을 때 문장을 해석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문장과 문장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생각하고, 지문의 전체적인 구조와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해설지를 보지 않고 스스로 지문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나무를 보기보다는 숲을 보는 방식으로 지문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학습은 단어입니다. 아무리 해석이나 독해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단어를 모르면 무용지물입니다.



You should study grammar when you are in middle school, and you should practice understanding sentences based on your grammar knowledge. In high school, it is essential to improve your reading skills. When reading a passage, do not stop at interpreting sentences individually, but go further and think about how the sentences are related to each other, and understand what the whole passage is trying to say. Look at the forest, not the trees, to understand the main point. Even still, vocabulary knowledge is the most important part for middle or high school students. Poor vocabulary skills will do you no good even if you exceed in reading skills.



Q. 대학교에 가서도 영어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고 들었어요. 대학의 영어는 어떤가요?

대학에서는 졸업요건으로 인해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영어 전용 강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어와 관련된 전공이 아니더라도 전공 서적이 영어 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강의도 영어로 이루어지는 수업이 많습니다. 기본적인 영어 읽기 능력과 듣기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학창시절에 영어공부를 소홀히 하여 수업을 따라가는 데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영어와 관련된 전공에서는 읽기 능력과 듣기 능력 뿐만 아니라 말하기 능력 및 쓰기 능력도 함께 요구됩니다.

Along with English lectures which you are required to take, there are many classes using English-written textbooks even if they are not English-related majors. Also, there are many classes given in English. This means basic English reading and listening skills are required. You will hear of some students having problems catching up with classes because they had neglected learning English. In



English-related majors, all four skills – reading, listening, speaking, and writing skill – are altogether necessary.

A large, vertical rectangular area with a light blue dotted pattern, intended for writing a memo.

17학번 송봄



“ I am Song Bom, an English Education major at Hanyang university, who has a dream of becoming a teacher. I hope to soon become an English teacher after successfully completing my major curriculum.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에 재학 중이며 영어 교사가 꿈인 학생입니다. 학과 과정들을

평탄하게 밟고 뚝딱 영어 교사가 되고 싶어요. :)



Q. 우선, 전반적으로 영어를 어떻게 접했고 배우게 됐는지 궁금해요!

처음 영어를 접한 시기는 열 살 즈음이었습니다. 또래 친구들을 따라 동네 영어 학원에서 영어를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알파벳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파닉스(Phonics: 단어의 발음과 소리를 배우는 학습법)와 발음 기호를 먼저 배운 후에 알파벳을 배웠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주로 어학원을 다니며 영어가 과목이 아니라 언어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어학원에서는 토론 및 발표 수업, 토플 수업 등을 들으며 문법에 대한 지식보다는 글쓰기, 읽기, 말하기에 초점을 맞추어 공부하였습니다. 사실상 학교 수업은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던 거 같습니다. 사교육을 통하여 배우는 수업이 수준과 질이 높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문법적인 지식만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영어 소설과 노래도 좋아하였습니다. 영어책 시리즈를 스스로 찾아서 읽고 영어 노래 가사를 따라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The first time I was exposed to English was when I was 10 years old, at a local English academy along with my friends. Instead of starting from ABCs, I learned *phonics and phonetic symbols* first. As a young child, I approached English as a language rather than as a subject to study. In the private academy, I focused more on writing, reading, and speaking instead of grammar through many discussion/presentation classes and TOEFL classes. Frankly speaking, school classes were not very helpful. I think the level and the quality of learning through private education was higher than that of public school. I also liked English novels and English songs since I was young, so I read English book series and memorized the lyrics of English songs on my own.



★잠깐! 파닉스(Phonics)가 뭔가요?

‘파닉스(Phonics)’란 문자와 음성언어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정확하게 글자를 가지고 소리를 낼 수 있는 학습법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영어로 쓰여져 있는 단어나 문장을 읽을 수 있도록 철자를 읽는 방법을 가르치는 발음중심의 어학교수법이지요! 예를 들면, 자음 ‘b’과 모음 ‘e’가 만나 ‘be’라는 소리를 만드는 것과 같아요. 한글의 음가는 아주 간단하지만 영어의 음가는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많이 쓰지요!

Phonics Sounds	
s	snack, sounds
g	goat, go
h	happy, hand

<파닉스 학습 예시>

Q.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휘라고 하던데, 그럼 어휘는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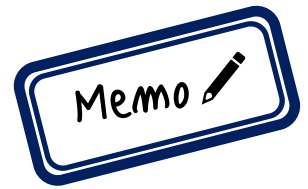
영어 어휘 학습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영어 단어와 한글 단어를 연결하기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연관성이 없는 뜻과 단어를 외우는 것은 나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시험을 보는 것도 지루하였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은 해석과 동시에 단어를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글을 읽다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예측해보고 다 읽은 이후에 단어의 뜻을 확인해보면 쉽게 기억에 남을 뿐만 아니라 맥락과 함께 어휘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영작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 맥락과 맞는 적절한 단어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영사전을 통해 어휘를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나,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The most difficult thing about learning English vocabulary was that it was hard to find a close connection between English words and their Korean counterparts. Memorizing definitions and





words which were completely unrelated to each other was difficult for me and taking tests repeatedly was also a tedious task. A way for me to overcome such difficulties was to memorize words while reading and understanding sentences. When you come across an unfamiliar word when reading a passage, make sure you first guess and infer the meaning of the word based on the context, then find the exact meaning of the word afterwards. This strategy allows you to remember vocabulary longer and to study words within the context. Also you will be able to use context-appropriate words when you write or speak in English. Of course using an English dictionary can be a way to study, but I think it is not an efficient way to study vocabulary.



Q. 저는 영어에서 문법이 가장 어려워요. 문법은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문법 학습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예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규칙을 배웠을 때 그와는 다른 예외 사항이 나오면 그걸 모두 다 기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직도 크게 극복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예시들을 통하여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혼자 추리하는 것보다 여러 예시를 통하여 문법 개념을 익히면 조금 덜 지루하고 오래 기억에 남았던 거 같습니다. 문법이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에게도 예시를 통하여 문법을 공부하라고 권해주고 싶습니다. 예시들을 먼저 보고 개념들을 끌어내는 연습을 한다면 문법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배운 개념들을 통하여 스스로 예시를 만드는 것도 해본다면 문법에 대한 기초적인 토대를 더 쉽게 세울 수 있습니다.

I think the biggest challenge in studying grammar is *exceptions* to a rule. It was not easy for me to remember both

grammar rules and the exceptions at the same time. Frankly speaking, I still have not completely gotten over it, but I think learning a grammar concept with various example sentences was a big help. It was less boring and stayed long in my memory. I want to encourage middle school students who are bored with studying grammar to try studying with example sentences first. It won't be as difficult once you practice drawing out a grammar concept from those various examples. Also, you will be able to strengthen your basics if you create example sentences on your own.



★ 문법에서의 예외 사항이란?

예를 들자면, 일반적으로 명사의 복수형에는 -s를 붙이죠. Book의 복수형이 Books가 되는 것처럼요! 하지만 단어가 어떤 철자로 끝나느냐에 따라 예외 규칙이 생깁니다!

명사의 복수형	
모음+y	boys, monkeys, toys
자음+y	ladies, babies, cities

위 사진과 같이, 'y'로 끝나게 되면 그냥 's'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ies'로 바꾼 후에 'es'를 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예외 규칙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예문을 접하며 자연스럽게 익혔다고 해요!

Q. 기초적인 영어 실력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영어 기초 마련을 위해서는 4가지 영역인 독해, 듣기, 말하기, 쓰기에 문법적인 지식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법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문법을 먼저 규칙을 배우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익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문법만을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독해나 듣기, 말하기 쓰기를 통하여 문법을 학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독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해를 하며 영어 구조, 문법에 대해



살펴볼 수 있고 이는 다른 영역인 말하기, 쓰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To build a solid foundation in English, you need to improve your grammar knowledge along with the four skills – reading, listening, writing, and speaking. Grammatical knowledge is important, of course, but you need to understand how to naturally apply the rules rather than deductively learning them. I think reading is once again the most important. Reading skills will allow you to understand sentence structures and grammar knowledge which you can apply to your productive skills such as speaking and writing.

Q. 시기별로 영어 학습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먼저, 초등학생의 경우 영어를 언어로써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영어를 많이 듣고 말해보다면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학생의 경우, 배울 수 있는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독해와 쓰기 위주로 공부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수준보다는 한 단계 높은 영어 교재를 읽으며 문법적인 지식을 쌓는 것도 필요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수준 높은 독해를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난이도가 높은 어휘들을 익혀보고 문법적인 지식의 경우 이미 중학생때 배운 것을 확인해보는 정도로 그칠 수 있도록 합니다.

To start with, elementary school students should approach English as a language instead of a subject to master. Once you are exposed to various English contexts, fear of the second language will go away and stimulate your curiosity. As for middle school students, you need to do an advanced level of reading and writing since you are given a wider range of difficult materials to learn. Also, you need to build up grammar knowledge by reading more



challenging texts. For high school students, you need to focus on reading advanced texts. Going through the vocabulary or grammar rules you learned back in middle school is enough at a high-school level.



Q. 대학교에 가서도 영어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고 들었어요. 대학의 영어는 어떤가요?

대학의 강의를 살펴보면, 그저 영어 전용 수업이나 영어 관련 학과에서만 영어가 쓰이는 게 아닙니다. 공학 대학 수업, 음악 대학 수업, 경영 대학 수업 모두에서 영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를 따라가려면 높은 수준의 영어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영어는 필수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학 수업에서는 토론이나 발표 등을 영어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영어를 입시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언어로 공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If you look at how university lectures are given, English is not only used in English-only or English-related subjects, but also in engineering, music, or business school classes which require of students a high level of English abilities. Therefore, English is essential to catch up with your class. Also, you need to get used to English as your second language rather than studying it only for your exam since you are required to discuss or make presentations in English in university as well.





1학년번 정지은



“ Hello, I am Jeong Ji-eun, an English Education major at Hanyang University. I entered Hanyang University in 2017. After completing a regular school curriculum, I am currently meeting man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rough tutoring and mentoring sessions. I hope my experiences can be of help to those who have problems studying English. ”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1학년번 정지은입니다. 한국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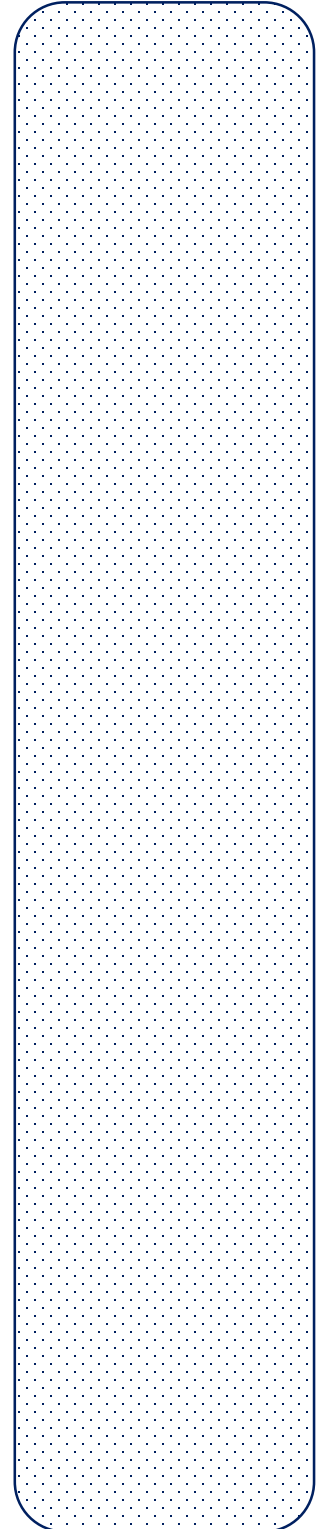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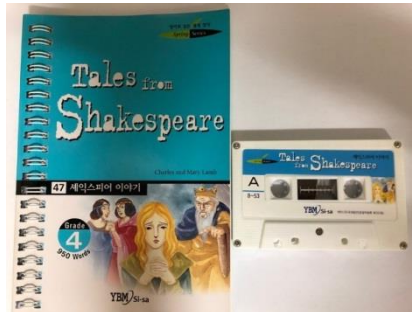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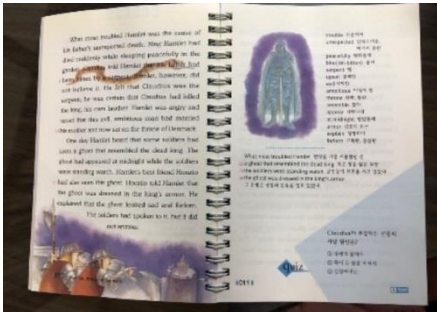
거쳐 지금은 라인과 멘토링을 통해 중, 고등학생 친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영어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고민에 저의 학습 경험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우선, 전반적으로 영어를 어떻게 접했고 배우게 됐는지 궁금해요!

영어 자체에 흥미를 붙이게 된 계기는 영어 동화를 읽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동화책을 보는 것을 좋아했던 터라 영어로 읽는 세계 명작 시리즈를 중학교 1학년 때 접하며 이야기 글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YBM에서 나온 영어로 읽는 세계 명작 시리즈를 읽었는데 이 시리즈는 어휘 수에 따라 450자 어휘 수준을 요구하는 레벨 1부터 2000자 어휘 수준을 요구하는 레벨 6까지 나뉘어 있었습니다. 중학교 3년에 걸쳐 레벨 1에서 시작해서 6에 해당하는 책을 읽어가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과 같이 페이지별로 단어와 이해도를 점검하는 문제가 나와 있어서 더 수월하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학생 때 영어 연극부 활동을 했는데, 이 시리즈가 녹음된 테이프를 듣고 따라 말하는 방법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등장인물이 된 것처럼 실감 나게 테이프를 들으며 따라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I got interested in English as I started reading English storybooks. I liked reading fairy tales ever since I was young, and my interest in English started to develop as I read classics in English in the first year of middle school. I read a series of English masterpieces from YBM, which were divided into 6 levels - from level 1 which required a vocabulary level of 450 words to level 6 that





required a vocabulary level of 2,000 words. I felt a sense of accomplishment as I read those series throughout middle school. In addition, there were comprehension check-up questions page by page (as it is shown in the picture), so it was not hard to catch up with the storyline. I also joined English drama club when I was a middle school student. I used to listen to recorded tapes to practice shadowing and imitated the characters as if I were a part of the story.



Q.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휘라고 하던데, 그럼 어휘는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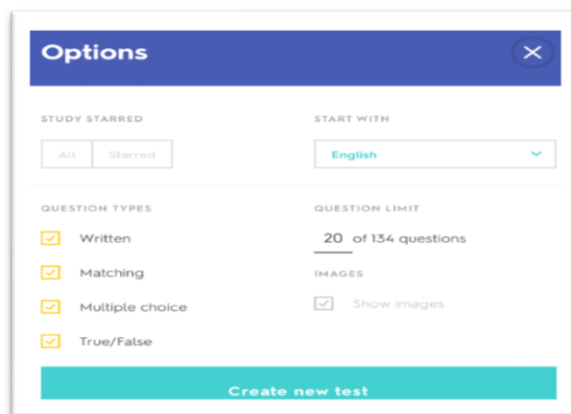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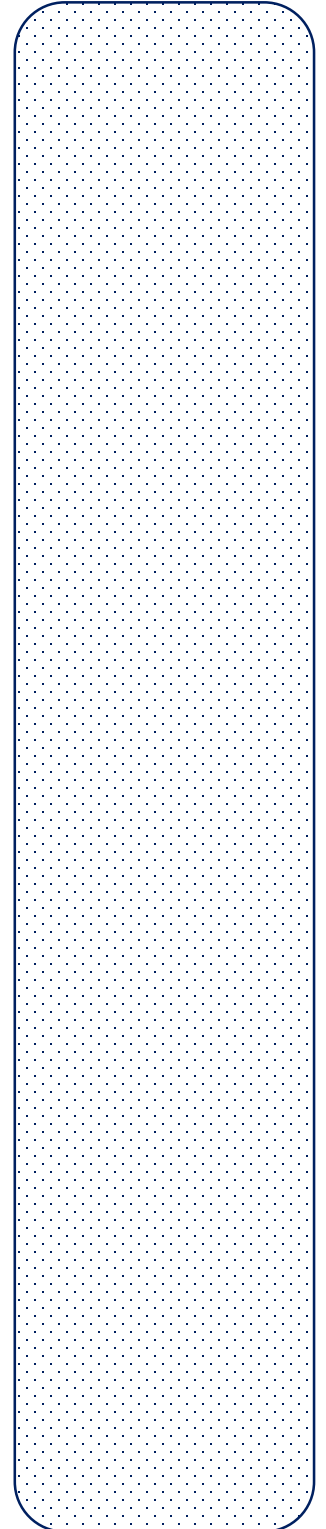
어휘 학습에서 겪은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단어와 듣거나 쓸 수 있는 단어 수준의 차이였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발음 기호를 읽지 못했고 철자 위주로 단어를 배웠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야 제 학습법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Sauna'- ['so : nə; 'saʊnə]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사우나'라고 읽고 외웠던 저는 철자법은 알지만 발음을 몰라 듣기를 놓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중학교를 졸업할 즈음에는 유사한 형태를 가진 어휘가 어원이 비슷하다고 착각해서 뜻이 헛갈리는 실수가 잦았습니다. 예를 들면 'hospitality'와 'hostility'라는 단어는 형태는 유사하지만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생겼다고 유사어로 착각해 지문을 완전히 잘못 해석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I had two difficulties in vocabulary learning. One was the gap between words I could read and understand and words I could hear and use. Specifically, there were words I could read and understand, and there were words I could spell. I could not understand any phonetic symbols until I graduated elementary school, so mostly I

memorized the words by spelling each word. Only after I got into middle school had I realized that my strategy was wrong because I experienced several problems. For instance, when I heard the word *sauna*, I had problems figuring out the meaning of the word even though I knew it from the reading text. Also, by the time I graduated middle school, I had problems with look-alike words because I thought they belonged to the same word family. For example, the words *hospitality* and *hostility* look similar, but they have exactly the opposite meanings. This kind of misunderstanding led to misinterpretation of the whole text.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발음 기호 읽는 법을 익혔고 단어를 외울 때, 꼭 한번은 읽어보고 모르면 반드시 온라인 사전을 통해 발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단어 책을 볼 때 단어가 쓰인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예문도 함께 봤습니다. 유사 어휘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에 들어가 단어장을 여러 권을 보기보다는 한 단어장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며 유사 어휘를 따로 정리했습니다.

더불어 내가 과외와 멘토링을 하며 요즘 활용하고 있는 ‘퀴즐렛’이라는 어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단어는 매일, 틈틈이 공부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천이 쉽지 않고 내가 외운 단어를 체크하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틈틈이 단어를 보고 매일 성취도를 체크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퀴즐렛’ 어플을 활용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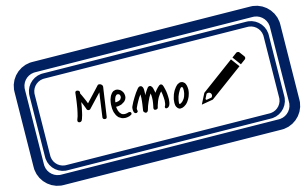


To overcome this difficulty, I learned to read phonetic symbols and tried to get the right pronunciation. If I wasn't sure, I checked the pronunciation through online dictionary. Also, when I read a vocabulary book, I looked at the examples together to see how the words were used in the text. In case of dealing with similar vocabulary, I made my own word list of synonyms and similar words which did not share the same meaning. I repeatedly studied the same list instead of using several vocabulary boo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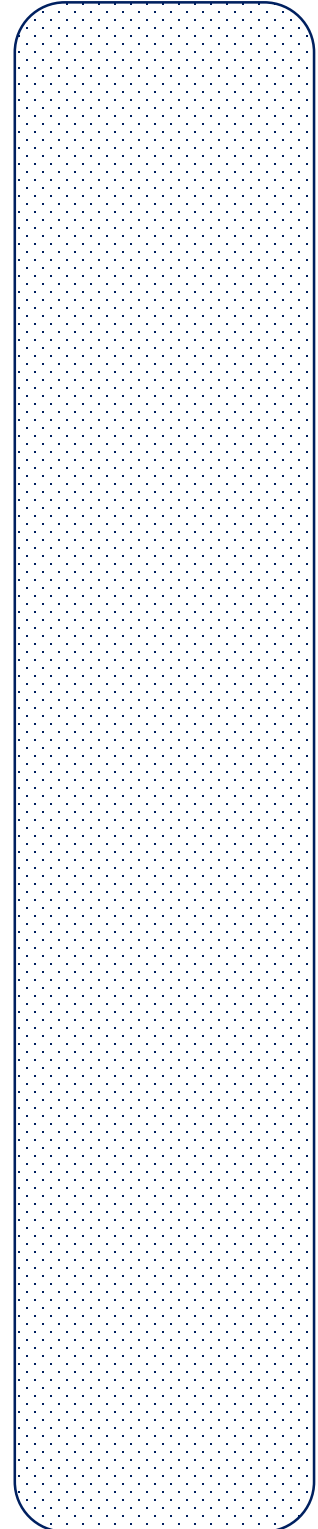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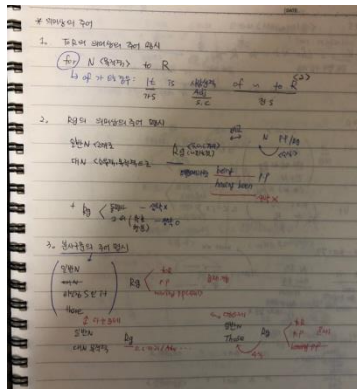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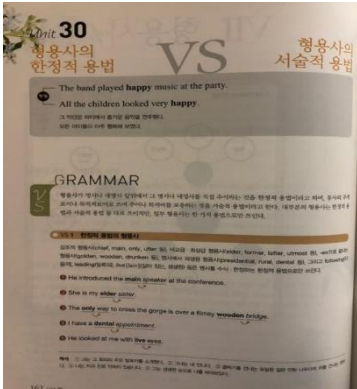
Furthermore, I would like to introduce the application called Quizlet that I use these days in tutoring and mentoring sessions. It is said that we must study vocabulary every day to naturally acquire foreign language, but it is not easy to practice the words we memorized. I recommend using the Quizlet app which helps us to look at words we learned and to check our daily achievements.

Q. 저는 영어에서 문법이 가장 어려워요. 문법은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중학교부터 문책을 공부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단원의 소제목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형용사의 한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이라는 단원을 공부한다고 치면 '한정적 용법', '서술적 용법'이 각각 무엇인지, 그리고 그 두 개를 왜 구분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던 문법책을 덮고 가장 설명이 자세한 문법 문제집을 사러 서점을 여러 번 갔던 기억이 납니다. 학원에서 강의를 수강하거나 기본서를 한 번 정도 보고 나서 문법 포인트를 비교해 놓은 자신만의 문법 노트를 만드는 것도 좋은 해결 방법입니다. 나는 문법 노트를 만들며 한 단원의 학습을 마칠 때 마다 백지 복습법(단원의 주요 개념부터 세부사항까지 남에게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백지를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이 방법이 어려우면 시중의 문제집



중 개념서를 여러 권 보기보다는 문법 포인트를 비교해 놓은 책을 사는 걸 추천합니다.



The most difficult part as I studied English grammar was understanding grammar terms written in Korean. For example, it was difficult to understand what *the attributive use* and *the predicative use* meant and why they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each other. I remember going to the bookstore several times to get the most detailed grammar book as I had difficulties understanding the terms. To solve this problem, I think after taking classes or reading the basic grammar books, it is helpful to organize your own notes of necessary grammatical points. In my case, whenever I finished a chapter, I specifically used *the Blank Paper Reviewing method*, that is, filling in a blank paper as if I were explaining the major concepts and relevant details to others. If this is difficult, I recommend that you study them through a book that comparatively presents multiple grammar poi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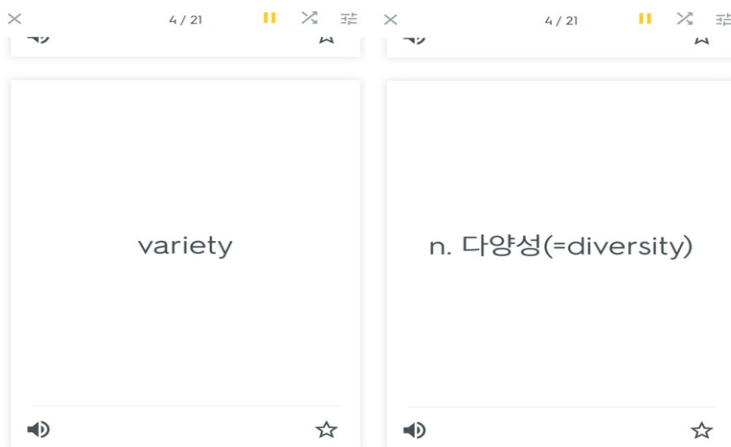
Q. 기초적인 영어 실력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어의 철자는 알았지만 듣기 평가에서 그 단어를 못 알아들어 틀렸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영어의 발음 체계를 익히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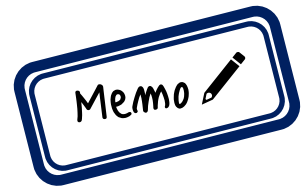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 추천한 퀴즐렛 어플을 통해 단어의 발음을 익히는 방법도 좋습니다. 종이 책으로만 보는 영어가 아닌 영어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능에는 영어 단어를 직접 써야 하는 항목은 없으니 단어를 한국어 뜻만 외우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게 학습한 단어들은 오래 기억에 남지도 않고 실제 쓸 수 없는 지식으로만 남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As a student who had trouble understanding the word in the listening test even though I knew its spelling, I would like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learning the English pronunciation system. I think it is possible to get used to the pronunciation of each word through Quizlet that I recommended earlier. However, having various opportunities of being exposed to English texts is important as well. Finally, I suppose there are some students who only memorize the Korean meanings of English words because they are not required to spell such words in Suneung. However, I'd like to tell you that words which are learned through such ways will not stay in your memory long enough and will not remain as useful knowledge.



<퀴즐렛 어플을 통해 단어학습-발음 익히기>



Q. 시기별로 영어 학습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나는 초등학생 때는 영어 일기, 중학생 때는 영어 동화, 고등학생 때는 백지 공부법을 활용했습니다. 우선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에서 원어민 선생님을 만나며 매일 영어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었던 직접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는 영어 동화로 세계 명작을 읽었습니다. 이 두 가지 학습 경험을 통해 저는 영어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동화나 글쓰기 등 영어에 흥미를 붙일 수 있는 경험을 쌓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영어뿐 아니라 여러 과목에 내용을 설명하는 백지 복습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 공부한 내용을 점검하고 내가 모르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었습니다.

I wrote English journals when I was in elementary school, used English classic as learning materials in middle school, and used the Blank Paper Review method in high school. First, in the fifth year of elementary school, I started writing journals every day when I met a native English teacher. Then I started reading English storybooks when I entered middle school. Since these experiences made me enjoy learning English, I think it is important to have experiences that can grow your interest in studying a language. When I was in high school, I actively used *the Blank Paper Reviewing method* not only for English but also for other subjects. The advantage of this method is that I can find out what I wasn't aware of and fill in what I missed while studying.

Q. 대학교에 가서도 영어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고 들었어요. 대학의 영어는 어떤가요?





우선 전공이 영어와 관련이 없더라도 영어 전용 과목을 들어야 하는 만큼, 영어 실력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고, 시험도 영어로 출제됩니다. 따라서 영어로 된 수업의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말, 또는 글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거쳐 대학교에 입학한 저는 제가 이해하는 어휘의 수준과 실제 글쓰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단어의 어휘 수를 측정하는 시험에 참가하였는데, 이해할 수 있는 단어에 비해 쓸 수 있는 어휘의 수가 턱없이 모자라 대학생이 친구들과 어휘 스터디를 시작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의 사례처럼 잘 알아듣는 것뿐 아니라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말이나 글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어휘’의 폭을 늘리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These days, English is essential even though one's major is not related to English. Since many university lectures are given in English and the exams are in English as well, you should be able to understand English texts and express what you have learned using both speaking and writing skills. After completing a regular curriculum in Korea, I tested myself to measure the level of vocabulary and the number of words I used in actual writing situations. I realized that there was a huge gap between the words I could read and the words I could use, so I joined a study club to reduce the gap. In addition to being able to understand words in listening text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range of words to be able to express or write your opinions.



18학번 유준혁



“ I am Ryu Jun-hyuk, an English Education major at Hanyang University. I entered Hanyang University in 2018 to fulfill my dream of becoming an English teacher. Even though I am not a licensed teacher yet, I hope my experience can be of help to you.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18학번 유준혁입니다. 영어 교사의 꿈을 갖고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학업에 몰두하여 훌륭한 영어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직 정식 교사는 아니지만, 저의 경험이 영어학습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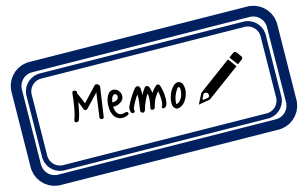
Q. 우선, 전반적으로 영어를 어떻게 접했고 배우게 됐는지 궁금해요!

영어라는 언어에 흥미를 갖게 된 건 14살 때였습니다. 내가 다니던 중학교에는 영어체험센터가 있어서 많은 원어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원어민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던 영어 선생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고 나도 선생님처럼 유창하게 대화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영어체험센터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여 원어민들과 대화하고 의사소통을 하며 영어에 대한 흥미를 키웠습니다. 또 팝송을 들으며 회화표현을 익히고 그걸 사용하여 그들과 성공적으로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에는 문법 공부와 읽기 공부를 하면서 영어학습을 이어나갔습니다.

I was first interested in English when I was 14 years old. I had opportunities to meet many native speakers as there was an English-experiencing center in our middle school. One day I saw my English teacher naturally having a conversation with other native speakers. I was shocked and wanted to fluently communicate with other natives as well. After that day, I participated in the center's after-school programs to communicate with the native speakers there, and this naturally developed my interest in English. I also remember listening to pop songs and using the expressions I learned during the conversation. Since then, I kept on studying English to develop my grammar and reading skills.

Q.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휘라고 하던데, 그럼 어휘는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처음에는 무작정 단어를 외웠습니다. 단어가 쓰이는 예문은 무시하고












단어의 철자와 뜻만 외웠습니다. 당연히 그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amount' 라는 단어는 '양(분량, 액수를 말할 때의 양)'이라는 한국어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sheep'이라는 단어 역시 '양(동물 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문은 보지 않고 무작정 뜻만 외운 나는 두 단어 모두가 동물 양을 지칭하는 단어인 줄 알고 있었고 당연히 영어 지문을 공부할 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나의 공부방법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나는 단어공부를 할 때 단어장에 있는 예문을 모두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실제 예문에서의 쓰임을 본 뒤 단어를 암기하니 오히려 암기가 더 잘 되었습니다. 지문을 해석할 때도 그 단어가 나오면 더 쉽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나처럼 단순 암기를 선호하는 학생이 있다면 예문을 통한 단어 학습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At first, I simply kept on memorizing the meanings of words without paying attention to example sentences. The result was surely not good enough. For example, there are words *amount* and *sheep*, both meaning “양” in Korean. However, since I blindly memorized the definition of both words without looking at how the words are used in example sentences, I thought both meant ‘양’ as a sheep. I realized that my learning strategy was wrong and started to focus on example sentences as well. It was easier to remember words once I started to look up how they were used in real texts, and I could better understand reading texts. If there are students out there who prefer rote memorization, I strongly advise you to study with example sentences.







sheep    중2, 고교 공통

미국 영국 [ʃi:p]   | 미국식 [ʃi:p]   | 영국식  

명사 복수형 sheep
파생형 활동시형 sheepish | sheeplike

출판사별  **옥스퍼드** 동아출판 YBM 교학사 슈프림 영영

명사


명사
(pl. sheep) 양  ewe, lamb, ram, black sheep

예문 (7,356건)


VLIVE 자막

주제별 : 전체 문체별 : 전체 지역별 : 전체 표현수준


선택옵션 : 주제별 전체 | 문체별 전체 | 지역별 전체 | 해석한글해석 전체 | 표현수준 전체

[일반] A greedy man caught the hungry **sheep**.  출처:YBM

욕심 많은 남자가 배고픈 양을 잡았다.

[일반] A flock of **sheep** stopped the way to the village.  출처:YBM

일떼는 우리가 그 마을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

[일반] He stays with the **sheep** all day.  출처:YBM

그는 하루종일 양들과 지냅니다.



<단어와 뜻을 사전에서 파악하는 것>

<단어가 쓰인 예문을 확인하는 것>

Q. 저는 영어에서 문법이 가장 어려워요. 문법은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문법 학습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문법을 따로 공부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한국어를 배울 때, 문법을 따로 공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익혔기에 문법을 배우는 게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흥미도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방법은 어휘 학습처럼 예문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개념을 학습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예문을 통한 학습이라 생각합니다. 문법의 실제 쓰임을 봄으로써 더 쉽게 개념을 익힐 수 있습니다. 또 문법의 쓰임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문법을 공부할 때 다양한 예시를 통한 공부를 추천합니다.

The biggest challenge in studying grammar was that it had to be studied separately. Since we acquired our first language, Korean, without grammar education, learning a grammar system separately was quite unfamiliar and uninteresting. Therefore, I decided to look into example sentences like I did to build up my vocabulary skills. I think the best way to understand a certain concept is through its specific examples. If you know how grammar rules are used in real life, it is easier to understand grammar terms as well. I suggest that you read various example sentences when you study gramm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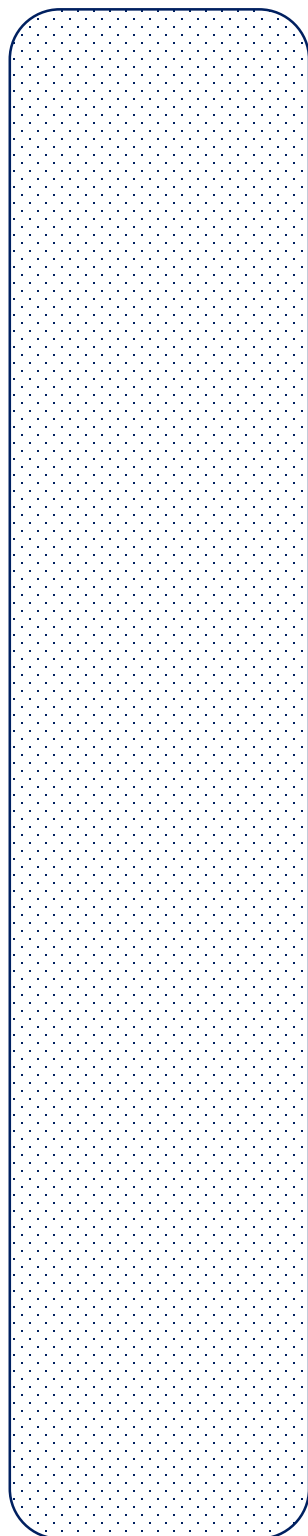
Q. 기초적인 영어 실력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마도 우리는 다른 언어를 의사소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우고 있을 겁니다. 의사소통은 글로도 할 수 있겠지만 목소리를 통한 의사소통이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의 기초는 '말하기'가 아닐까요? 그 '말하기'를 위해서 영어 발음의 원리를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단어를 공부할 때나 지문을 공부할 때 반드시 그 단어나 지문을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보고 똑같이 말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공부한다면 읽기나 단어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영어 기초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Perhaps we are studying a foreign language for the purpose of communication. This is surely possible through writing, but I think speaking is the basis of it. Doesn't that apply to all languages? We should understand the principles of English pronunciation to master *speaking*, so I suggest that you repeat after native pronunciation while you study. This strategy will help you build up reading skills or vocabulary knowledge and build up the basis of English at the same time.

Q. 시기별로 영어 학습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초등학교에서의 문법 공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초등학생을 위해서는 영어를 언어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단순한 말하기 수업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학생이 되면 기초적인 문법, 말하기 전략, 쓰기 전략, 읽기 전략 같은 것을 배우는 게 좋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사용했던 표현의 규칙을 공부하며 영어에 대한 흥미를 키울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더 높은 수준의 문법, 말하기, 쓰기, 읽기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지식을 넓혀 자신감도 키워가고 높은 수준의 영어 실력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모든 시기에 영어로의 의사소통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운 것을 활용하고 실제로 사용되는 표현이 있으면 신경 써서





배워두는 게 좋은 거 같습니다. 이후 실제 상황에서 유창하게 영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I think grammar education is insignificant in elementary school. Rather, simple speaking class is enough for young students. Once you are in middle school, I suggest that you study basic grammar and strategies for speaking, writing, and reading. You can build up your interest in English by simply going through expressions or phrases you learned in elementary school. Once you go to high school, you need to deal with an advanced level of grammar, speaking, writing, and reading texts, which will expand your knowledge and build up your confidence. However, I think communicating in English should be involved throughout the steps. Using what you learned in real life and paying attention to frequent phrases will be helpful. Then this will guide you to speak fluently in real situations.



Q. 대학교에 가서도 영어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고 들었어요. 대학의 영어는 어떤가요?

대학교에서 영어는 필수입니다.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 영어로 출제되는 수업이 있기 때문에 영어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일 년 동안 대학교에서 느낀 건 쓰기, 읽기, 말하기, 듣기 같은 모든 영어의 능력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평소 영어로 쓰기와 말하기를 해본 적 없는 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고 싶은 과가 영어와 관련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말하기와 쓰기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그 능력들을 키워서 진학하는 걸 추천합니다.

English is essential in the university. You should be able to express your opinions since there are classes and exams in English. I realized in my first year at the university that all four skills — writing, reading, speaking, and listening — are required. I had difficulties as I had never practiced writing or speaking in English before I came to university, and soon realized the necessity of improving such skills. Even those who are choosing majors unrelated to English should build up speaking and writing skills before you go to university.

A large, vertical rectangular area with a light blue dotted pattern, intended for taking notes or writing a memo.



18학번 이준범



“ Hello, I am Lee Jun Bum, an English Education major at Hanyang University. I was born in Donghae, Kangwondo, and graduated from Bukpyeong elementary school through high school. I hope my experience can be helpful to you. ”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에 재학중인 18학번 이준범입니다. 강원도

동해시에서 태어났고 동해시내에 있는 북평초등학교, 북평중학교, 북평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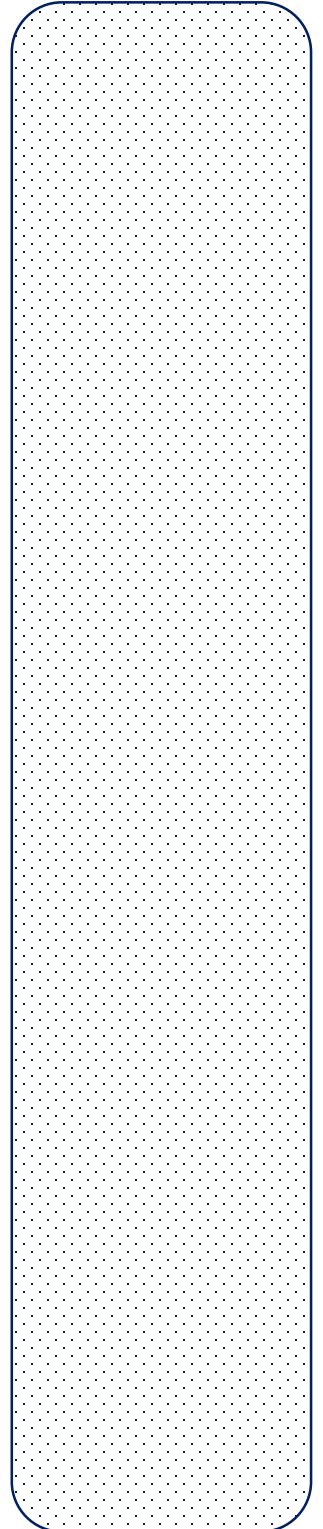
제 영어공부경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Q. 우선, 전반적으로 영어를 어떻게 접했고 배우게 됐는지 궁금해요!

영어를 처음 접한 때는 유치원을 다닐 때입니다. 매우 어렸기 때문에 알파벳이나 아주 쉬운 단어를 몇 가지 배웠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CD를 들으며 영어 학습을 했습니다. 학원에 다녔던 것은 아니지만 영어교실과 관련된 회사에서 받은 교재를 통해 1주일에 2번씩 일정 분량을 학습했습니다. CD를 들으며 학습을 하는 교재였기 때문에 듣기, 쓰기, 단어 암기 등을 위주로 학습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영어를 더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영어 동화책, 소설 등 문학작품이나 노래는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를 다닐 때에는 학교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이 주로 간단한 문법이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기억할 정도로만 수업시간에 집중하고 그 외에 따로 심화적인 공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The first time I was exposed to English was when I was in kindergarten. I started off with learning alphabet or very simple words since I was too young. I didn't get tutored, but I studied twice a week using the book I received from an English class-related company. I focused on listening, writing, and memorizing vocabulary with a CD and this helped me approach English in an easier and in a more familiar way. I did not use any English story books, novels or songs as materials. English grammar in middle school was quite simple, so I did not study as hard as I did in high school. I paid attention in class just enough to understand the text.

또한 영어학원도 중학교 때까지는 다니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는 영어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풍부한 어휘력, 독해력(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지문에서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문법도 중요하지만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1문제 밖에 나오지 않으며 기본적인 문법지식을 물어보기 때문에 난이도가 매우 낮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주로 문법 위주로 배웠기 때문에 어휘력이 풍부하지 않았고 지문을 읽고 문제의 답을 찾아내야만 하는 것이 고등학교 영어였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 학원에 다녔습니다. 학원에서는 단어 암기, 문제 풀기 이 두 가지 위주로 학습했고 방학 시기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나오는 문법을 유형화시켜 학습했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문법 지식만을 학습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문법 학습에 오랜 시간을 쓰지 않을 수 있었고 다양한 문제 자료가 많아서 풍부한 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신 기간에는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지문을 모두 분석해서 어떤 다른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전략적인 학원의 수업 덕분에 영어공부를 다른 과목에 비해 많이 하지 않고도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시험에 나올 만한, 핵심을 가르쳐주는 것이 사교육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며 학생들이 이러한 사교육을 받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I also did not get any private tutors until I went to high school since memorizing vocabulary and having appropriate reading skills (comprehension check-up questions) were the most important in high school English. Grammar is surely crucial but only one very simple question is asked in Suneung, so the level of difficulty is very low. I got extra help from private academy since I had to build up my vocabulary and learn how to find answers to reading comprehension questions in high school English. In academy I mostly focused on two skills — memorizing vocabulary and solving questions — and categorized questions that are frequently asked in Suneung. I focused directly on what was frequently asked in Grammar to save time and practiced repeatedly using various questions in exams. On top of that, I also analyzed all



the reading passages to prepare for school exams. These strategies helped me get high scores in English without having to spend much time. Also, I think getting extra help from private institutions is an efficient way to study since dealing with what really matters the most is the advantage of receiving private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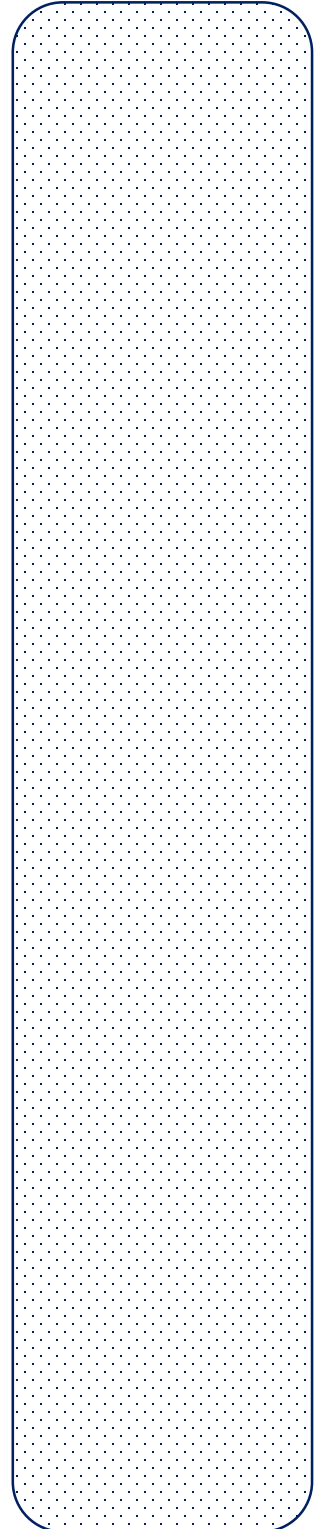


Q.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휘라고 하던데, 그럼 어휘는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앞서 말한 고등학교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점,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영어의 능력은 풍부한 어휘력과 독해력입니다. 독해력을 기르는 동시에 어휘력이 길러진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주변 친구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어휘를 학습했습니다. 많은 학생이 두꺼운 단어 책을 사고 그 교재를 보며 단어를 단순 암기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내신시험에서 본인이 아무리 단어를 많이 알고 있다 해도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As mentioned earlier, the vital importance in high school English is vocabulary knowledge and reading to enter university. Improving vocabulary is possible through practice reading abilities. I studied words quite differently from they ways that other friends studied. Many of my friends bought a heavy thick book and simply memorized all the words, but I didn't because there are always likely to be unfamiliar words in exams even if you know a bunch of words.

그 단어의 뜻을 추측해서 문제를 푸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그 지문에 있는 모르는 단어들을 모두 노트에 필기했습니다. 이 과정을 여러 번 거치자 노트에는 똑같은 단어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어를 계속 보다 보니 쉽게 외워졌습니다. 그 외 다양한





단어들도 그 단어와 비슷한 뜻의 단어가 많이 나오면서 쉽게 외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어휘력이 상승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모르는 단어가 많고 이를 적어 나가는 데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꾸준히 하다 보면 단어 책 없이도 충분히 어휘력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는 그 시험 내에 있는 어휘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 지문에서 나오는 단어를 외우는 것이 그냥 단어 책을 보면서 단순 암기를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Then the only way to tackle the problem is to infer the meanings of the unfamiliar words based on the surrounding context. Therefore, I wrote down on a notebook all the unfamiliar words from the reading texts and after having gone through this process several times, I came to have realized how many words were repeated in the texts. Surely it takes time to get used to this process but do so repeatedly and you will be able to build up your vocabulary. Also, the words in the reading texts that are asked in the exams are all you need to know, so making your own word list from the exam is more efficient than a simple memorization of a word book.

Q. 저는 영어에서 문법이 가장 어려워요. 문법은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문법 학습은 정말 전략이 중요합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너무 잡다한 문법 지식을 학교에서 많이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대학을 진학하는 데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가르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문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1문제 밖에 나오지 않으며 그 중요성이 어휘와 독해보다 매우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나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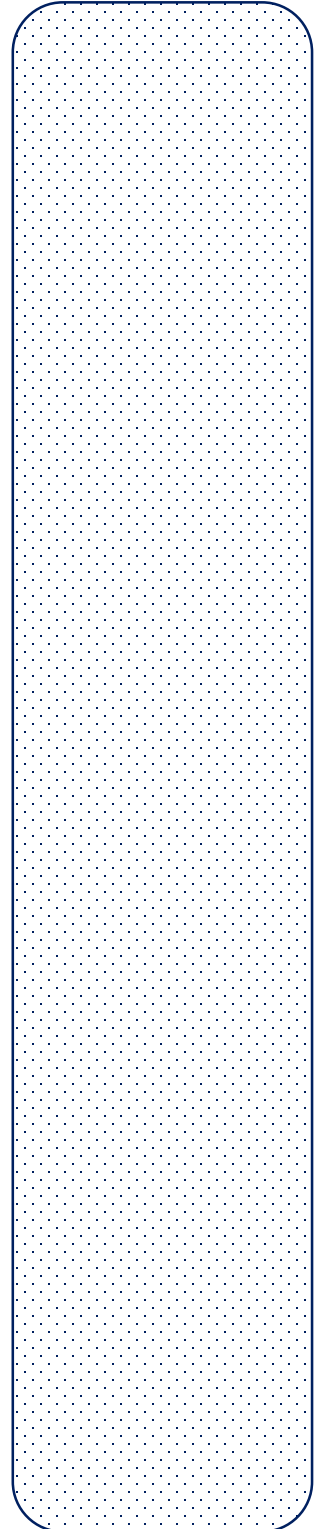


유형이 몇 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 유형을 학교 수업에서 가르쳐 준다면 그 수업을 꼭 집중해서 듣고 나름대로 필기를 해 놓거나 사교육(학원, 인터넷 강의)을 통해 학습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문법 학습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은 낭비입니다.

Grammar education is all about strategies. I think middle school deals with a mishmash of unnecessary grammar knowledge which are not quite required for you to know for university entrance exam. Also, grammar knowledge is asked through a single question in Suneung, so its importance is less emphasized compared to vocabulary skills or reading skills. Therefore, the grammar knowledge that is required for Suneung can be sorted out under a few segments. Make sure you pay special attention to those if they are taught at school. Otherwise, I advise you to learn through private institutions (academy or internet lectures). It is a waste of time to spend too much time on grammar learning.

Q. 시기별로 영어 학습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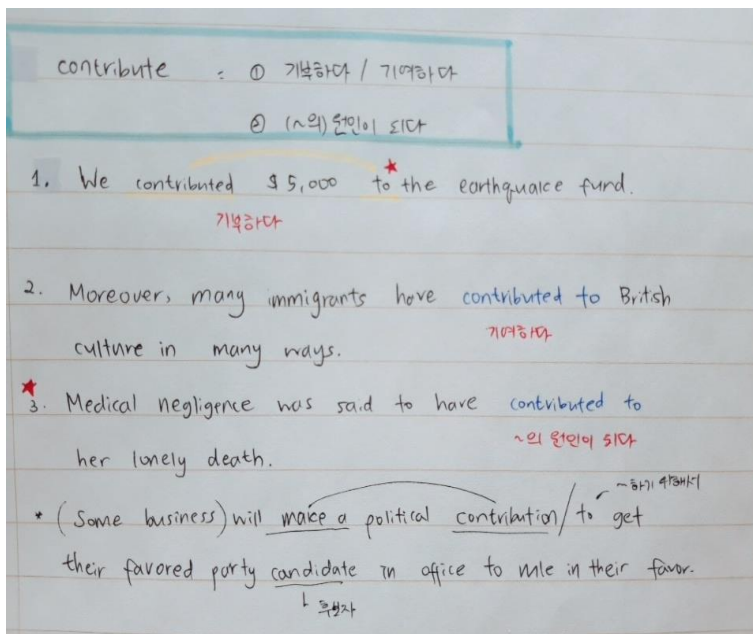
우선 초등학교 시기에는 영어에 친근감을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영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1주일에 1~2번 정도 영어를 들으며 학습을 하거나 미국드라마나 영국드라마 등을 보면서 영어와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학교 때 역시 영어에 대한 친근감을 유지해야 하지만 고등학교 영어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휘력을 조금 더 성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중학교 2~3학년 때에 고등학교 영어 지문에 기본이 되는 단어들을 정리해 놓은 단어 교재들을 시중에 판매할 것입니다. 그러한 단어교재를 1권만 구매하셔서 기본 단어들만 어느 정도 암기해 놓으신다면 더 편하게 고등학교 영어를 공부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고등학교 영어에서는 계속 강조하듯 풍부한 어휘와 독해력이 전부입니다. 기출 문제나 이 외에 다양한





문제를 계속 풀면서 독해력을 기르고 이와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모르는 어휘들을 정리하셔서 나만의 노트에 필기해 놓는다면 고등학교 3학년 때에 자신도 모르게 성장한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You need to first get used to using English in elementary school. You should feel comfortable with English. I think being exposed to English once or twice a week through TV shows (American or British) is necessary. Also, building up vocabulary skills is required to prepare for high school. There are books in stores which deal with frequently-used basic words that are taught in a middle school curriculum. Studying one of those books will definitely help you get through high school English. High school is all about vocabulary skills and reading skills, as much as I have been emphasizing. Be exposed to various reading texts to improve your reading skills and make a list of unfamiliar words. Keep up this work and you will experience self-improvement and fulfillment by the end of high school.



<어휘 노트 만들기>

Q. 대학교에 가서도 영어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고 들었어요. 대학의 영어는 어떤가요?

대학에서는 영어로 수업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또한 학과마다 쓰이는 전문 용어를 교수님들이 영어로 수업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학 수업 교재에 있는 전문단어들을 영어로 알아두시는 것이 수업을 듣는 데에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There are many lectures given in English in the university. Also, there are many English-only classes where professors use jargons in English, so I suggest you look up those terms in English beforehand.





18학번 정유정



“ Hello, I am Jeong Yu Jeong, an English Education major at Hanyang University. I graduated from a normal public high school in a provincial area. Back in my school days, I had felt that my educational environment was relatively inferior compared to that of Seoul. I noticed the gap after talking to my friends in the university. I was frustrated because of the gap of educational environment between Seoul and the other regions. I believe there must be some students feel the same way as I do. I want to share my story, hoping I can be of help to other students. ”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에 재학 중인 정유정입니다. 저는 2018년도에

지방에 있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여기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에서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을 느꼈었고 대학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런 차이가 더욱 직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소 교육 환경의

차이에 답답함을 느꼈고, 어딘가에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경험이 학생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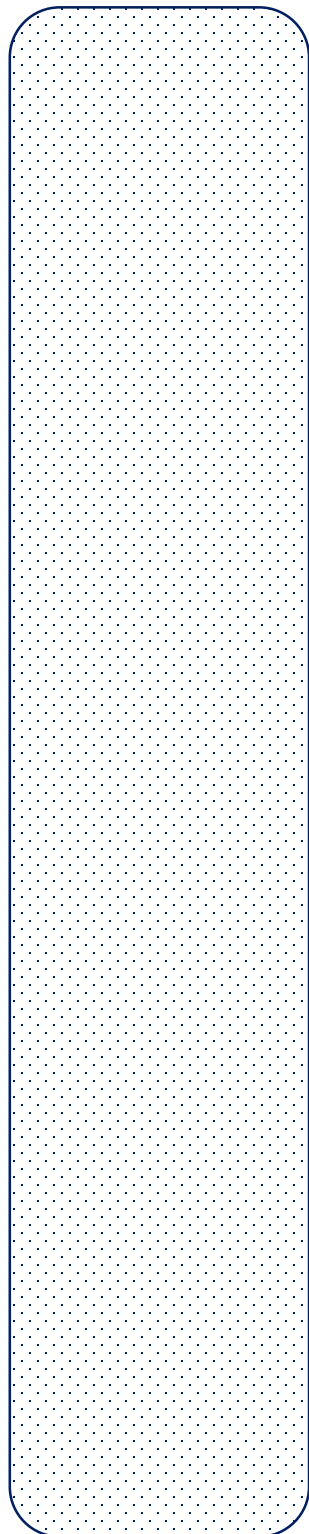
Q. 우선, 전반적으로 영어를 어떻게 접했고 배우게 됐는지 궁금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영어로 된 애니메이션을 반복해서 보았고, 영어 동요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해도 들리는 대로 따라 하고 멜로디를 흥얼거리면서 계속해서 영어라는 언어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알파벳을 배우고 기초적인 학습을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당시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앞에 있던 학원에서 처음으로 학습적인 영어를 배웠습니다.

I have listened to a lot of English children's songs and have watched English animations ever since I was a little girl. When I was young, I repeated watching the same things over and over again until I almost memorized all of them even though I could not completely understand what they meant. Repeating the lines in animations and humming the music melodies kept me exposed to English. It was in my third grade when I started to officially study basic English. I went to a private academy near my elementary school to start studying English.

Q.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휘라고 하던데, 그럼 어휘는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많은 친구들이 연상작용을 이용해서 단어를 외우는데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연상작용을 통한 단어 암기는 나중에 정확한 의미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상작용 때문에 착각이 생겨, 잘못된 뜻으로 오랫동안 기억하게 되고, 한번 잘못 입력된 의미는 나중에 다시 바로잡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큼니다. 차라리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반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암기하기 어려운 단어들은 따로 작은 노트에 적어 들고 다녔습니다. 또한





단어를 외울 때 그 단어가 사용된 문장을 적어도 한 번씩 읽어보며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 맥락을 파악했습니다. 몇몇 학생들 중에는 단어를 외운다고 하면 읽을 줄 모른 채로 뜻만 암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찮더라도 모든 단어를 사전에 찾아서 꼭 발음을 들어보는 것을 권유합니다. 어느 곳에서 강하게 읽고, 이 부분은 어떻게 발음하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은 단어학습을 넘어 말하기에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단어를 어느 정도 많이 외웠다는 생각이 들면 자주 쓰이는 접두사 접미사 등, 단어를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근과 파생어를 암기하니 아무리 생소한 단어라도 뜻을 유추할 수 있게 되고 암기에 투자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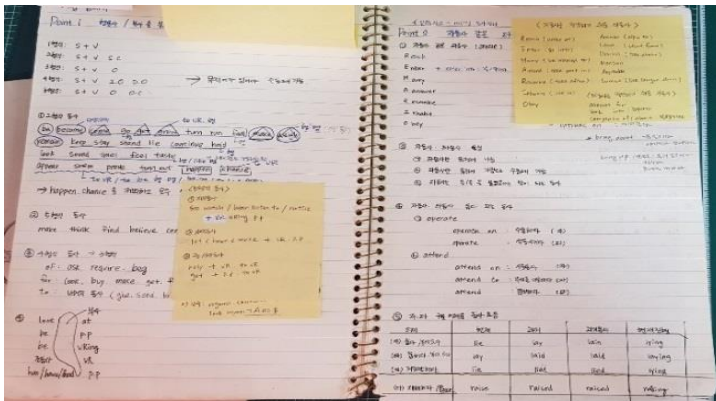
Many students use an association technique to memorize vocabulary, but I do not recommend you to use it. It is hard to recall the meanings of the words that you memorized through the association technique, and sometimes may even be mistaken and remember their meanings differently. Correcting such mistakes is very hard once there is a fixation in your memory. Instead, I recommend you to repeat the words even if it takes some time. I prepared a small word notebook and carried it around with me. Also, when memorizing words, I read the example sentences to understand the context and how words are used in real life. Some students may memorize words without even knowing how to pronounce them, but I advise you to listen to their pronunciation using English dictionaries. Understanding where to put accent or how to read the word will help you gain confidence in vocabulary skills and speaking skills. You can also categorize words based on their *forms* like their prefixes and suffixes when you think you have reached a certain vocabulary level. This strategy helped me save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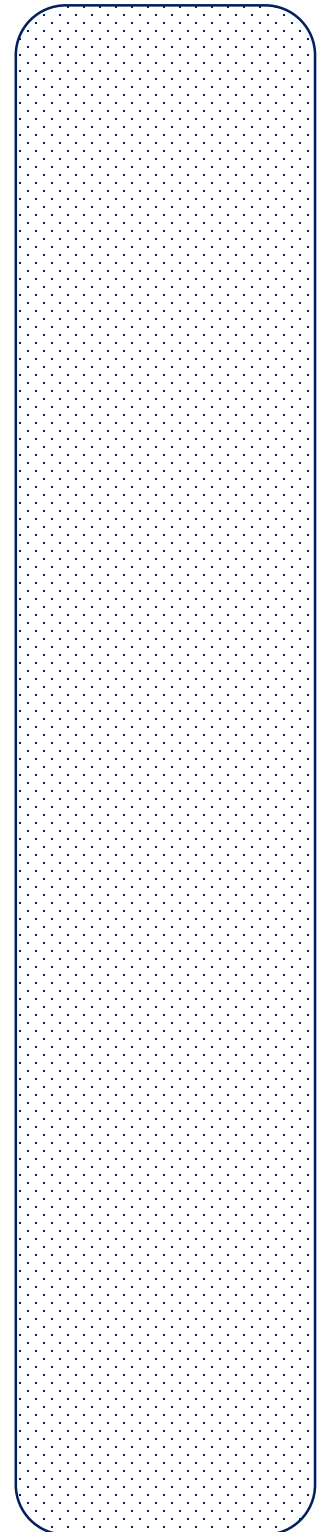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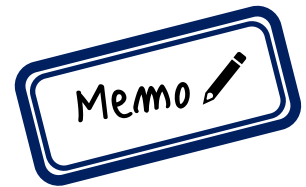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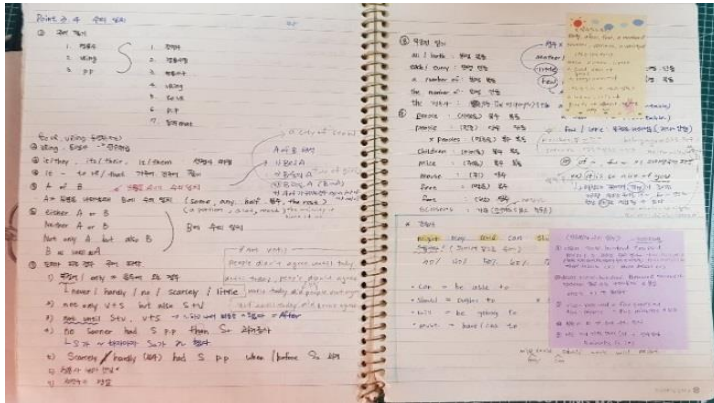


lot of time memorizing since I could easily guess the meanings of unfamiliar words with my knowledge of their roots and affixes.

Q. 저는 영어에서 문법이 가장 어려워요. 문법은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중학교 때까지 제가 가장 어려워했던 부분이 문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제대로 알고 나니 가장 공부하기 쉬운 부분이 문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법은 분명한 규칙과 답이 말하기 듣기 쓰기는 아무리 해도 끝이 없는 반면 문법은 비교적 명확하게 분량이 존재합니다. 저는 초급문법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2학년 때 문법개념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저만의 문법 노트를 만들어서 문법책에 있는 내용을 따로 보기 좋게 정리했습니다. 노트에 정리한 내용은 매일 보면서 암기했고 백지를 놓고 적으면서 복습했습니다. 노트에 있는 내용을 모두 백지에 보지 않고 옮겨 적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다른 문법책을 샀습니다. 여러 권의 책을 돌려보면서 같은 개념이 어떻게 다르게 설명되었는지 비교했고 노트에 내용을 덧붙여 나갔습니다. 처음에 문법 개념을 배울 때는 문법 문제집에서 그 개념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 풀었고, 나중에 개념 정리가 끝난 후에는 문제의 종류에 상관없이 문제집에 있는 지문을 발췌해 그 지문 속에서 내가 찾아낼 수 있는 모든 문법 규칙을 찾아내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 나중에는 굳이 집중해서 보지 않아도 암기했던 문법 규칙들이 자연스럽게 보였습니다.





Grammar was the most challenging part until I was in middle school, but I realized that it was the easiest part once I went through it. Grammar has clear rules and answers, and it has relatively a fixed amount to learn unlike speaking, listening, and writing. I started with basic grammar and went through all the concepts when I was in the second year of middle school. I made my own grammar notebook and organized everything. I checked my notebook everyday and repeated what I had learned by writing them down on a blank piece of paper without seeing the note. When I could copy down everything from the note without looking at it, I bought a different grammar book. I studied many books and compared how the same concept was differently explained. Then I added them to my note. First when I started learning grammar, I looked up specific grammar concepts in the grammar book to solve related questions, and later when I completely understood grammatical concepts, I practiced identifying every grammar rule I could find from a reading text. After continuously repeating this process, I did not have to consciously look into rules because this strategy helped me naturally recognize what kind of grammar rules are used in the reading passage.

Q. 저는 영어의 기초가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원어민 선생님과 과외를 했습니다. 그 선생님 덕분에 말하기, 듣기, 쓰기의 기초를 다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 혼자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듣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마틴 루터 킹이나 스티브 잡스처럼 유명인이 한 연설과 TED 강의를 활용했습니다. 강의와 강연을 들리는 대로 받아 적는 훈련을 했고 좋은 구절은 따로 암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황에 따른 자연스러운 표현 방법들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쓰기 능력은 영어잡지를 읽고 에세이 쓰기, 원서 읽고 영어로 독후감 쓰기, 영어일기 쓰기로 훈련했습니다. 영어잡지를 읽고 에세이를 쓸 때는 평소에 제가 관심 있던 주제의 기사를 읽고 한 달 동안 하나의 에세이로 퇴고를 반복하며 학술적인 글쓰기를 훈련했습니다.

I was tutored by a native teacher from the four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to the first grade of middle school. Thanks to my tutor, I could lay the foundation for English speaking, listening, and writing. After then I studied on my own. I used widely-known materials like Martin Luther King Jr's speech or Steve Jobs' lecture or TED talks as a learning tool to improve my listening skills. I did dictation, writing down everything I could hear and remembering memorable phrases. This helped me naturally understand English expressions that are used in different contexts. I wrote essays after reading English magazines, book reports, or English journals to improve writing skills. For instance, I wrote an academic English essay, after reading a magazine article about a certain topic I was interested in, and proofread the writing for a month.





Q. 시기별로 영어 학습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초등학생 때는 영어와 친해지고 친숙해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에서 영어를 자주 접하는 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단어, 문법은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어도 되지만, 대신 듣기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뜻을 다 알지 못해도 자주 영어를 듣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부터는 글쓰기를 시작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관심있는 영역에 관한 영어 기사를 찾아서 읽고 에세이를 써 보는 것은 쓰기 뿐만 아니라 독해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중학교 때 문법을 확실히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모든 과목에 신경 쓰느라 영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되도록 중학생 때 독해, 문법을 확실히 정리하고 간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등학생 때는 모의고사같이 검증된 영어시험을 통해서 독해 실력이나 문제 푸는 기술을 익히고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실력을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심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너무 내신에만 집중하지 말고 기회가 된다면 학교 안이나 밖에서 하는 다양한 영어 에세이 쓰기, 영어 토론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러한 경시대회에 참가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과 만나 경쟁하고, 대회를 준비하면서 실력이 한 단계씩 성장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I think becoming familiar with the English language is prerequisite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It is enough being exposed to English in your daily life. You only need basic knowledge for vocabulary and grammar, but English listening at an early age, even though you do not understand everything you listen to, is very important since improving listening skills requires a steady effort. From middle school, I suggest you start writing in English. Finding a news article that interests you and writing an essay about it will help improve your writing skills and your reading skills as well. Also, it is good to study English grammar in middle school. It becomes



harder to focus only on English in high school because you have many subjects to cover, so going over overall English grammar in middle school will definitely help in high school. In high school, it is important to expand your skills through a valid, authorized English tests and learn reading techniques or problem-solving skills. Therefore, I recommend you to participate in various extracurricular activities like English essay contests, or English debating contests instead of immersing yourself into school grades. Participating in these activities will give you opportunities to meet and compete with different people, and through this process, you will be able to take a step to a higher level of English competence.



Q. 대학교에 가서도 영어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고 들었어요. 대학의 영어는 어떤가요?

대학에 들어오니 전공에 상관없이 영어전용으로 이루어진 수업도 있어서 영어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부를 하면서 여러 자료를 인터넷으로 조사하다 보면 많은 것들이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영어 공부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학은 지식만 얻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외국인 학생 들과의 교류라고 생각합니다. 방학 때마다 학교에서 열리는 국제 여름학교, 국제 겨울학교 활동들을 통해 여러 나라에서 오는 학생들과 함께 교류하며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도 영어는 필수적입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혼자 영어 강연도 찾아 듣고, 에세이도 쓰면서 영어 공부를 했지만 대학에 와서 보니 많은 친구들이 해외에서 오랫동안 살다 왔거나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교육을 통해 준비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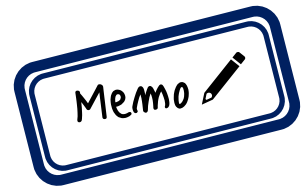


학창시절 때 주변에 좋은 학원이 없는 것이 불만이었고 단순한 영어학습을 넘어 저에게 필요한 심화된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혼자 채찍질해가며 노하우도 없이 해 나간다는 막막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고 서울에서 살았으면 더 좋은 선생님, 더 좋은 학원, 더 잘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겠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들이 모두 지나고 지금 돌이켜 보니 저의 환경을 그렇게 비판할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나는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I realized the importance of English when I saw a lot of English-only courses regardless of students' majors in university. Also, I found out that a lot of information or data was written in English as I was doing research on the internet. Whenever this happens, it makes me realize the necessity of learning English.

University is not just a place to gain knowledge, but is also a place to interact with different people and have a variety of experiences. One of them is a cultural exchange with foreign students. In every summer and winter break, my university opens International Summer School and International Winter School, and English is essential to interact with those students with various cultural backgrounds.

I studied on my own, finding English lectures online and writing essays at home, but I met many friends who had lived abroad for a long time or had received private education ever since they were young. I often complained about my local area that did not have any good private institutions, and sometimes felt frustrated about having to do everything on my own and push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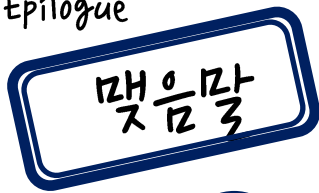


myself to the limit without any real-life tips. Sometimes I wanted to give up studying, and sometimes I would picture a better life that I thought I would have led if I had been living in Seoul, with better teachers, better private institutions, and smarter friends. However, now I have realized that complaining about my surrounding environment was unworthy. I have learned that whenever I am, under what conditions I'm in, trying everything and doing my best are important and all that really matters.





Epilogue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저희는 많은 대학생 저자의 영어 공부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각각의 원고 속에는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학생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과정이 녹아있었습니다. 모두 영어 공부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렸지만, 동일한 길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삶이 담긴 개성 넘치는 생생한 공부법들로, 영어에 대한 열정을 키워 왔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각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자주 언급된 학습법이나 공부경험을 따로 정리할지에 대해 의견이 오갔으나, 여러분이 그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본인에게 필요한 내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경험을 넓힘으로써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에 도움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모두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 이 학습기를 쓴 한양대 학생들도 여러분과 같이 다양한 길을 탐험하고 헤매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점점 더 널리 사용되는 이 언어를 탐험하는 여정에서 여러분도 용기와 열정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Since we had started this project, we have been exposed to 16 college students' stories of learning English. In their manuscript, we could see different ways in which the student authors of English Education major at Hanyang University struggled to study English in their own ways. All of them moved toward the same goal of learning English, but none of their paths were the same. We felt that they all cultivated their passion for English, each with unique and vivid ways of studying the language. Therefore, we tried to deliver their vivid voices just as they were with minimum adaptation. We had a discussion about whether to organize frequently mentioned studying methods or experiences on a separate page, but we figured it would be more important for readers to listen to them f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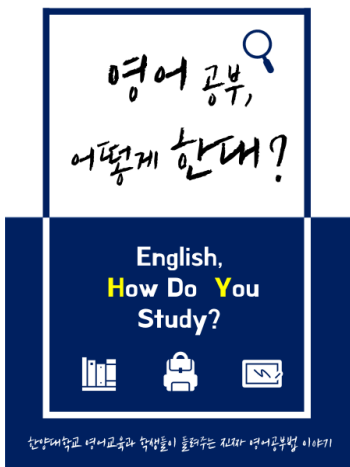
yourselves and adopt on your own what would be useful to you. We hope this collection will help you widen your views by reading its many stories.

Dear readers, we all have a common concern after all: “How can I become a good English user?” The writers who contributed their stories of studying English for this book also came all the way here, exploring and wandering various paths. We sincerely hope this knowledge will surely give you courage and passion on your journey of exploring this language in wider and wider use. ”

2019년 가을,
한양대학교 맨 꼭대기에서
편자인 일동



왼쪽부터 김진영, 정승연, 이다영, 안성호 (호칭은 생략)



초판 발행 2019년 10월 9일

편집장 안성호

편집인 김진영, 이다영, 정승연

펴낸이 전유아

펴낸곳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주소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전화 02-2220-114 **팩스** 02-2291-4447

홈페이지 <http://education.hanyang.ac.kr/front/undergraduate/English/board>

이 책의 저작권은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에 있습니다. 무단 도용 및 복제, 상업적 이용을 전적으로 금지합니다.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학생들이 전하는 진실한 이야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쉬운 길이 정말 없다는 겁니다.

Easy come, easy go 라는 영어 속담이 있어요.

‘쉽게 얻는 것은 쉽게 없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반대로 힘들게 얻는 것은 쉽게 없어지지 않죠.

그런데 바로 영어가 그런 거 같아요.

절대로 쉽게 얻어지지 않아요.

끈기 있게 달려들어야 하죠.

그러나 일단 얻게 되면 누구에게나 참 좋은 ‘보물’ 중 하나가 되지요.

여러분, 한 번 달려 들지 않으시겠어요?

- <건투사> 중에서